

【동구문화총서16호】

대청호가 품은 자연마을



대전동구문화원

▶ 발간사	4
길공섭 대전동구문화원장	
▶ 대전 동구 역사 개요	5
▶ 대청호가 품은 설화	7
▶ 대청호가 품은 비지정 문화재	20
▶ 대청호가 품은 문화재 사진자료	
제례	37
김정선생	41
산성	43
장승	46
정사 정려 · 묘	49
▶ 대청호가 품은 자연마을	
비룡동	54
주산동	71
추동	89
용계동	116
마산동	120
직동	130
효평동	144
세천동	176
신상동	202
신하동	225
신촌동	242
사성동	248
주촌동	255
내탑동	266
오동	271



『대청호가 품은 자연마을』을 펴내면서

길공섭 대전동구문화원장

대청호는 치수治水를 위해 건설한 담수호다.

대전과 충북 청원 보은 옥천을 아우르는 바다 같은 호수다.

담수로 인해 삶의 터가 물속에 잠겨 실향민이 된 주민들은 주변의 높은 곳으로 이주하여 물속에 잠긴 고향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싶었을 것이리라. 다행히 수면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마을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역사의 마을이 되었다.

우리는 역사의 깊이와 넓이, 그 시대의 정체성까지 기록하고 정리하여서 후대에 넘겨줘야 할 책무를 소홀이하면 안될 것이다. 하여 지역의 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 대청호 주변을 기록하여야 할 책임을 느끼고 작업을 시작했다.

물이 그린 대청호의 그림은 어느 화가가 흉내 낼 수 없을 풍광을 만들어 내고 있다. 지형적 오묘함, 주변의 지형과 어우러진 자연 판타지는 오직 대청호의 특별전이다.

자연마을 사진기록 작업을 하면서 대청호주변을 몇십 차례 오가며 느낀 감정은 인공적 담수호지만 오랜 세월 주변풍경과 잘 버무려져 중부지역의 호수가 그린 자연그림으로 자리매김했다.

몇십 번 정리하고 교정했으며 전문가의 점검도 함께했지만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자료 수집에 수고해주신 이경숙 작가님, 항공촬영으로 이 책의 질을 높여주신 중앙드론에게 감사인사를 드린다.

대전 동구 역사 개요

대전 동구지역에 사람은 언제부터 살기 시작했는가? 이것을 알아보려면 고고학(考古學)을 발췌해 봐야 할 것이다. 동구지역에서 발굴되었거나 조사된 유물이나 유적 가운데 가장 오래 된 것은 청동기시대의 것이다. 사성동 유적, 비룡동 선사유적, 세천동 선사유적, 삼정동 선사유적 등에서 발굴된 고인돌이나 무늬없는 토기, 또는 김해식 토기 등이 바로 청동기시대의 것이기 때문에 그 청동기시대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청동기시대부터 동구지역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아니다. 문자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선사시대의 상황은 유적과 유물을 통한 고고학적 연구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고고학상의 유물 유적이란 것이 당시의 자취 가운데 극히 일부분만이 운 좋게 남아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석기시대나 신석기시대의 유적이나 유물이 동구지역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동구지역에 구석기인이나 신석기인이 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일찍이 1960년대에 대전과 인접한 공주시의 금강유역에 있는 장기면 석장리 반포면 마암리에서 구석기시대에 사람들이 살았던 자취가 확인되었고, 최근에는 대전시 서구의 구즉동과 둔산동에서 구석기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유물이 채집되었다. 따라서 대전 동구지역도 구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이 거주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신석기시대에 사람들이 살았던 자취로는 대전시 서구 둔산동 유적지와 구성동 유적지 등이 있다. 그러므로 동구지역에도 청동기시대 이전부터 사람이 살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문헌기록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남부지역의 역사는 삼한시기부터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이 정립하기 이전, 한반도의 남부지역에는 마한, 진한, 변한으로 불리는 수십개의 소국이 병립하고 있었는데, 이를 삼한(三韓)이라고 부른다. 이 시기 대전 동구지역은 마한에 속해 있었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의하면 마한은 54개의 소국으로 구성

되어 있었다. 그러면 대전 동구지역은 이들 소국 중에서 어디에 속하였을까? 이 시기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삼한 소국의 위치비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다만 여러 가지의 학설 중에서 마한의 소국인 신흠국_{臣混國}을 대전지방의 진잠과 유성 사이의 어느 부분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대전 동구지역도 신흠국의 영역내 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마한 소국들은 한강유역에서 일어난 백제국의 발전과 세력확장으로 그 지배력이 점차 위축되어 약화되다가 A.D. 4세기경 백제 근초고왕(346~375)때에 이르면 백제에 편입되어 간다. 대전 동구지역도 이 즈음에 백제에 편입된 것으로 여겨진다는 역사학자들의 연구가 있었다.

(대전시사)

대청호가 품은 설화

금 강 의 탐 산 내 탐 동

지금은 대청댐의 완공으로 물속에 가라앉았지만 동구 내탐동 주변 금강변엔 한 여름철에 수영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며 그 수영장 아래쪽으로 탐이 있는 산이 강변에 있어서 이 산을 탐봉, 탐산이라고 불렀었다. 그 탐봉, 탐산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온다.

신라말엽때 전라도 무주 구천동에 한 토호가 살고 있었다. 무주 구천동에는 옛날부터 들이 기름져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구천동의 장자하면 권력이 있는 장자로 불리웠다. 그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거하고 있었으나 그의 원 식구는 세 사람 뿐이었다. 금이야 옥이야 하고 기르는 외동딸과 그들 부부 단 세 사람이었으나 종들이 이삼십 명 살고 있어서 항시 그의 집주변은 장터 같았다.

딸이 장성하여 열여섯이 되었을 때 그는 완주(전주)로 가서 신랑감을 골랐다. 무주 구천동의 장자 사윗감을 고른다는 말이 완주바닥에 퍼져서 많은 총각들이 모였으나 그의 구미에 당기는 사윗감은 없었다. 그래서 그냥 돌아와서는 다음 해에 청주로 사윗감을 고르러 나갔으며 여기에서도 시원치 않으므로 그 다음해에는 이번에는 아내를 동반하고 충주로 사윗감을 고르러 갔다. 그래서 자연히 집에는 딸이 혼자 있게 되었고 종들 틈에서 딸은 모처럼 만에 외출도 마음대로 하게 되었다. 그러저럭 열아홉이 된 딸은 익은 복숭아처럼 환해 보였다.

하루는 꽃이 만발한 남쪽 산에 올랐다가 한 초막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초막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총각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초막집에 가까이 왔다가 초막 입구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칼과 창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돌아섰다가 그집 총각과 마주치게 되었다. 총각은 늙름했다. 그리고 보기에 육중한 그 총각에 장자의 딸은 한꺼번에 마음을 빼앗겼다.

「보기에 귀중한 덕의 처녀같은데 안으로 좀 들어와서 쉬어 가시지요.」

총각은 앞을 스쳐 오르면서 말하므로 그녀는 마치 자석에 끌리는 것처럼 따라 들어갔다. 초막 안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만큼 깨끗했다. 그리고 아들이 안으로 들어오자 초막 안을 환하게 비추는 불을 켜고는 그녀를 보고 빙그레 웃는 그의 어머니의 웃음 띤 얼굴을 보고는 산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는 여기에도 마음이 끌렸다. 산속 초막에서 극진한 대우까지 받은 딸은 그날 늦게 집에 돌아와서는 밤새 그 총각 생각만 하다가 다음날엔 새벽 일찍이 산으로 그 초막을 찾아갔다. 총각은 없었다. 총각의 어머니와 어울려서 거문고도 튕겨 보았으며 책도 펼쳐 보았다. 가까이 갈수록 별천지 같은 초막이었다. 초막 속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가 날이 어두워지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아들이 들어섰을 때 처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셔서 어머니 말동무 되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늦게까지 남자가 총각네 집에 계신다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외다.」 하고는 어둠 속으로 나와서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산길을 걸으면서도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집 앞에 이르렀을 때, 「안녕히…….」 하고 총총히 그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처녀는 생각을 했다.

「내 낭군은 저 분이다. 나는 저 사람 아닌 사람에게는 시집을 안 갈래.」

그녀는 그날 저녁도 그 총각 생각으로 이불을 덮고 누워서 었치락뒤치락하다가 밤을 새웠다. 그 이튿날 아침에도 그 초막으로 달려가고 싶었다. 그러나 억지로 참으면서 늦게 충주에서 돌아오는 부모님을 맞이하게 되었다. 부모님들은 이제서야 신랑감을 충주에서 발견하였다고 좋아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렇지. 네 낭군감이 없겠느냐? 네 낭군감은 충주에 있더라. 아,여보! 당신도 마음에 들었지.」 하고 동의를 구하며 좋아했다. 「혼례는 빨리 서두르기로 했다. 금년 가을에 하기로 했다. 이제 두 달 남았구만.」 하고 말을 할 때 더욱 초막집 총각 얼굴이 떠올랐다. 집에서 혼례 준비를 서두르는 동안 한 번도 그녀는 총각집 초막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 하루는 이러다가는 엉뚱한 곳으로 시집을 가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아버지 앞에 그녀는 나섰다.

「아버지 전 시집을 안 갈래요. 보낼려면 제가 좋아하는 총각에게 보내주세요.」

하고 폭탄적인 말을 했다. 그녀의 부모들은 처음엔 누가 마음에 드느냐고 호통을 치다가 딸이 누구라고 말을 하자 그 초막집을 당장에 습격을 해서 총각을 잡아왔다. 그리고는 그 총각에게 모진 매를 때려서 죽여버렸다. 늦게서야 초막집 총각이 매를 맞고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딸은 그날 밤 부모 몰래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집을 뛰쳐 나왔다. 혼례를 며칠 앞둔 장자네 집에서는 야단법석이 났다. 종들을 풀어서 딸을 찾게 했다. 딸은 구천동 너머 남쪽 절에서 불공을 드리고 있었다. 딸이 산 너머 절에 있다는 종의 말을 들은 장장자는 딸을 찾아 나섰다. 장장자가 집을 나설 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일 모레가 혼례의 날이었다. 그는 종을 데리고 산을 넘었을 때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그래도 빗속을 달려갔다. 드디어 절이 있는 냇물가에 이르렀을 때 냇물을 건너려고 하는데 절이 있는 동산이 냇물에 떠내려가기 시작했다. 장장자는 놀래면서도

「저 동산을 따라가자.」

하고는 빗물에 떠내려가는 동산을 따라 내려오기 시작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에서 동산은 둥실둥실 떠내려가고 있었다. 장장자와 종들은 그 동산을 따라오다가 종들은 실족을 하여 물 속에 빠져 죽기도 했다. 동산이 드디어 어부동을 돌아서 아래로 흘러내려갈 때 장장자도 기진맥진하여 실족을 한 후 물 속에 들어가서 다시는 나타나지를 않았다.

동산은 둥실둥실 떠내려와서 내탑동 안쪽에 척하고 걸렸다. 동산에 있는 절도 그대로였으며 탑도 그대로였다. 딸은 여기에서 죽을 때까지 먼저 죽은 초막집 총각의 넋을 위로하는 불공과 이어 억지를 부리던 아버지, 어머니의 넋을 위해 불공을 드렸다 한다.

그 후 이 동산은 무주현에서 자기네 땅이 떠내려가서 여기에 기착한 땅이라고 하였으나 여기 사람들이 동산을 가져가고 냇물을 비워달라고 해서 무주사람들이 그냥 돌아갔다 하는데 그 여승이 죽으면서 절과 탑은 또한 땅 속에 묻히기 시작하였다 한다.

고 목 나 무 와 산 삼 용 계 동

대청댐이 건설됨에 따라 지금은 수몰되었지만 옛날 용계동 용지말 앞에는 용이 살았다는 못이 냇가에 있어서 상당히 신성시하던 마을이었다. 그 용지말 입구에 옛날에는 나뭇가지가 멋지게 늘어진 고목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다. 강물쪽의 목과 함께 신성시하여 일 년에 한 번 정월달에 날을 정하고 제삿날에는 몸을 청결히 한 다음 새 옷 또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초저녁부터 새벽닭이 울 때까지 자기 신수와 맞는 시간에 마을사람들이 각자 나와서 소지를 올리고 고사를 지내는데 이 나무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조선시대 초엽에 효성이 지극한 소녀가 부모님을 모시고 어렵게 살고 있었다. 늦게 둔 딸이었으므로 부모님은 노쇠하여 기동도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소녀인 그녀는 일찍부터 부엌에 나가야 했고 빨감을 마련하기 위해 산에도 올라다녀야 했다. 그렇다고 또한 먹을 양식이 비축되어 있는 집안도 아니고 해서 끼니거리가 없을 때는 동냥도 다녀야 할 형편이었다. 그날 그날 하루를 지내는 것도 어렵게 지내는데 아버지가 시름시름 앓다가 덜커덕하고 기동이 어렵게 되었으며 어머니마저 아버지 간호를 하다가 지친 듯 눕기 시작하더니 그대로 눕게 되어 두 분이 모두 앓아 눕게 되었다. 부모님이 앓고 드러누웠다 해도 약방에 갈 형편도 못 되어서 딸은 눈물로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

하루는 저녁거리가 모자라서 동냥을 나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와서는 죽을 쑤어서 상을 안방에 들여놓고는 왈각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길 없어 집을 뛰쳐 나와서는 고목나무아래 쭈그리고 앉아서 한없이 울고 있었다. 어둠은 깔려오고 있었다. 소녀가 생각하기로는 살아간다는 것이 한없이 괴롭기만 했었다. 산새들은 저녁 보금자리를 잡기 위해 낮은 울음소리를 지르며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였다. 소녀 앞에 한 노승이 나타나서는 소녀 앞에 곡식이 들어있는 자루를 내려놓고는,

「착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반면에 슬픔이 많은 법이외다..」 하고는 총총히 어둠 속에 사

라졌다. 소녀는 사라져가는 노승을 바라보고는 뒤에다 대고,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몇 번이고 했었다. 곡식은 소녀가 들을 수 없을만큼 자루에 가득했었다. 그 곡식으로 그 날 저녁 부모님께 밥을 다시 해드리고는 그때서야 마음 편안히 잠자리에 들었다. 소녀는 잠자리에 들면서 이제부터는 약을 구하러 다녀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잠이 들었다.

그 날 저녁 밥을 많이 먹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배가 아프다고 야단이었다. 배가 아프고 목이 메인다고 했다. 소녀는 생각하기를 밥을 많이 먹고 체한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부엌에 가서 소금을 갖다 드렸다. 잠을 자는 등 마는 등 눈을 붙였을까? 거동도 못하는 아버지 몸을 일으켜서 요강 위에 올려 놓기도 힘들었다. 소금을 먹고 물을 마시고 한참동안 있다가 부모님이 나란히 누워서 잠이 들었다. 너무나 조용한 잠이었다. 그래서 딸은 아버지, 어머니 곁에 가서 귀를 기울여 보았다. 숨소리는 여전히 들리고 있었다. 방 한구석에서 졸고 있는 호롱불을 바라보다가 왈각 치미는 것을 느끼고 눈물을 글썽거렸다.

왜 우리집만 가난할까?

다시 부모님 얼굴을 바라보았다. 조용하고 깨끗하게 살라는 부모님의 평상시의 말씀이 생각났다. 소녀는 방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왔다. 맑은 공기가 코를 찔렀으며 하늘엔 별이 총총 박혀 있었다. 소녀는 신발을 질질 끌고 쓰러져가는 사립문을 열고 집을 나와서는 고목나무 아래로 왔다. 항시 보아도 푸른 고목나무는 달빛에 비쳐 더욱 아름답게만 보였다. 소녀는 고목나무 아래 조용히 무릎을 꿇고는 합장을 했다.

「신령님 신령님 그저 먹을 것이 없어도 좋습니다. 저의 아버지, 어머니 병환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어머니가 옛날처럼 들에 가서 일을 할 수만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어머니를 먼저 데려가시려면 차라리 저를 데려 가시고 어머니 아버지는 여든살 아니 백살까지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소원입니다. 산신령님 신령님…….」

소녀는 이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 하다가 그만 합장한 채 잠이 들어 버렸다. 고요한 기도를 올리는 소녀의 애처로운 모습 위에 달은 휘영청하게 비치고 있었다. 밤은 깊었다. 조용히 앉아 있는 소녀앞으로 나뭇가지가 똑 하고 부러지면서 소녀의 무릎을 때리고 내려졌다. 소녀는 조용히 눈을 떴다. 소녀가 눈을 뜨고 앞을 바라보았을 때 도승이 한 분 서있었다.

「이 바구니를 가지고 어서 집으로 돌아가요.」 하고 바구니를 주는 것이었다. 소녀는 바구

니를 들고 돌아오면서 생각했다.

「맞아! 우리에게 쌀을 주신 스님이다.」

소녀는 집에 돌아와 바구니 속을 들여다 보았다. 거기엔 큰 무우 만한 산삼이 들어 있었다. 소녀는 그 산삼으로 약을 해서 부모님에게 드리자 약을 먹고는 바로 완쾌하였다 한다.

동구 용계동 용지말에 가면 큰 고목나무가 있었다 한다. 나무는 산삼으로 변하는 나뭇가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착한 사람이 기도를 하면은 꼭꼭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땅에 떨어지면 산삼으로 변하여 어려운 사람을 살리곤 하였다는데 이는 냇가에 사는 용이 하늘의 옥황상제에게 땅의 사정을 알려서 산삼을 나누어 주게 하는 산삼나무가 이곳에 자라게 하였다고 전해 온다. 대청댐을 만들기 전에는 매년 마을의 다복을 비는 제사도 지내던 나무라 한다.

범 바 위 골 호 랑 이 이 야 기 용 계 동

옛날 지금의 동구 용계동 범바위골에 처녀가 한 사람 살고 있었다. 그 처녀는 어찌도 얼굴이 예쁘던지 처녀가 커갈수록 소문이 자자하게 퍼지기 시작했다. 하기가 산촌에 살고 있는 처녀였으므로 높은 관가에서 데려가기를 원하는 사또들도 있었고, 힘이 장사인 젊은이들은 그대로 업어다가 살아야겠다고 말하는 젊은이들도 많았다. 그래서 그녀는 마음 놓고 집을 나와 나다닐 수도 없었다. 그래서 항시 집에서 집안일만 보살폈다. 하루는 이 근처에 살고 있는 호랑이가 산 아래 마을에 밤에 나타났다가 머슴 방에서 새어나오는 말을 엿듣고 그게 사실인가 하고 그 예쁜 색시가 사는 집을 찾아갔다. 밤새 호랑이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색시가 나왔다, 호랑이는 눈에 불을 켜고 바라봤다. 정말 아름다웠다. 그래서 다

시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이번엔 변소에서 나오는 그 색시를 보고 아름다움에 놀래서 「어흥」하고 소리를 쳤다. 색시가 바삐 방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그 날부터 호랑이도 이 색시에게 반해버렸다. 그래서 깊은 밤중엔 색시집 앞산에 나타나선, 「흐... 으흥.....으흥.....으으...」하고 우는 것이었다.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나서 밤마다 우는 바람에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면 방안에서 꿈쩍을 못했다. 그날도 눈이 많이 날리는데 산에선 호랑이 울음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왔다. 호랑이는 자꾸 울었다. 울다 울다 지친 듯 어느 나무 아래서 잠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산신령이 나타났다.

「너는 왜 그 많은 산을 두고 하필이면 여기와서 매일 우느냐? 무슨 원한이라도 있느냐?」

「아닙니다. 신령님. 죄송한 말을 드려서 괜찮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저 아랫마을 색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헌데 색시는 내가 매일같이 울어도 한 번도 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참 천하에 미친놈이로구나. 네가 운다고 그 색시가 거들떠보거나 할 줄 아느냐?」

「그럼 어떻게 하면 되옵니까?」

「우선 네가 사람이 되어야 하느니라.」

「네? 사람요? 그게 될 법이나 한 일입니까?」

「될 수 있지. 오늘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봐라. 오늘부터 눈오는 날만 골라서 삼백 일만 기도를 하면 사람으로 변하여 처녀와 만날 수도 있고, 결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허나 주의할 것은 백일 동안 참지 못하면 소원을 성취하지 못하리라.」

신령과 호랑이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산신령이 사라지자 호랑이는 기쁜 듯 크게 한번 울더니 그 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눈내리는 날만 골라서 기도를 했다. 그런 어느 날이었다. 그날따라 눈보라가 세차게 몰아쳤다. 그러나 그는 꿈쩍하지 않고 기도만 드리고 있었다. 날씨도 추웠다. 그는 그래도 앉아서 꿈쩍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호랑이는 추위엔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그래서 몸을 움직여봤다.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꼭 아랫도리가 꽁꽁 얼어붙은 것 같았다. 그래서 엉덩이를 들어봤다. 엉덩이가 잘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참다가는 얼어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벌떡 일어났다. 몸을 일으키니 더욱 추웠다. 그래서 그는 몸을 일으키고 마음껏 뛰었다. 헌데 이상하게도 몇 발자국도 뛰지 않았는데 몸은 굳어갔고 호랑이는 달리고 있는 자세 그대로 바

위가 되고 말았다.

사람을 그리다가 사람이 죽는 수는 많지만 호랑이가 사람을 그리워하고 사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일까? 범바위골은 그 후 범이 죽어서 바위가 됐고 그 바위가 마을에 있다 해서 범바위골이라 하지만 지금 그 범바위를 보면 비록 동물이라도 애처롭기 한이 없다. 무엇을 아쉬워하는 모습 그대로 달리다가 그만 바위가 되어버린 범의 짝사랑. 이 이야기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 의해 구전으로 전해진 이야기지만 인간을 그리워하는 동물의 서사시 인지도 모른다.

배 말 의 작 은 샘

주 촌 동

며칠 전부터 고해산 산기슭에서 불경소리가 들려왔다. 그렇잖아도 옆에서 바스락 소리만 나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최노인은 잠자리에 들었다가 훌쩍 몸을 일으키고 방문을 열고 나와서는, 「저놈의 중놈들 때문에 큰일났고나.」하고는 신발을 질질 끌고 샘가로 가서 두레박으로 물을 퍼서는 물을 마시고 입맛을 쫓쫓 다신다. 「참, 그놈의 물맛 희한하단 말이야!」

최노인은 경상도 서라벌 동쪽에서 살다가 작년 가을에 여기로 이사해 왔었다. 아들 딸 오형제를 며칠 사이에 그 무서운 전염병으로 모두 무덤에 묻고는 허탈해져서 산천을 헤매다가 이곳에 정착했었다. 최노인은 무엇보다 물을 좋아했다. 한겨울에도 시원한 물로 목욕을 하였고, 물맛에 황토냄새가 나는 고향에서도 향시 물맛 때문에 짜증을 부리고는 그는 꼭꼭 이십 리 길이나 되는 무내미고개에서 물을 길어다가 살았었다.

「허참! 무내미고개 물맛은 아무 것도 아니고만.」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다시 방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는 산에서 불경소리가 사라져야 잠자리에 들겠다고 생각하고는 목침을

멀찌감치 밀어놓고 어젯밤 추겨놓은 짚단을 가까이 끌어당기고는 짚신을 삼기 시작했다. 그는 솜씨가 좋아서 짚신을 잘 만들었다. 자식들을 모두 잃고 아내와 두 식구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것도 그의 솜씨인 짚신 만들기에 뛰어난 재주가 있기 때문이었다. 마님이 좋아하는 짚신을 만들 때는 앞부분에 문종이에 빨간 물을 들여서 그 문종이를 지푸라기에 칭칭 감으면서 꽃무늬를 만들었고, 선비가 좋아하는 짚신을 만들 때는 하얀 문종이를 작은 새끼줄에 감아서 우아한 멋을 풍기게 했다. 최노인이 짚신 한 짝을 만들고 골을 치기 시작했다.

「탁 탁 탁」 방안 구들장이 울릴 정도로 짚신 모양을 골에 쳐서 바로잡을 때 불경소리는 그쳤다. 그는 비스듬히 누워서 그대로 잠을 청한다. 바깥 어둠엔 새벽 노을이 밀려오고 있었다. 그가 잠이 들었다가 꿈을 꾸게 되었다. 꿈에 한 도승이 나타나서는, 「마을에 샘이 두 개가 생기면 자주 불이 날 것이고 네개가 생기면 마을에 사람의 그림자가 없어질 것이고…」 최 노인은 억지로 꿈에서 깨어났다. 「희한한 꿈이 다 있고만!」 그는 돌아누우면서 혼자 또 중얼거렸다.

그 날따라 그는 늦게 일어났다. 바깥에서 나무를 찍는 소리가 들려오고 사람들 소리가 들려왔다. 어디서 흘러왔는지 하룻밤 사이에 마을에 초막이 다섯 개나 쳐 있었다. 밤늦게 도착한 듯 아침부터 나무를 찍어서 초막을 만들고 있었다. 그들은 집집마다 우물을 파고 있었다. 조금만 땅을 파도 물이 팔팔 나왔다. 우물을 파자 최노인네집 나뭇간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났다. 그는 뛰어가서 불을 껐다. 마을에 어느새 우물이 세 개가 생겼다. 초막을 짓다가 새로 이사온 사람의 도끼자루가 빠져서 곁에 있던 아들이 즉사를 했다. 이상한 일이었다. 불이 나고 사람이 죽고 집 근처가 어수선했다. 그가 불을 끈 잣더미를 쓸어내고 있을 때 꿈에 나타났던 중과 똑같은 중이 집근처로 내려와서 시주를 원하는 듯 불경을 외우기 시작했다. 어젯밤 잠을 설친 생각을 하고는 이맛살을 찌푸렸지만 하는 수 없이 보리쌀 한 바가지를 퍼들고 중 가까이 갔다. 바랑에 넣는 보리쌀 소리가 그치자 중은 돌아서면서, 「짚신은 떨어질 때 짚신 옷머리부터 끊어지지만 마을이 망할 때는 짚신 밑창에 구멍이 뚫리듯 망하는 법인데…」 하고 걸어가려 했다. 최노인은 그 중의 말에 더욱 의심이 가서, 「짚신은 밑창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신을 버틸 수는 없지 않소.」하고 말을 건넸다. 「물위에 떠있는 짚신은 그러나 물이 배야 가라앉는 법이요. 땅속이 모두 물이외다. 언젠가는 바다가 될 것이고 바다는 물이 고여야 바다가 되는 것이지 밑창을 자꾸 뚫으면 화만 일으키는 법이요.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의 사이라고나 말할까?」 중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사

라졌다. 최노인은 뒤를 따라갔다. 중이 언덕에 올라섰을 때, 「여보시요. 중앙반, 내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사람이 집을 짓고 사는데 바다가 되다니 그리고 뭐요, 밀창을 뚫다니 누가 당신 짚신 밀창을 뚫었소?」 하고 역정을 냈다. 중은 최 노인을 바라보고는 빙그레 웃었다. 「그렇다는 말이지요. 불경에는 여러 가지로 재난을 막는 이야기도 많이 있지요. 여기는 배가 동실동실 떠 있는 형이외다. 언젠가는 배가 뜨기도 할 것이고...」 중은 바빠 사라졌다. 최 노인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새벽꿈에 대한 해석이었다.

「마을에 샘이 두 개가 생기면 자주 불이 날 것이고, 샘이 세 개가 생기면 사람이 자주 죽어 나갈 것이고 네 개가 생기면 마을에 사람의 그림자가 없어질 것이고...」

최 노인 얼굴에 먹구름이 서리기 시작했다. 그는 바빠 마을로 뛰어와서는 새로 이사온 사람들에게 샘을 메우라고 말하고는, 「이 마을엔 샘이 두 개가 생겨도 망해요.」하고 소리쳤다. 그리고는 자기집 샘 담을 헐고는 그 우물을 담바깥에 더욱 큰 샘으로 만들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쓰는 공동샘을 만들자 마을은 더욱 부유해졌다 한다. 도승이 말한대로 500여 년이 흐르자 마을은 물에 묻히는 대청댐이 생기면서부터 물에 묻혀 버렸다. 마을 위로 배가 다닐거라 해서 배말 주촌이라고 부르던 이 마을이 옛날 도승이 말한대로 물 속에 가라앉았다 한다.

대청댐이 생기기 전 동구 주촌동 배말 마을엔 우물이 항시 하나밖에 없었다 한다. 우물이 두 개만 생겨도 마을에 화근이 겹쳐서 항시 우물 하나로 그 많은 마을 사람들이 견디었으므로 부촌을 이루었었다 한다.

어 부 동 의 성 가 족 주 촌 동

대청댐이 조성되면서부터 지형이 많이 변했지만 몇 년 전만 하여도 주촌동에 들르면 금강

을 사이에 두고 충청도와 충북도가 접경을 이루는 지대에 나루터가 있었는데 여기가 바로 어부동이란 마을이다. 옛날부터 세상을 소요하며 살겠다는 묵객들이 자주 찾았으며 선비들이 초야에 묻히기 위해 선택하는 곳으로 전해진 이 마을에 다음과 같은 전설이 내려온다.

지금 어부동 부근에 김진사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는 높은 벼슬살이를 오랫동안 하여서인지 어느 한 해에는 벼슬살이에 싫증을 느끼고 이곳에 정착하여 많은 재산을 모았으며 또한 낚시질을 하는 것을 취미로 살았다.

어느날 그 날도 평상시대로 집안을 돌본 다음 낚싯대를 들고 강변 절벽에 올라 낚시를 하게 되었다. 그 날 따라 비가 개인 뒤라 그런지 급류가 흐르고 있어서 그는 바위틈에 낚시를 넣고 명시를 속으로 외우고 있는데 갑자기 낚싯대가 흔들려서 급히 낚싯대를 잡아 올렸더니 낚싯대가 올라가지 않았다. 묵직한 고기가 걸린 것이다. 그래서 강물 속으로 잉어가 낚싯대를 붙잡고 이리저리 흔들다가 강물을 바라보니 큰 강아지만한 잉어가 낚시에 걸려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는 오늘은 재수가 좋은 날아 생각하고 땀을 흘리며 한참동안 잉어와 실랑이를 하다가 잉어가 힘을 내어 힘껏 급류 속으로 힘을 주어 그는 바위 위에서 비틀비틀하다가 급류속으로 빠지고 말았다. 급류에 휩싸인 그는 한참동안을 급류와 싸우며 떠내려가면서도

「참 아깝다. 고놈의 잉어놈.」

하고 잉어를 잡아채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면서 떠내려가다가 금강유역 마암에 이르러서는 기진맥진하여 익사 직전이 되었는데 다행히도 그의 유일한 친구로서 마암에 살고 있는 이진사에게 구출되었다. 이진사는 원래가 간간한 선비로서 애당초부터 벼슬살이 같은 것은 버리고 초야에 묻혀 사는 선비로서 가난한 진사였다. 마침 마암 모래사장에서 낚시질을 하다가 떠내려오는 사람을 구해주고 그 구한 사람이 김진사임을 알게 되자 그는 곧바로 집으로 업고가서 최선을 다하여 응급치료를 하자 살아났을 때 이진사의 눈에는 기꺼운 눈물이 핑 돌았다. 정신을 차리고 거동이 가능할 때 김진사는 이진사와 마주앉게 되었다.

「내 목숨을 구해줬으니 그대가 생명의 은인이 아니겠나. 이보게, 내가 자네에게 어떻게 보답을 하면 되겠나? 내 재산을 반만 주면 되겠나?」

「이 사람아! 친구지간에 무슨말인가? 그런 소리 말게. 친구지간에 무슨 보답이란 말인가! 그런 자네 생각이 잘못됐네.」

「아니야, 난 그냥 집에 돌아갈 수가 없네.」 김진사가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리고 다시

말문을 열었다.

「사람이란 죽으면 모든게 끝나는 걸세. 내가 죽었으면 재산인들 무엇하겠나. 그러니 내 목숨 구해준 사람에게 반을 준다는데… 아, 참. 자네 내 보답이 적어서 그런 모양인데 이보게, 어쩐가! 자네 재산하고 내 재산하고 아주 맞바꾸는 것이.» 김진사의 이 말이 떨어지자 이진사는 얼굴에 혈색이 시작했다.

「이보게, 친구 재산을 탐내다 보니까 우리나라 조정이 저 모양일세. 자네도 벼슬살이를 해봤지만 사람이란 물욕이 있으면 제대로 사는 인생이 아닌걸세. 나도 일을 먹고 사네. 이만하면 됐지. 뭐가 필요하겠는가? 단 자네도 고집통이니까 말일세만, 우리 이렇게 하세.»

「어떻게?」

「앞으로 내가 보기엔 내 자식을 구해 줄 때가 있을 것 같네. 그 때 자네가 알아서 해주게.» 이진사의 이 말엔 김진사는 다시 말문을 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진사댁을 나와 참으로 쉽게 아쉽게 집으로 돌아왔다.

이진사는 김진사가 헤어진 지 반년이 못 되서 이진사는 병에 걸려 눕다가 돈이 없어서 약 한첩을 쓰지도 못하고 죽었다. 그는 죽을 때 아들에게, 「내가 빚진 것을 가기는 너도 참 힘들 것이다. 내 장례도 간단히 해치우고 내 상자 맨 아래쪽을 보면 편지가 한통 있을 것이다. 그걸 어부동에 사는 김진사에게 갖다 주거라.» 하고 눈을 감았다.

이진사가 죽자 아들은 아버지의 장례치를 문제가 큰 걱정이었다. 그래도 진사인 아버지 시체를 가마니에 푹푹 말아 치울 수도 없었다. 아들은 한참 생각하다가 아버지 상자 맨 아래쪽에 있는 편지를 꺼내들고 그날 밤 김진사를 찾아갔다. 김진사는 그를 보자 반가와 하더니 이진사 죽었다는 말을 듣고서 덩석 주저앉으며,

「선인이로다. 이진사는 선인이로다. 나는 속인이고…. 나 같은 사람은 일찍 죽고 이진사 같은 사람이 장수하여야 하거늘 세상이 무심하구나.» 하고 큰 금덩이를 가지고 나와 이것을 가지고 가서 팔아다가 장사를 치르라고 했다. 이진사 아들은 그 큰 금덩이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서 가지고 가서 장례를 잘 치르도록 해라.» 하고 김진사는 말했다. 그는 금덩어리를 든 채 김진사 집을 나왔다. 그는 바빠 걸어서 신탄진 근처까지 왔을 때 소나기가 오기 시작했다. 그는 소나기가 퍼붓는 속을 바빠 걸어서 뱃터까지 왔는데 물이 급류여서 배가 건너 갈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금덩이를 일부 팔아서 주막에서 자야겠다고 장터

로 가려다가 금덩이를 찾으니 금덩이가 감쪽같이 없어졌다. 그는 아차하고 나루터로 왔다 갔다하는데 한 노승이 뱃속을 걸어 오면서, 「젊은이 무엇을 찾으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금덩이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노승은 바랑에서 금덩이를 내주면서, 「젊은 사람이 수양이 부족하오. 큰일은 신중해야지.」 하고 앞질러 갔다. 그는 금덩이를 다시 들고 나루터로 갔다. 어느덧 어둠이 밀려오고 있었다. 그가 나루터에 와서 서성거릴 때 강물 속에서, 「사람 살려요.」 하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을 살려달라고 강물에 떠오르는 사람은 소리를 지르고 있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도 사람을 구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금덩이를 번쩍 들고선, 「저 떠내려가는 사람을 살려주면 이 금덩이를 주겠다.」 하고 소리쳤다. 그가 금덩이를 높이 쳐들자 한 젊은이가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사람을 구해 가지고 강에서 올라왔다. 강물에 떠내려오던 사람을 구해준 사람에게 그는 약속대로 금덩이를 주었다. 「이렇게 큰 돈이 생겼는데 그냥 있을 수 있소. 형네 집이나 한 번 가봅시다.」 하고 그의 집으로 가기를 원하므로 이진사 아들은, 「그럼 우리 둘이서 이 급류를 헤쳐 봅시다.」 하곤 소나기가 퍼붓는 금강에 배를 띄우고 둘이서 강을 건너 이진사 집으로 가서 장례를 치를 때까지 둘이서 일을 했다. 장례를 치른 다음 사람을 구해준 젊은이는 사랑채에서 나와 이진사의 아들 손목을 덥석 잡았다. 그리고는, 「제가 어부동 김진사의 아들이외다. 노형의 아버지 이진사님이 돌아가셨다해서 문상을 가려고 노형의 뒤를 따라 왔었지요. 우리 형제처럼 지냅시다.」 했다. 이진사의 아들은 처음은 너무나 놀랐지만 고마웠다.

「노형 우리는 형제지간이요. 제가 조금 나이가 어린것 같소이다. 그래서 형님으로 모시겠소. 그리고 노형의 아버지가 편지에 이르기를 이진사님이 죽거든 자식을 돌봐주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생명의 은인인 이진사의 뜻을 따라 노형을 돕기로 했소. 다름이 아니오라 아버지 재산을 반분해서…」 그때 이진사 아들은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다. 김진사 아들은 그곳에 앉으며, 「그럼 노형은 아버님 의사를 배반하는 불효자가 되겠습니까?」 하고 소리를 높였다. 그래서 이진사 아들은 할 수 없이 김진사 아들의 뜻을 따라 김진사 아들과 의형제를 맺고 형이 되었으며 김진사의 재산은 둘이서 똑같이 분배하여 여생을 잘 살았다 한다.

그 후 어부동의 사람들은 초야에 묻혔거나 당파와 파벌을 초월해서 모두 의종게 살았는데 모두가 그들의 후예들이며 그들의 후예가 아닌 사람들도 그 영향 아래서 의종게 살았다 한다.

대청호가 품은 비지정 문화재

고봉 산신당 山神堂

소재지 : 대전광역시 동구 주산동 211 상촌
시 대 : 미상
종 류 : 산신당(자연제당)

수몰지역 주민들이 이주하여 거주하는 현재의 상촌 마을에서는 음력 동짓달에 좋은 날을 택하여 마을 뒷산인 고봉산에서 산신제를 지낸다.

원 주산에서 산제를 지내던 풍습을 이어 산신제를 지내기로 하였다. 상촌마을을 비롯하여 고용골, 금성마을이 함께 산제에 참여한다. 산제당은 자연제당으로 터를 평평하게 다지고 그 위에 대리석으로 제상을 마련해 두고 상의 전면에는 ‘고봉산 산신당’ 이라고 음각해 두었다.

제관은 음력 10월 27일에 개최되는 동계에서 생기복덕을 보아 선출하며, 이때 산제 날 짜도 택일한다. 만약 제사를 앞두고 부정한 일이 발생하였다면 제사를 미루어 다시 택일한다. 제비는 동네 기금의 일부를 꺾는데, 벼로 25말을 유사에게 주어 준비케 한다.

제기는 따로 마련되어 있어 제사를 모신 후에 그 해의 유사가 보관한다. 밥 짓는 냄비와 수저는 해마다 구입한다. 사용한 것은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제물은 메 · 3가지 나물 ·

삼색실과 · 통명태 2마리 · 흰무리떡 · 쇠고기 한 덩이 · 삼탕(계탕 · 육탕 · 어탕) · 소죽 · 청수 · 정종 등을 마련한다. 메는 예전에는 산제당에서 직접 지어 올렸으나 이주해 오면서는 유사집에서 마련해간다. 쇠고기는 날 것으로 올리는데, 구입할 때에 눈대중으로 두 근 정도를 단칼에 베어낸 것만을 사용한다.

당일 밤 12시경이 되면 유사와 축관 만이 산제당으로 향한다. 제당에 도착하면 먼저 제단 위에 제물을 올리는데, 이때에 메가 담긴 술의 뚜껑도 비로소 연다. 그런 후 유교식으로 제사를 지낸다. 헌작 후 고축을 하고 다시 아헌과 종헌을 올린다. 그런 후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동네소지, 유사소지, 이장소지를 올린 후에 호당 한 장씩 소지를 올려준다. 빠뜨리면 안 되므로 미리 종이에 소지 올릴 명단을 적어간다.

제사를 마친 후에는 제물을 산제당 사방에 조금씩 놓아두고 하산한다.

이튿날 유사집이나 마을회관에 모여 음복을 한다.

교촌 용왕제당 校村 龍王祭堂 / 용왕제 龍王祭

소재지 : 대전광역시 동구 추동 327 교촌
 분류 : 민간신앙
 시대 : 미상
 종류 : 하당터
 수량 : 1개소

동구 판암동의 동신고등학교 인근 비룡네거리에서 좌측의 대청호수길을 따라 1.8km 정도를 가면, 동명초등학교 앞 세거리가 나온다. 이 세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면 동명초등학교 정문이 나온다. 우회전하여 학교 안으로 들어가면 이 학교운동장이 추동 교촌 용왕제당 용왕제를 지내는 곳이다. 이 용왕제는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용계리에서 지내오던 것인데, 이 지역이 대청호에 수몰되면서 사라질 위기에 놓이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이 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제의 행사지를 이곳으로 옮겨 지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옛 풍속의 재현이 가능했던 것은 대청동 지역 17개 마을의 많은 주민들이 한결같이 아름다운 우리 것, 순수함이 살아 움직이는 우리 전통을 지켜가고자 하는 숭고한 뜻을 결연히 모아 일으켜 세웠기 때문이다. 이곳 동명초등학교에서의 용왕제는 1999년 음력 정월부

터 시작되어, 매년 그 해 정월 중의 길일을 택하여 제를 지낸다. 수물지구 주민들이 ‘대청동 자치회’를 조직하여 주관하고 있다. 제비는 동구청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한결 수월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한다. 제물은 돼지머리, 삼색실과, 떡, 포, 술 등을 마련한다. 제관은 특별하게 뽑지 않고, 당일 참여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지정하여 진행하게 한다. 제사는 유교식으로 올리는데, 분향, 강신, 헌작, 재배, 소지 순으로 진행한다. 이후에 참석한 사람들이 나서서 헌작 후에 재배를 한다. 이때 성의껏 성금을 제단에 올리고 각자의 소원을 담은 개인소지도 올린다. 제사가 모두 끝나면 참여 주민 모두가 어우러져 풍물놀이와 율놀이로 잔치를 벌여, 제의 의미를 서로 나누고 소통하며 기쁨을 만끽한다. 이런 후에 대청호에 치어를 방류하여, 용왕님의 보살피이 이 지역 모두에 두루 임하여, 한 해가 평안하기를 한 마음으로 기원한다.

국사봉 산신당 國師峰 山神堂

소재지 : 대전광역시 동구 오동 산1
시 대 : 미상
종 류 : 산신당(자연제당)

오동은 광산 김씨들이 15대째 거주하는 동족마을이다.

현재는 대청댐으로 수몰되어 10여 호 만이 거주한다. 수몰되기 이전까지는 마을 앞의 국사봉에서 산신제를 지냈다. 제사를 주관할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제사를 중단하였다. 제사는 광산 김씨만이 주관한다. 국사봉 꼭대기에 ‘절재’라 부르는 곳에 큰 참나무가 두 그루 있었는데, 그중 한 그루를 산제나무로 선정해 두고 제사를 지냈다. 제사를 앞두고 일주일 이전에 동네 어른들이 모여서 생기복덕을 보아 운이 닳고 깨끗한 사람 중 한 사람을 지목하여 제사를 주관케 한다.

수몰 이전까지는 산제답이 있어 그것의 소출로 제비를 충당했다. 제물은 소머리(생물), 흰무리(7되), 삼색실과 명태포, 제주 등을 사용한다. 제사는 음력 정월 열 나흘날 저녁에 지냈다. 당일 저녁 8시경이 되면 제물을 가지고 제관과 축관만이 산제당으로 향한다. 제사는 9시경부터 유교식으로 거행하는데, 제물을 진설한 후 마을을 향해 서서 햇불을 흔든다.

이 불빛을 보고 거리제를 지내러 간다.

현작-재배-고축-소지올리(호주소지)를 행한다. 제사가 끝나면 다시 햇불을 박혀서 흔들어 제사가 끝났음을 알린다. 그런 후 소머리의 귀를 조금 떼어놓고 제물을 거두어서 하산한다.

내탑동 창구당지

소재지 : 대전 동구 내탑동 158

시 대 : 조선

종 류 : 당

이 당은 병자호란때 창구당 김성발(1569~1649)이 금강 하류 초호변의 청구에 세운 것이나 언제인가 허물어졌다. 청구는 강 가장자리에 산처럼 우뚝 솟아있는 석군 정상부분에 이루어진 임야지대이다. 이 당이 자리잡고 있는 청구는 그의 증조부인 중암 김정의 음거지이기도 했는데, 후세 사람들이 그의 곧은 의리를 추모하고자 이곳을 순례했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시문에 담아 놓기도 하였다. 현재 이 곳은 대청댐 건설로 수몰되어 버렸다.

모래재 산신당 산신제 山神堂 山神祭

소재지 : 대전광역시 동구 사성동 산16-1 사성동(모래재)

시 대 : 미상

종 류 : 산산당(당집제당)

동구 세천동의 세천초등학교에서 옥천쪽으로 800m 정도를 가면, 좌측으로 신하동으로 가는 회남길이 나온다. 좌회전하여 이 회남길을 따라 900m 정도를 가면, 좌측으로 신하동의 김정선생묘소일원(金淨先生墓所一圓:문화재자료 25호)이 나온다. 여기에서 계속 직진하여 4.2km 정도를 가면, 우측으로 모래재마을이 나온다. 이곳에서 200m 정도 떨어진 마을 뒷산 피꼬리봉 중턱에 사성동 모래재 산신당이 자리해 있다. 이곳 산신당은 흙과 돌을 섞어 쌓은 돌

담집으로, 맞배지붕에 슬레이트(slate)를 얹었다. 높이 160cm, 가로 270cm, 세로 260cm이다. 뒤쪽으로 통돼지를 올리는 제단이 있다. 제일은 음력 정월 초나흘날이다. 제일 보름 전에 마을어른들이 생기복덕한 사람으로 고양주, 제관, 축관을 뽑는다. 이들은 고양주 집에서 사흘간 함께 생활하며 근신한다. 1990년경부터는 제관을 하겠다고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어 그냥 돌아가면서 한다. 제물은 돼지머리, 백설기, 삼색실과, 통명태, 밥, 미역국, 감주 등을 마련한다. 예전에는 통돼지를 올렸으나, 수몰 이후부터는 돼지머리만을 올린다. 제기는 산신당에 보관해 둔 것을 쓴다. 제비는 예전에는 동답의 소출로 충당했으나, 수몰 이후에는 마을기금에서 충당한다. 당일 낮에 제관은 산신당을 깨끗이 청소한 후 촛불을 밝혀둔다. 밤 10시경 제관 일행이 산신당으로 향한다. 밤 12시에서 1시경 사이에 제사를 시작한다. 제사는 유교식에 따라 분향, 강신, 헌작, 독축, 소지올리기로 진행한다. 소지는 산신소지, 마을소지, 개별 성씨소지, 가축소지를 올린다. 제사를 마친 후에는 제물을 조금씩 떼어 제단에 올려 놓고 하산한다. 예전에는 첫닭이 울어야 하산하였으나, 수몰 이후부터는 바로 하산하여 고양주 집에서 음복하여 결산한다.

보현정사 普賢精舍

소재지 : 대전광역시 동구 비룡동 165
시 대 : 미상
종 류 : 사찰

이 사찰은 대전-옥천간 국도에서 대청댐으로 가는 629번 지방 도로를 따라 600m 정도 진입하면 좌측으로 줄곧 마을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 마을 뒤쪽의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갈고개에 위치하고 있다. 본래 이 사찰은 비룡동 새동네 마을의 북동쪽에 위치한 느래골의 끝부분인 구릉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대전남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회덕-신상간) 확장 공사로 인하여 현재의 줄곧 마을로 이전하였다.

상곡사 象谷祠

소재지 : 대전광역시 동구 비룡동 231-4
시 대 : 현대 (1955년)
종 류 : 사당

동구 비룡동의 동신고등학교에서 옥천쪽으로 100m 정도를 가면, 비룡동으로 빠지는 대청 호수길이 나온다, 좌측의 이 길로 들어서서 1km 정도를 가면 첫 번째 경부고속국도 밑굴이 나오고, 200m 정도를 더 가면 두 번째 경부고속국도 밑굴이 나온다. 이 두 번째 밑굴을 지나 700m 정도를 언덕 위에서 아래의 구부러지는 길을 타고 내려가면, 좌측으로 상촌마을 입구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100m 정도 안으로 들어가면 상곡사가 나온다. 상곡사 象谷祠는 추파秋波 송기수宋麒壽 선생의 도덕과 학문을 기리기 위해 동구 비룡동 고용골에 건립한 사당이다. 고종신미년에 훼손되었던 것을, 1955년 지역의 유림들이 다시 건립하였다.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평면의 전면 칸을 폭이 좁은 퇴칸으로 꾸며 앞이 탁 트이게 하고 양측 벽은 막아 두었다. 지붕은 맞배지붕이며, 처마와 서까래는 이중으로 달았다. 기단은 장대석을 계단 곁 4벌대 석단으로 하였으며, 초석은 복발모양으로 깎아 만들었다. 송기수宋麒壽:1507-1581는 조선 전기의 문신 학자로, 자는 대수垔叟, 호는 추파거사秋波居士 또는 눌옹訥翁이라 하며, 본관은 은진恩津이다. 부친은 가평군수를 지낸 송세충宋世忠이며, 모친은 전주 이씨로 주계군朱溪君 이심원李深源의 딸이다. 태어나고 죽은 곳은 서울의 반송방盤松坊 유점동鎭店洞의 경제京第이지만, 묘는 회덕 직장산과 이웃해 있는 고봉산 근처(지금의 동구 주산동)에 있다. 10세 때 모친에게 처음으로 글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하며, 25세 때인 1531년 사마시司馬試에 뽑혔고, 1534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후 여러 직제를 거쳐, 38세 때인 1544년(중종35)에 당상관으로 승진하여 동부승지同副承旨가 되었다가, 그 다음 해에 도승지가 되었다. 1559년(명종14)에는 대사간을 거쳐, 57세 되던 1563년(명종18)에 예조판서에 오른 후 형조, 예조, 이조, 병조, 공조, 호조 등 육조판서를 두루 역임하였다. 관직에 있을 때 윤원형尹元衡 일파와 대립하여 그의 중형 송인수가 불행한 죽음을 당할 때 매우 난처한 입장에 빠지기도 하였다. 송기수는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사군자론四君子論을 펼쳐, 사림士林은 모름지기 사군자이어야 하는데 “천지 사이에 몸을 일으켜 천만 사람이 덤벼도 빼앗지 못할 당당한 기상을 스스로 간직하고, 세상의 궁통득실窮通得失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진심으로 백성의 뜻을 헤아리며, 임금의 뜻을 높이 받들고, 벼슬에서 물러나서도 스

스로의 수양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며, 자연과 벗 삼아 소요자적逍遙自適하면서 자신의 분수를 지키는 사람”이 사군자라 여겼다. 송기수는 시문집 8권을 남겼다. 시時 1권, 교서敎書·소疎·차筭 1권, 계啓 3권, 서書 2권, 잡저雜著·묘문墓文 1권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상과 같이 남겨진 시문집은 당대의 정치, 사상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16세기말 영남과 호서의 학문과 정치의 교류관계를 살피는데 매우 유익한 자료로 쓰여지고 있다.

세천동 잔개울 기우제당-기우제祈雨祭堂-祈雨祭

소재지 : 동구 세천동 산57-4
분 류 : 민간신앙
시 대 : 미상
수 량 : 1개소

동구 비룡동의 동신고등학교에서 옥천쪽으로 800m 정도를 가면, 우측의 세천동 마을이 나오는데, 이 마을 입구의 잔개울 냇가에 세천동 잔개울 기우제당이 있다. 비가 오지 않아 농사가 어려워질 때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곳 잔개울 냇가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마을 남자들이 나서서 비용을 추렴하여 마련하면, 마을 사람들이 장에 나가 삼색실과, 시루떡, 포, 밥 한그릇, 여러 나물, 술 등을 마련한다. 미리 정해진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잔개울 냇가로 나가 제물을 차리고 제를 지낸다. 남자들이 제를 올리는 동안, 마을 아주머니들은 냇가로 내려가서 치로 냇가 물을 퍼서 까불렀다. 이러다보면 어느새 비가 시작되는 때가 있었다 한다. 그런데 여기의 냇가가 근래들면서 자꾸 좁아져 예전의 물줄기를 가늠해 보기조차 어렵게 가늘어졌다고 한다.

송명의 유허비각宋明誼 遺墟碑閣

소재지 : 대전광역시 동구 마산동 산 18-2
시 대 : 조선 현종1년(1835) 고종13(1876)중건~ 1978 현대 이전
종 류 : 기타비

송명의 유허비각은 마산동 은골 관동묘려에서 오른쪽으로 5m 정도 떨어져 있다. 송명은 회덕에 살기 시작한 은진 송씨 최초의 인물로 은진송씨의 시조인 관원사 송대원의 증손이다. 공민왕 11년(1362)에 과거에 급제하여 경상도 안렴사를 거쳐 사헌부집단을 지냈다. 개성에 살았는데, 고려가 망하자 처가가 있는 회덕을 내려와 은거하였다. 유허비는 현종 원년(1835)에 그의 14대손이 세웠으며, 고종 13년(1876)에 비의 규모를 크게 하여 다시 세웠다. 원래 이비는 동구 신촌동에 있었으나 대청댐 건설로 1978년 이전하였다. 비의 전면에는 고려집단 송공유허비高麗執端 宋公遺墟碑라고 되어 있다. 비문은 송기정이 짓고 송정희가 추가하였으며, 송면노가 썼다. 크기는 높이 132cm 폭 46cm 두께 24cm이다.

신말피봉 산신당山神祭

소재지 : 대전 동구 추동 산7-1 중추
시 대 : 미상
종 류 : 산신당(산신제)

해마다 음력 10월에 길일을 택해 마을의 태평성대와 주민들의 운수 대통을 위해 산제를 지냈으나 1998년에 젊은이들이 반대해 중단되었다. 당집은 높이 210cm, 지붕높이 45cm이며, 전면 폭이 220cm, 측면 폭 165cm인 단칸집이다. 토담에 맞배형의 슬레이트 지붕을 얹었다. 제사를 앞두고 보름 전에 제를 주관하는 제관을 선출한다. 제기는 별도로 마련하여 산제당 안에 보관해 두었다. 제비는 동네 기금의 일부를 꺾어 충당하는데, 보통 쌀 서말 값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신하동 요골妙洞 작은태봉 달집태우기

소재지 : 동구 신하동 산27-13
분 류 : 민간신앙
시 대 : 미상
수 량 : 1개소

동구 세천동의 세천초등학교에서 옥천쪽으로 800m 정도를 가면, 좌측으로 신하동으로 가는 회남길이 나온다. 좌회전하여 이 회남길을 따라 900m 정도를 가면, 좌측으로 신하동의 김정선생묘소일원(金淨先生墓所一圓:문화재자료 25호)이 나온다. 여기에서 계속 직진하여 100m 정도를 가다 우측의 산길을 타고 150m 정도를 가면, 높이 190m의 작은 태봉 산봉우리에 요골(묘동) 작은태봉이 자리해 있다. 음력 정월 열 나흘날이면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비는 마음에서 작은 태봉에 달불을 놓았다. 열 나흘날 낮에 젊은이들이 산에 올라가 소나무와 생나무를 높게 쌓아놓고 내려온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달이 뜰 무렵이면 마을 사람들이 작은 태봉으로 올라간다. 미리 쌓아 놓은 나무더미에 불을 붙이고 모두가 즐거운 마음을 담소하며 정을 나누고 소원을 빌었다. 이외에도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때로 태봉에 올라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1970년 중반까지 해마다 계속되었으나, 마을에 젊은이들이 날로 줄어 들면서, 달불을 놓을 젊은이들이 없어 요즘에는 중단되었다.

신하동 선 · 역사유물 산포지先 · 歷史遺物 散布地

소재지 : 동구 신하동 산49
분 류 : 산포지
시 대 : 구석기-청동기-조선
수 량 : 1개소

동구 세천동의 세천초등학교에서 옥천쪽으로 800m 정도를 가면, 좌측으로 신하동으로 가는 회남길이 나온다. 좌회전하여 이 회남길을 따라 300m 정도를 가면, 첫 번째 경부고속국도 밀길이 나오고, 조금 더 가면 두 번째 경부고속국도 밀길이 나온다. 이 밀길을 지나 200m 정도를 가면 좌측으로 웃말마을 입구 길이 나온다. 이 입구 길로 들어서서 600m 정도를 가면 웃말 마을을 지나 봉마루들이 대청호변에 신하동 선사, 역사유물 산포지가 있다. 이곳은 봉마루들에서 북쪽으로 300m에서 서쪽으로 50m 정도의 넓은 지역에 길쭉하게 자리해 있다. 이곳에서 구석기 시대의 무문토기, 청동기 시대의 돌널무덤 1기 등과 조선시대의 백자조각, 기와조각 등이 발견되었다. 이곳이 예전에 세천동 1지점으로 보고된 바 있다.

안평이씨 정려安平李氏旌閭

소재지 : 대전광역시 동구 비룡동 288-11
시 대 : 조선 숙종39년 (1713)
종 류 : 정려

안평이씨 정려는 비룡동 비름들 마을 입구에 있다. 안평이씨는 송지덕의 아내로 강도로 부터 남편을 구하기 위해 칼을 손으로 잡아 손가락이 잘려나가도록 놓지 않았다고 한다. 강도가 달아나 남편은 무사하였으나 그녀는 손가락이 잘린 채로 일생을 마쳤다. 1713년 열부의 정려旌閭가 내려졌고 처음에는 회덕군 동면 고요동에 있었던 것을 부인의 무덤 앞인 이곳에 옮겨 세웠다. 직각 이의국이 지은 정려문이 있으며, 정려는 팔작지붕의 3평 건물이다.

오리골 장승제將軍石

소재지 :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397 오리골
시 대 : 미상
종 류 : 장승

대청댐 담수가 시작되면서 수몰지역에 거주하던 안말 사람들이 자신들이 위하던 것을 자신들이 거주할 현재의 오리골 입구에 옮겨 놓았다. 과거에는 동답이 있어 그것의 소출로 제사를 지냈으나 동답이 수몰되어 제사를 중단하였다. 수몰 이전에는 안말 입구의 주막거리에 장승이 모여져 있었는데, 현재는 오리골 마을과 100m 정도 떨어진 길가에 서 있다. '장군석'이라 불리는 장승은 높이 139cm, 몸통둘레 165cm, 얼굴 길이 29cm, 관모길이 25cm, 얼굴둘레 123cm로 자그마하다. 음력 동짓달에 대동계를 개최하는데, 이때 제사를 맡을 제관을 1명 선출한다. 특별히 가리지는 않지만 깨끗한 사람으로 정한다. 제비는 5마지기의 동답이 마련되어 있어 이것의 소출로 충당했다. 한동안 조금씩 거두어 제사를 지냈지만 점차 관심이 없어지면서 중단했다. 제관은 제를 앞둑 2~3일 전에 대전장에 나가 제물을 마련해 온다. 삼색실과, 시루떡, 포, 술 등을 마련한다. 당일 밤이 깊어지면 제물을 가지고 장승 있는 곳으로 나간다. 이때 제관과 함께 부정하지 않다면 누구라도 참석할 수

있다. 제사는 유교식으로 거행되는데, 제관이 삼잔을 올리고 대동소지만을 올린다. 축은 예전부터 읽지 않았다. 수몰이전에는 풍장을 치면서 흥겹게 제사를 지냈으나 수몰된 후로는 관심있는 몇몇의 행사가 되고 말았다.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음복하고 헤어진다.

대전 신상동 오리골 보조석補助石 장승

소재지 : 동구 신상동 397
분 류 : 민간신앙
시 대 : 미상
수 량 : 1기

동구 비룡동의 동신고등학교에서 옥천쪽으로 1km 정도를 가면, 세천초등학교가 나온다. 여기에서 계속 직진하여 300m 정도를 가면, 길이 우측으로 꺾이기 전의 좌측에 오리골로 들어가는 세거리가 나온다. 좌측의 오리골로 들어가는 길을 따라 600m 정도를 가면 오리골 방죽이 나온다. 이 오리골 방죽 안쪽의 오리골 마을과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신상동 오리골 보조석이 자리해 있다. 인근의 오리골 장군석과는 130m 정도 떨어져 있다. 마을에서는 ‘애기장승’이라 부르고 있는데, 높이는 69cm, 밑둘레는 63cm이다. 원래 이 보조석은 2기였으나 1기는 분실하여, 현재 한 기만 놓여있다.

육진태 정려陸鎭泰 旌閭

소재지 : 대전광역시 동구 사성동
시 대 : 대한제국 광무 8년 1904년 명정
종 류 : 정려

동구 세천동의 세천초등학교에서 옥천쪽으로 800m 정도를 가면, 좌측으로 신하동으로 가는 회남길이 나온다. 좌회전하여 이 회남길을 따라 900m 정도를 가면, 좌측으로 신하동의 김정선생묘소일원金淨先生墓所一圓:문화재자료 25호이 나온다. 여기에서 계속 직진하여 4.5km

정도를 가면, 우측으로 숯바탕 산자락이 나온다. 이곳 숯바탕 앞길 건너 중수들쪽 길옆에 사성동 육진태 정려가 자리해 있다. 육진태는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였다. 아버지가 당창唐瘡으로 위독할 때, 병의 치료를 위해 아버지의 분糞을 맛보면서까지 상태를 살피고, 몸속의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상처부위를 서슴없이 입으로 빨아내는 등, 지극한 정성으로 불치의 창병瘡病을 치유하였다. 이런 사실이 조정에까지 알려져 나라에서 동몽교관童蒙敎官에 임명하였고, 1904년(광무8)에는 효자정려가 내려졌다.

줄곧 빼죽바위(오방돌기)

소재지 : 대전광역시 동구 비룡동 149주동(줄곧)
시 대 : 미상
종 류 : 선돌

마을이 복과 재물이 흘러 나가는 형상이라 그것을 막기 위해 마을 뒤의 다랑치에 바위(빼죽바위 · 선바위 · 수구막이)를 하나 세웠다. 밑에 받침대가 있으며, 가공을 하지 않은 자연석이다. 받침의 높이는 55cm이며 앞에서 50cm 들어간 곳에 바위가 위치하고 있다. 높이 190cm, 뒷둘레 169cm, 중간둘레 265cm, 너비 80cm, 아랫둘레 285cm이다.

중말 산신당 산신제山神堂 山神祭

소재지 : 대전광역시 동구 추동 산29-1 상추
시 대 : 미상
종 류 : 산신당(자연제당)

동구 판암동의 동신고등학교 인근 비룡네거리에서 좌측의 대청호수길을 따라 1.8km 정도를 가면, 동명초등학교 앞 세거리가 나온다. 이 세거리에서 좌회전하여 동명초등학교 정문을 지나 400m 정도를 가면 중말마을이 나온다. 이 마을 뒷산으로 150m 정도를 가면 산 중턱에 중말 산신당이 자리해 있다. 산신당의 제단은 작은 비듬나무 아래의 돌비석으

로 되어 있다. 비석의 크기는 높이 50cm, 가로 70cm, 세로 7cm이며, 비석의 밑단은 가로 100cm, 세로 30cm, 높이 10cm로 만들어져 있다. 이 아래는 높이 15cm, 가로 108cm, 세로 125cm의 플라스틱(plastic)이 깔려 있다. 비석에는 ‘추동 산신제단 정축 1997년 10월 29일 음秋洞 山神祭壇 丁丑 一九九七年十月二十九日 陰’ 라 쓰여 있다. 원래 이 제단은 이곳과 조금 떨어진 곳에 있던 참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이나, 한전에서 전신주를 설치하는 과정 중 이 나무를 베어버려 마을 사람들이 부득히 현재의 이곳에 비듬나무 한 그루를 심고 제단을 옮겨왔다. 참나무가 베어지고 난 후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서 산신제의 중요함을 더욱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제단을 옮기며 제일도 음력 10월로 옮겼으나 흉한 일들이 자주 생겨서, 제일을 원래대로 정월 열 나흘날로 다시 바꾸었다. 이후로 마을이 안정되고 탈이 없어졌다고 한다. 정초가 되면 그때의 운을 보아 생기복덕한 마을 사람 중에서 제관 한 명을 뽑아 제를 치러왔으나, 제관을 정하는 일이 쉽지 않아 요즘은 60대 남자인 이 봉휘씨에게 계속 제사 책임을 맡기고 있다. 제사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 제당과 마을의 샘을 깨끗이 청소한 후, 흰종이를 끼운 금줄을 치고 황토를 쌓아둔다. 제관의 집에도 금줄을 치고 황토를 쌓아둔다. 제물은 제관을 대신해 부정하지 않은 마을 사람이 장에 나가 마련해 온다. 마련하는 제물은 돼지머리, 흰설기, 명태, 무와 고사리 등 세 가지 나물, 사과, 배, 대추, 밤, 술 등이다. 예전에는 밥과 나물을 제당에서 직접 지어 올렸으나, 요즘은 모두 집에서 지어 올린다. 제비는 마을 기금으로 충당하며, 제기는 매년 새것을 구입하여 깨끗한 것으로 사용한다. 제삿날 밤 12시가 되면 제관과 풍장패는 산신당으로 향하고, 마을의 각 집에서는 불을 밝힌다. 제당에 오르면 제물을 차리고 유교식으로 제를 진행한다. 분향, 강신, 헌작, 재배, 독축 후에 대지소지를 연장자 순으로 올린다. 제사가 끝나면 간단히 음복한 후에 산신당을 내려온다. 날이 밝으면 제관 집에 모여 점심 식사와 함께 동네계도 같이 한다. 이때 제비의 결산도 보고, 반장도 뽑고, 동네 기금의 결산도 치른다.

직동(핏골) 돌탑 塔祭

소재지 : 대전광역시 동구 직동 산 19-1 직동(핏골)
시 대 : 미상
종 류 : 돌탑

마을의 평안을 위해서 정월 열 나흘날에 탐제를 지냈다. 마을 입구에 느티나무와 팽나무, 그리고 탐 두기와 그 옆의 웅달샘이 있었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은 후로는 탐 앞에 거주하는 가정만이 홀로 독치성(獨致誠) 드리고 있다. 탐은 높이 120cm, 둘레 385cm이며, 나무와 탐 사이에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은 가로 95cm, 세로 50cm, 높이 15cm이다. 설을 쇠고 운을 보아 생기복덕이 닳고 깨끗한 사람으로 유사와 축관을 선출한다. 제관으로 선출되면 제사를 앞두고 열흘 전부터는 근신한다. 탐의 머릿돌에는 흰 종이를 접어 씌우고 금줄로 감아둔다. 유사가 제를 앞두고 2~3일 이전에 신탄진으로 나가 장을 보아온다. 구입한 제물은 바닥에 내려놓지 않는다. 삼색실과 포, 백설기(3되 3홉), 술, 탕, 메, 나물 등을 준비한다. 제비는 마을기금을 일부 꺾어서 충당하는데, 부족할 경우에만 호당 쌀을 조금씩 걷는다. 밤 10시경이 되면 축관과 유사가 제당으로 나간다. 할아버지탐 앞의 제단에 제물을 진설한 후 유교식으로 제사를 지낸다. 분향-강신-헌작-재배-독축-소지올리기(탐소지-만동소지-유사소지-축관소지-우마소지)를 행한다. 할머니탐에는 술한 잔만을 붓고 재배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를 끝낸 후 제물을 조금씩 떼어서 오쟁이에 담아 할아버지탐에 매달아 둔다. 그런 후 이튿날 유사집에 모여 음복을 한다.

천개동 산신당 산신제 天開洞 山神堂 山神祭

소재지 : 대전광역시 동구 효평동 570-11 천개동
시 대 : 미상
종 류 : 산신당(자연제당)

동구 판암동의 동신고등학교에서 옥천쪽으로 100m 정도를 가면 비룡네거리가 나온다. 이곳에서 좌회전하여 대청길로 들어서서 대청호수길을 따라 1.8km 정도를 가면 동명초등학교가 나온다. 계속 직진하여 대청댐 쪽 대청호수길을 따라 2.4km 정도를 가면 좌측으로 양지갯점마을 앞이 나오는데, 이 마을 안의 효평동 경노당 옆 좌측의 마을 길을 따라 1km 정도를 가면 천개동 마을이 나온다. 이 마을 세거리에서 북쪽 산자락으로 100m 정도를 가면 천개농장 좌측 산 중턱에 효평동 천개동 산신당이 있다. 이곳 산신당에서의 산신제는 한국전쟁(1960)초에 형성된 신탄진들이 정착하면서 새로운 마을이 생기고 그 마을에서 지

내온 제사이다. 매년 음력 정월의 좋은 날을 잡아, 이곳 마을 산 중턱의 큰 바위와 세 그루의 참나무를 제당으로 하여 산신제를 지냈다. 제일 일주일 전에 50세가 넘는 마을 분 중 생기복덕과 운을 보아 집사 한분을 뽑았다. 제비는 각 집당 대략 500원에서 7,000원 정도를 걷어 충당하였는데, 보통 10만원 정도가 모아지고 이 돈으로 치루었다. 제기는 마을회관에 보관되어 있는 사기그릇을 사용하였다. 제물은 사흘 전이나 하루 전에 집사가 장에 나가 돼지머리, 팔설기 떡, 삼색실과, 북어 두 마리, 사과, 배, 무나물, 메, 무국, 소주 등을 마련해 온다. 제주를 소주로 마련하는 것은 북한에서 즐겨먹던 술이 소주였기 때문이었다 한다. 제사 당일 해가 뜨기 전의 5~6시경에 산산당으로 간다. 부정하지 않은 남자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었다. 제순은 진설, 헌작, 독축, 마을소지, 호주소지를 올린다. 제사를 마치면 제물을 조금씩 떼어 산신당 주변에 고루던지고 하산하였다가, 날이 밝은 후에 집사 집에 모여 음복하였다. 이러한 산신제가 호구수가 해마다 줄고, 택일을 하던 강혁석 어른마저 돌아가서, 1990년 초반부터 중단된 상태이다.

할머니 장승_장승제

소재지 :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474
시 대 : 미상
종 류 : 장승

할머니 장승은 할아버지 장승으로부터 30m가량 떨어진 양지말 길 옆에 모셔져 있다. 이 장승의 몸에는 장신이란 명문이 음각되어 있으며, 둥근 화강암에 사람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 장승은 높이 113cm, 가로 50cm, 세로 44cm이다. 할아버지탑에서 제사를 끝난 후에 신명나게 풍물을 올리는 가운데 술과 음식을 나누어 먹는 동안 제관 일행은 약간의 제물만을 가지고 할머니 장승 앞으로 가서 고사를 지낸다. 비교적 간단하게 지낸다. 초헌관이 재배한 후 우집사가 첨작하는 것으로 제사를 마친다.

할머니 장승_당산제

소재지 : 대전광역시 동구 소재동 299
시 대 : 미상
종 류 : 장승

장승은 본래 성남동으로 통하는 길가에 250~300m를 사이에 두고 세워져 있었는데, 통행에 불편하다 하여 여러 차례 옮겼다. 예전에는 여장승 옆에 서낭당이 있었다. 할머니 장승은 높이 89cm, 아랫둘레 93cm, 윗둘레 88cm, 가로 22cm, 세로 23cm이며, 길쭉한 사각형이나 할아버지 장승에 비해 가늘다. 본래는 현재보다 길쭉하였으나(155cm) 지금의 위치로 옮기면서 부러져서 지금과 같이 작아졌다. 이곳에는 과거에 상여집이 있었다. 할아버지 장승에서 제사를 거행할 때 동일한 제물을 별도로 마련하여 동시에 제사를 모셨다. 함께 모셔둔 지금도 제물만은 개별적으로 마련하여 올린다.

효평사孝坪祠

소재지 : 대전광역시 동구 효평동 산 43
시 대 : 현대(1957)
종 류 : 사우

동구 판암동의 동신고등학교에서 옥천쪽으로 100m 정도를 가면 비룡네거리가 나온다. 이곳에서 좌회전하여 대청길로 들어서서 대청호수길을 따라 1.8km 정도를 가면, 동명초등학교가 나온다. 계속 직진하여 대청댐 쪽 대청호수길을 따라 3km 정도를 가면, 효평동의 공예문화체험학교(옛 효평초등학교 자리)가 나온다. 여기에서 150m 정도를 더 가면, 이현동과 직동으로 갈라지는 세거리가 나오는데, 그대로 직진하여 600m 정도를 더 가면 좌측 사자락으로 50m 정도 올라선 능선에 효평동 효평사가 있다. 효평사는 고려말 문신 염제신과 그의 아들 염국보, 염연수를 봉안한 사당이다. 염제신은 고려와 원이 관계된 권세가 집안에서 태어나 고려 충숙왕 이래 우왕 때까지 6대 왕에 걸쳐 60여년 동안 원과 고려를 오가며 관직생활을 한, 고려 말의 문신이다. 염제신은 서원 염씨 가문으로 공의 조부 염승익은 충렬왕 측근이었다. 공의 아명은 불노, 자는 개숙, 호는 매헌이다. 여섯 살에 아

버지 염세충을 여의고, 어머니 조씨와 외가에서 지내다가, 열한 살에 원나라에 들어가 평장사로 있는 고모부 말길의 집에서 수학하였다. 공의 생애 79년 동안은 그 특성으로 나누어, 3대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원에서 성장하고 활동했던 시기를 제1기로 충숙왕과 충정왕 대에 걸쳐 활동했던 시기를 제2기로 반원정책을 단행한 공민왕과 우왕 대에 걸쳐 활동한 시기를 제3기로 볼 수 있다. 공이 원에 들어간 열한 살 무렵, 원의 진정제가 황제가 되었고, 원의 고급관리로 있었던 고모부 말길 덕에 황제를 가까이 할 수 있었다. 총명하고 바른 성품의 공은 곧 황제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 황제의 배려로 봉명사신으로 고려에 와 여러 해 머물다 원으로 돌아갔으며, 황제로부터 여러 관직을 제수 받아 봉직하였다. 고려의 충숙왕, 충목왕, 충정왕으로부터도 여러관직에 제수되어 봉직하였다. 1354년 공민왕 초기 본국 고려에서 좌정승에 제수되고 단성수의동덕보리공신의 호가 내려졌다. 1358년 공의 나이 55세에 문하시중에 제수되었는데, 당시 공은 “백성은 하늘과 같다”고 하였고, 군사로 나와 싸우는 사람들 거의가 농민이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조련을 철저히 하되, 평상시에는 둔전에 두어 농사를 지면서 수비하는 병농일치의 정책을 썼다. 신돈이 왕의 신임을 받아 전제개혁을 시도하며, 공도 따라 줄 것을 바랬으나, 신돈을 따르지 아니하고 서로 대립하였다. 공민왕의 변심에 따라 신돈이 정치일선에서 물러나게 되자, 이를 계기로 다시 적극 국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염제신은 자신의 딸이 공민왕의 신비로 책봉되면서 삼사영사, 문하부영사를 거쳐 곡성부원군에 진봉되었다. 공은 외교적 임무를 도맡아 처리하며, 원과의 원활한 관계에 노력했다. 1383년(우왕9) 공의 나이 79세에 영삼사사로 봉직하다가 세상을 떴다.

대청호가 품은 문화재

제례

세천 잔개울 기우제당



양지산(산신당)



방축골달집터



사성동 산신당(산신제)

신하동(요골) 작은태봉 달집태우기



신하동(징고개) 서낭재



국사봉 산신제

고봉 산신제



주촌동 배말 우물



추동 피꼬리봉 산신제



추동 돌장승 거리제

효평동 갯점우물



줄곧마을 우물



내탑동 창구당지

대청호가 품은 문화재

김정선생

신하동 김정선생 묘소 일원



신하동 김정선생 신도비



신하동 김정선생 처 은진송씨 열려각



김정선생 묘소 일원

동구문화총서 16호

신하동 김정선생 산해당



김정묘려



김정선생 사당

대청호가 품은 문화재 / 산성

갈현산성



노고산성



노고산성 노고바위



계현산성

성치산성



견두산성



질현산성



고봉산성

능성



마산동산성



백골산성



신성봉유적

대청호가 품은 문화재 / 장승

비룡동 줄곧 할머니 장승



비룡동 줄곧 할아버지 장승



오리골 보조선



오리골 장군석

신하동 요골 장승



오동 거리제



소들 장승



비룡(뽕죽바위)

바깥아감 서낭당돌



삼정_할머니(위)/ 삼정_할아버지(아래)



신상(서낭선돌)



신하(장군석)

대청호가 품은 문화재

정사 정려 · 묘

주촌동 노적봉 돌탑



사성동 육진태 정려



신촌동 방축골마당바위



사성동 지석묘

효평사



비룡(상곡사)



마산당 송상민정려



비룡(보현정사)

비룡(송석당)



손상민정려



비룡(안평이씨 정려)



효평동 갯점 열녀비

참샘정



송기수 정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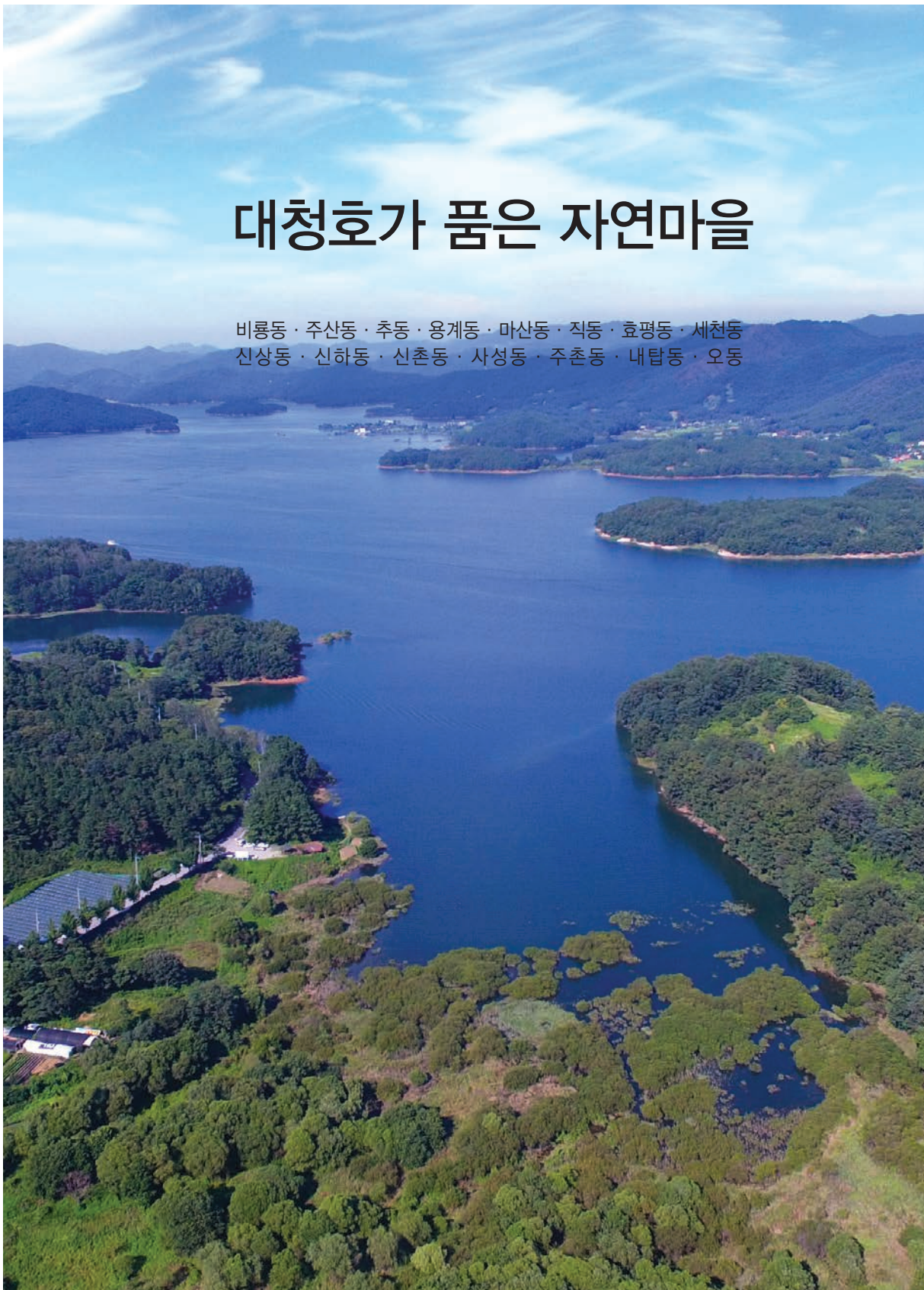
효평동 효열비



주산송세경

대청호가 품은 자연마을

비룡동 · 주산동 · 추동 · 용계동 · 마산동 · 직동 · 효평동 · 세천동
신상동 · 신하동 · 신촌동 · 사성동 · 주촌동 · 내탑동 · 오동



비룡동

비룡동飛龍洞 유래

비룡동은 백제 때는 우술군에 속했으며 신라 때는 비풍군에 속했었다. 고려 초기에는 회덕현懷德縣에 속했으며 현종 9년(1668) 부터는 공주부에 속했었다가 조선초기에는 다시 회덕현에 속했었다.

이 지역에는 용이 승천하였다는 돌이 있으므로 비름돌이라고 부르던 것을 비름들 또는 비룡동이라고 불려오던 지역이다. 조선시대 말기 고종高宗 32년(1895)에는 회덕군 동면의 지역으로 편성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혁때에 덕터리, 주동을 병합하여 비룡리라고 하고 대전군 동면에 편입되었다가 1935년 11월 1일 대전부 신설에 따라 대덕군에 편입되고 1989년 1월 1일 대전직할시에 편입되어 행정동 추동에 편입되었다가 1998년 1월 1일 과소동 통합으로 2개의 행정동이 대청동으로 통합되었다. 비룡동 북부지역은 대청호 조정으로 수몰되었으며 은진송씨 30여호가 살고 있는 집성촌이다.

비룡동 줄곧 입구에는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의 석장승2기가 마주보고 서있는데 남장승은 북쪽을 향하고 있으며 여장승은 남동쪽을 바라보고 있다. 10여년 전만해도 두 장승은 2.5m의 간격을 두고 서있었는데 대전과 추동을 연결하는 도로를 확장하면서 여장승을 뒤로 물려 지금은 약 10여m의 간격을 두고 있다. 남 장승의 외형은 전형적인 문과석 형으로 높이가 2m 정도며 여장승은 1.7m 정도의 길쭉한 화강암 기둥 상부에 사람의 얼굴을 새기었다. 장승제를 지낸 후 짚으로 만든 주머니에 떡과 과일 등을 넣어 장승의 목에 걸어두기도 한다. 이곳을 장승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장승배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비룡동

에는 매년 음력 1월 14일 밤에 장승제와 오방돌기, 달집태우기 등 민속놀이판을 열어 마을의 안녕과 화합 그리고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대보름 제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하고 있다.

비룡마을에는 신선바위, 주을, 비름들, 질티, 주을장승제, 열려안평이씨 정려, 송기수 신도비, 갈현산성 등이 소재하고 있는 대청호 가는길 초입에 있는 마을이다.

갈고개는 비룡동 줄골마을 서쪽에 자리한 고개다.

감나무골은 비룡동 줄골마을 서북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거미알산은 비룡동 줄골마을 북서쪽의 산으로, 거미알 만큼 작다는 뜻이라고 한다.

고무재들은 비룡동 비름들마을 동쪽에 자리한 들이다.

곰남골은 비룡동 줄골마을 동남쪽에 자리한 골짜기다.

구랍들은 비룡동 아랫줄골마을 남쪽의 들로, 굴 앞에 있어 ‘구랍’이라 했다고 한다.

굴날망 마루는 비룡동 아랫 줄골마을 동쪽에 자리한 산마루다.

갈치들은 비룡동 비름들마을 북쪽에 자리한 들이다.

나두쟁이 마루는 비룡동 굴날망 산마루 동쪽에 자리한 산마루다.

녹사래골은 비룡동 새동네마을 남쪽에 자리한 골짜기다.

느래골은 비룡동 새동네마을 남서쪽에 자리한 골짜기다.

다랑치골은 비룡동 녹사래골 골짜기 동남쪽의 골짜기로, 산골 층층의 작은 논을 일컫는 ‘다랑이’가 변하여 다랑치가 되었다.

덕대평전은 비룡동 줄골마을 북쪽에 자리한 작은 둔덕의 밭으로, 느래골 골짜기 북쪽의 작은 덕대와 남쪽의 덕대가 있다.

덤벙골은 비룡동 비름들마을 서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덩지마루는 비룡동 줄골마을 남쪽에 자리한 산마루로, 덩지산 아래에 있다.

덩지산은 비룡동 덩지산마루 서쪽에 자리한 산이다.

문앞들은 비룡동 줄골마을 북동쪽에 자리한 들이다.

물레망아골은 비룡동 새동네 북쪽에 자리한 골짜기다.

바람재고개는 비룡동 장승배기터 남쪽에 자리한 고개로, 유난히 바람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

바름재고개는 비룡동 아랫줄골마을 동북쪽에 자리한 고개다.

베빛날마루는 비룡동 줄골마을 남서쪽에 자리한 산마루다.

뱀날마루는 비룡동 아랫 줄골마을 북쪽에 자리한 산마루로 뱀처럼 길다.

비름들은 비룡동 뱀날산마루 서남쪽에 자리한 들이다.

새동네마을 비룡동 줄골마을 북쪽의 마을로 수물민들이 새로 형성한 마을이다.

선바위는 비룡동 줄골마을과 문앞들 사이에 자리한 바위다.

설양골은 비룡동 줄골마을 북쪽에 자리한 골짜기다.

섬바탕편전은 비룡동 줄골마을 북쪽에 자리한 평평한 들(밭)이다

숫대배기터는 비룡동 줄골마을 안에 숫대가 서있던 자리를 말한다.

쌈뱅이골산은 비룡동 줄골마을 동쪽에 자리한 산이다.

아랫갈고개는 비룡동 줄골마을 서북쪽에 자리한 고개다.

왕비위계들은 비룡동 줄골마을 남쪽들로, 들에 큰 왕바위가 있었다.

외남작마을은 비룡동 줄골마을 남서쪽 끝에 자리한 마을로, 외딴 곳에 있다.

웃골마을은 비룡동 줄골마을 가운데 하나로, 북서쪽 끝에 자리한 마을이다.

장성배기터는 비룡동 줄골마을 입구의 장성이 자리한 터다.

줄골마을(주을, 주동^{注洞}마을)은 비룡동 비름들마을 남쪽 산에 둘러싸인 마을로, 골이 깊은 마을이다.

줄골모퉁이는 비룡동 아랫줄골마을과 줄골마을 사이에 자리한 모퉁이 마을이다.

지랭이고개는 비룡동 줄골마을 동쪽의 고개로, 지랭이처럼 구불구불하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질티(길치, 도치^{陶峙}고개)는 비룡동 비름들마을 북서쪽의 고개로, 길고 험하다.

칠티성터(질현산성)은 비룡동 비름들마을 북서쪽에 성이 자리했던 터다.

신선바위는 비름들 동쪽 산꼭대기에 있는 바위로 옛날에 신선들이 이 바위에서 놀았다는 전설이 있어 신선바위라고 부른다.

주을은 「비름들」 남쪽에서 산을 넘으면 골짜기에 마을이 있다. 이 마을을 「주을」, 「줄골」, 또는 주동이라고 부르는데 마을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불렀다고 한다. 마을 건너편에 폐 고속도로가 있고 대청호를 가는 데 길목역할을 하는 마을이며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아늑하고 차분한 마을이다.

비름들마을은 신선바위 서쪽에 있는 마을로 마을에 용이 승천하였다는 바위가 있어 비름들 비룡동이라 부른다. 이무기가 용이 되어 승천한다는 돌이 있으며 신선한 들에 마을이 있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고 한다.

질티고개는 비룡동에서 가양동으로 넘어가는 높은 고개를 질티, 또는 도티라고 부른다. 고개가 높고 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한다.

주골(비룡동)장승제는 매년 음력 정월 14일 밤부터 15일 새벽까지 지내는 독특한 줄골마을의 민속이다. 매년 음력 10월 27일에 동계^{洞契}에서 청결하고 흠 없는 사람을 제주로 선발하여 제왕^{祭王}이라 칭하고 로신^{路神}으로 부르는 장승,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할아버지장승과 할머니장승)이 설치되어 있는 마을입구에 14일날 저녁에 잡신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기위한 금줄을 치고 12시가 넘으면 마을사람들이 제왕을 초헌관으로 하여 마을의 안녕과 무병장수, 풍년을 기원하는 제를 지낸다. 줄골마을 회관에는 정월 열나 훗날 저녁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풍악을 치고 쥐불놀이와 달집태우기를 하며 소원을 빌며, 마을주민들의 삶이 고스란이 녹아있는 마을 우물에도 풍악을 치며 무탈을 기원하는 행사를 하며 떡국을 나누어 먹고 이웃과 화합과 소통을 하는 장으로 애용되는 민속놀이를 하고 있다.

줄곧장승은 줄곧 새마을 회관 서쪽 바롱로 양쪽에 있으며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의 석장승 2기가 마주 서 있는데 남장승은 북쪽을 향해서 서 있고 여장승은 남동쪽을 바라보고 있다. 10여년 전만해도 두 장승은 2.5m의 간격을 두고 서 있었는데 대전과 추동을 연결하는 도로를 확장하면서 여장승을 뒤로 물려 지금은 약 10m의 간격을 두고 있다. 장승의 목에 짚으로 만든 바구니를 걸어두기도 하며 정월 14일날 밤에 장승제를 지낸다.

열부 안평이씨 정려烈婦 安平李氏 旌閭는 줄곧에 있는데 열부 이씨는 송지덕宋之德의 아내며 하루는 송지덕의 집에 강도가 침입하여 칼로 남편을 찌르려하자 부인이 강도의 칼을 잡아 강도를 제압하였으나 손가락이 잘려 나가도 그 칼을 놓지 않고 남편을 구했으며 그 여파로 평생을 병신으로 살다 일생을 마쳤다. 이런 열부의 행실이 뒤늦게 알려져 숙종39년(1713년)에 정려문을 내렸으며, 회덕에 있던 것을 비룡동 묘지 앞으로 이전 개축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송기수 신도비宋麒壽 神道碑는 비룡동에 있는데 송기수는 조선 중종1년(1506)에 출생한 조선 중종 때의 학자며 정치가다. 중종29년에 문과에 합격하여 이조판서에 봉직될 정도로 어려서부터 학문탐구에 매진하여 제자백가諸子百家에 정통하였으나 당시 권세가인 김안노에게 아부를 하지 않아 한직으로 돌다가 김안노가 죽자 다시 등용하여 정치를 하였으며 의분강제하여 오른일을 상소하고 탐관오리를 제압하여 많은 칭송을 받았으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 매번 역적 간신들의 표적이 되었다. 4대에 걸쳐 역사에 중사하고 절개를 지켜 부귀를 이루어 장수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았고 그가 세상을 떠나자 백성들 모두가 슬퍼하였다. 신도비는 1696년에 건립되었으며 비문은 신희이 짓고 이관응이 썼다.

갈현성葛峴城은 줄곧(비룡동)마을 뒤쪽 넘어가는 갈고개의 북쪽에 있는 해발263m의 성재산 정상부에 테괴식으로 쌓은 석축산성이다. 이 산성의 평면 형태는 남북으로 길쭉한 장방형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성벽은 대부분이 붕괴된 상태다.

보현정사普賢精舍는 비룡동165번지에 있으며 비지정 문화재로 줄곧마을 뒤에 비교적 완만한 곳에 자리잡고 있다. 본래 사찰은 비룡동 새동네 마을의 북동쪽에 위치한 느래골의 끝부분인 구릉에 위치하였는데 고속도로 확장 건설로 인하여 현재의 자리로 이전하였다.

비룡동 줄곧





줄골마을회관



대청호수로 25-26

동구문화충서 16호



대청호수로 12-4



대청호수로 69-6



장승작업장



줄곧 장승



줄골 마을회관 넘어 샘



줄골 바가지샘



줄곧 농산물 집하장



수월암 가는길(대청호수로60-3)

비룡동 새동네





대청호수길 73



대청호수길 85



새동네 안길



새동네 안길

비룡동 비름들



동구문화충서 16호



비룡로 32



비름들 마을회관



비름들 비룡로 11



비름들 비룡로 20



용연, 송백당



상곡사 표찰바위

주산동

주산동注山洞 유래

주산동은 동구의 동쪽에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주산동은 추동지역의 남쪽 중앙에 위치하였다. 북쪽은 추동, 남쪽은 비룡동과 접해있고, 동쪽은 대청호 수몰지역으로 대청호 건너에는 신하동이 이웃해 있으며, 서쪽 산 너머에는 대덕구 비래동이 이웃해 있다. 주산동이라 부르게 된 것은 고려시대부터 향, 소, 부곡에 따른 주안향이 있었던 지역으로서 줄 뚫, 줄미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주산동은 백제百濟때는 우술군雨述郡에 속했으며 신라新羅때는 비풍군比豐郡에 속한 지역이었다. 고려초기에는 회덕에 속했었으며, 조선시대 말기 고종高宗 32년(1895)에는 회덕군 동면의 지역으로 편성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혁 때에 고요리古堯里, 신상리新上里 일부를 병합하여 주산리라 하였다. 주산동은 대전군 동면에 편입되었다가 1935년 11월 1일 대전부 신설에 따라 대덕군에 편입되고 1989년 1월 1일 대전직할시에 편입되어 행정동 세천동에 편입되어 추동으로 있다가, 1998년 1월 1일 과소동 통합으로 세천동과 추동 2개의 행정동이 대청동으로 통합되었으며, 주산동 동쪽은 대청호에 수몰되었다. 주산동에는 금성마을 연꽃마을 상촌마을(원 주산동) 등의 자연부락이 있으며 금성마을과 상촌마을은 대청호 수몰민들이 이주하기 위해 조성된 새마을이다. 주산동에는 고봉산성과 능성등 문화재자료가 있는 마을이다.

고봉산성古鳳山城 대전시 기념물 21호는 주산동 산19-1번지 주산동 상촌마을 뒤쪽에 해발308m의 고봉산 정상부에 퇴축식으로 쌓은 삼국시대의 석축산성이다. 산성의 평면형태는 긴 장타원형이며, 전체길이는 250m정도인데 서쪽벽의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성 내부의 부대시설이나 성문, 건물지, 치성 등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유물 또한 확인할 수 없었다.

가당터골은 주산동 고용마을 동북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고용돌(고요동)웅기재 서쪽 골짜기 길치고개 동쪽에 있다 수물민들이 새롭게 형성한 상촌 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마을이 산을 둘러싸여 있어 아늑하고 조용한 마을이라 하여 고용골이라고 하였다.

뚝개들은 주산동 고용마을 동북쪽의 들로, 거의 수몰되고 일부만 남았다.

마당바위는 주산동 숲거리마을 북동쪽의 들로, 거의 수몰되고 일부만 남았다.

맞바위는 주산동 숲거리마을 동쪽 들 가운데 서로 마주보며 자리해 있었던 바위로 대청댐 담수로 수몰되었다.

무테골(물터골)은 주산동 고용골마을 동남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샘골은 주산동 줄외마을 북쪽에 자리한 골짜기로 대청댐 담수로 수몰되었다.

솔밭밑들은 주산동 숲거리 마을 북쪽에 자리했던 들로, 대청댐 담수로 수몰되었다.

웅기재마을은 숲거리 남쪽에 있는 마을로서 마을은 물에 잠기고 일부 전답만 남아 있으며 옛날에 웅산 고개라 부르던 마을이라서 웅기재라고 하였다고 한다.

줄외(줄미, 주산注山)마을은 주산동 숲거리 서북쪽의 마을로 거의 수몰되었다.

작두바위는 고용골 서쪽 산 뒤에 있으며 산기슭에 큰 바위가 작두 모양으로 얹혀 있어 작두바위라고 하였다.

황새바위는 마당 바위 북쪽 샘골 동남쪽 산기슭에 있으며 황새 모양을 한 큰 바위라서 황새바위라 하였다 한다.

웅기재 마을은 숲거리 남쪽에 있는 마을로서, 마을은 물에 잠기고 일부 전답만 남아있으며 옛날에 웅산 고개라 부르던 마을이라서 웅기재라고 하였다.

고봉산 해마지 기원제는 고봉산 정상 바위에 매년 양력 1월 1일 마을 동계에서 추렴한 돈으로 주민들이 음식을 만들어 지계에 지고 머리에 이고 마을 뒷산인 고봉산 으로 올라와 제물을 차리고 해맞이 기원제를 매년 지내고 있다. 한 해 동안 무병하고 안녕하며 풍년들게 해 주십사 하는 소지도 올리고 떡도 나누어 먹으면서 한해를 시작하는 민속 행사다.

주산동 금성마을





금성마을 안길



금성마을 입구

금성마을 오름길



금성마을126



금성마을 갈릴리교회

주산동 상촌





상촌에서 본 대청호



상촌입구 농지

동구문화충서 16호



상촌마을회관



상촌 원경



대청호수로 337길 56



대청호수로 43-3

동구문화충서 16호



대청호수로 337번길 69-3



대청호수로 337길 79

주산동 연꽃마을



동구문화충서 16호



연꽃마을 앞 대청호



연꽃마을



숲속의 연꽃마을



연꽃마을



연꽃마을 표지석



대청호반길 6-2 황새바위



샘골식당



쟁우당 유허비



죽천장

주산동 연꽃마을_양지말



대청호반길 403-21



대청호반길 403-8



대청호수로 401 (주산동121-1)

동구문화충서 16호



대청호수로 401-1



대청호수로 403-9

추동

추동秋洞 유래

대청댐 건설로 물에 잠긴 옛 동면 지역의 중앙에 위치한 동으로서, 북쪽은 효평, 마산동, 남쪽은 주산동과 접해있고 동쪽은 대청호 수몰지역으로 대청호 건너에는 신촌과 신하동이 이웃해 있으며, 서쪽 산 너머에는 대덕구 비래동이 이웃해 있는 마을이다.

추동에는 천개동이라는 산마을이 있는데 이곳은 남북 전쟁 때 대전역에 천막을 치고 피난온 피란민들이 계족산을 넘어와 정착하면서 생성된 마을로 대부분이 이북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로 산에 밭을 일구어 살면서 천개동 마을이 시작 되었다. 지금은 청정한 지역으로 별장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추동마을은 옛날부터 가래나무가 많아서 ‘가래울’ 이라 부르던 지역으로 한자로 잘못 음차하여 추동楸洞을 추동秋洞이라고 하였다고 하는 유래가 있는 마을이며, 동명초등학교와 대청호 생태관이 자리하고 있고 입구에는 수변공원이 설치되어 있어서 대청호와 어우러진 수려한 풍경으로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잦은 마을이다.

백제때는 우술군, 신라때는 비풍군, 고려초기에는 회덕현에 속했다가 현종 9년(1018)이후에는 공주부에 속했다. 조선초기에는 다시 회덕현, 조선말 고종 32년(1895)에는 회덕군 주안면에 속했다. 그후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회덕군 동면의 관동 일부와 일도면의 마산상리 일부를 병합하여 추동리라 하여 대전군 동면에 편입하였다. 그후 1935년 11월 1일 대전부 신설에 따라 대덕군에 편입되었으며, 1989년 1월 1일 대전시의 직할시 승격에 따라 대덕군이 직할시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5년 1월 1일 대전광역시

시 동구 추동으로 명칭 변경되었으며 현재 행정동은 대청동이다.

추동의 서쪽은 계족산을 끼고 동남쪽으로 흐르는 산악 지대이고 동쪽으^{km}로는 넓은 들이 펼쳐져 있었다. 대청댐조성으로 일부는 수몰되었지만 많은 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지역이다. 대청호 담수가 되기 전에는 추동면적이 4.78^{km}에 임야면적은 약 3.02^{km}였다.

추동에 있는 토속 자연지명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추동마을 주변에 높은 산악지대나 산골에 자생하는 가래나무가 많아서 가래울이라고 하였다. 노나무 추^槲자를 써서 추동이라고 불렀다. 노나무는 5월에 꽃이 피고 열매는 달걀 모양의 핵과인데 이를 가래라 부르므로 그 가래가 열리는 나무라 해서 추목^{秋木}이라 부르는 데서 연유해 추동이라 불렀다고 한다. 그러나 또 다른 일설로는 가을에 무르익은 추동의 들판을 지칭해서 추동이라 불렀다는 설도 있다. 추동의 전설에 따르면 삼국시대에 강을 사이에 두고 백제와 대치하고 있던 옥천쪽 환산, 간산성에 진을 친 신라 군사들이 가을이면 추동의 들에 침범해 곡식을 약탈해 감으로 시루봉에 주둔해 있던 백제 군사들이 들에 내려와 망을 보고 자주 싸움이 벌어졌었다고 한다. 그만큼 곡창지대였던 것이다.

추동은 부유한 옥토와 함께 조선시대 중종 이후에는 유학에 따른 인물들이 정착하면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에 이른다. 그 동안 소외되었던 학문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벼슬길에 오르는 사람들을 많이 배출한 지역이다. 특히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학문의 여세는 더욱 빛을 발휘했다. 그 후 조선시대 영조 때까지는 송명흠^{宋明欽}이 가래울에 역천정사^{櫟泉精舍}를 세우고 학문연구에 들어갈 시기에는 전국에서도 소문난 유학의 고장으로 손꼽히게 된다.

조선시대 영조 36년(1760)의 기록에 의하면 추동의 총가호수는 59호였고 인구는 220명이었으며, 그 후 1940년에는 44호였으며 1976년 추동의 총 가구수는 90호에 615명이었다. 대청호가 조성되면서 41호가 수몰되었으나 가옥 침수는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였다.

동에 있는 토속 자연지명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가래울(큰말, 중추)마을이 있는데 죽말 북동쪽, 교촌 북쪽에 있는 마을이며, 중추 또는 큰말이라 하는데 이는 상추와 하추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감마루골은 취수탑 동쪽에 있던 들로서 대청댐 건설로 물에 잠겼다.

교촌마을은 가래울 남쪽, 죽말 동쪽에 있는 마을로서, 대청댐이 생기면서 수몰민들이 새로이 형성한 마을이다.

매봉은 시루봉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옛날에 매사냥 명지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밤실은 취수탑 소쪽 생뫼와 붉은 바위 사이에 있는 들이다.

배박골은 죽말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죽말서 천개동 가는 길 좌측에 있다.

붉은바위는 취수탑 서남쪽에 있음 붉은 색을 띤 바위가 들 가운데 있어 붉은 바위라고 하였다.

뿌당골(불당골)은 죽말 북동쪽 가래울 서쪽에 있으며 유래는 잘 알 수 없지만 갯점에서 갯 얻어쓰고 뽕당골서 뽕맞추고 배박골서 배 맞추고 입마치골에서 입 맞추고 평박골에서 평풍바위 평풍차고 한골에서 안고 뒕군다는 속설이 있다.

생뫼들은 추동 취수탑 북서쪽에 자리한 들이다.

시루봉(중봉)은 교촌 남서쪽에 있으며 시루를 얹어 놓은 모양을 하고 있어 시루봉이라고 하였다. 시루봉 위에 중봉 산성터가 있다.

실말미들은 추동 가래울마을 서쪽에 자리한 들이다.

아래말(양지말, 하추)는 가래울 서남쪽에 있던 마을로 양지쪽에 있어 양지말 추동 가운데 제일 아래 동네라서 아래말 하추라고 불렀다.

안골은 추동 죽말마을 남서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입마치골은 추동 죽말마을 북서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임진말은 교촌 북쪽에 있던 작은 마을로 교촌과 장태 사이에 있었던 마을인데 대청호 담수로 수몰되었다.

장태들은 추동 가래울마을과 교촌마을 사이에 자리한 들이다.

정작들(정짓들)은 동명초등학교와 물에 잠긴 아래말 사이에 있던 들로서 이 역시 대청댐 담수로 물에 잠겼다. 정자나무가 있던 들이어서 정작들이라고 하였다.

죽말(상추)는 교촌 서쪽 가래울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며 죽말에 대한 유래는 알 수 없으나 변한 중말에 대한 유래가 많다. 한절이라는 중이 살았다고 하며 흥근 가래울 중에서 가구수가 중간이라서 중말이라고 하였다는 전언이 내려오고 있으며 아울러 제일 위에 있는 마을이라서 상추라고 하였다.

중골은 가래울(큰말)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다.

평박골은 죽말 북서쪽 지치박골과 입마치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다.

평풍바위는 추동 평박골 골짜기에 자리한 바위이다.

한절터는 죽말 동쪽 있던 절터로 지금 교촌이 있는 곳이었다. 절이 하나 있다고 해서 한절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물속에 잠겨 구전으로만 전해지고 있다.

한절고개는 한절이 있었던지금의 교촌 언덕길을 말한다. 한절이 있는 고개라서 한절고개라고 불렀다.

훈고개는 가시랑골 서남쪽 증산골 사이에 있으며 가래울 남쪽에서 가시랑골을 지나 훈고개 증산골을 넘어 길 치고개로 넘어가는 길이다.

추동 가래울





가래울근교



가래울마을회관



중추부락 표지석



가래울 입구



대청호수로길 585



대청호수로길585번길 14



대청호수로길585번길 26



대청호수로길585번길 40



대청호수로 585번길 17-4



대청호 오백리길

추동 교촌





생태관 정문 앞



대청호 생태관

동구문화충서 16호



생태관 및 골목길



대청호 생태관 국화전시장



옥외국화전시장



대청호 오백리탐방지원센터

동구문화충서 16호



초등학교 인근



동명초등학교 입구



천개동로 26-10



천개동로 27-4

동구문화충서 16호



천개동로 31



천개동로 36



천개동로 73-26



동심편의점 골목길

추동 밤실마을





밤실마을 표지석



밤실에서 본 대청호

동구문화총서 16호



대청호수545번길 47-8



대청호수로 545번길



대청호수로 545번길 62



대청호수로 545

동구문화충서 16호



대청호수로545번길 39-8, 39-28



대청호수로545번길 52-26



대청호수로길 545



물문화관

동구문화충서 16호



밤실마을 안길



밤실마을 위친계 물품보관소

추동 상추



상추 종점

동구문화충서 16호



천개동길 73-17



천개동로 59번길 21



천개동로 73-26



천개동로 59번길

용계동

용계동龍溪洞유래

용계동은 추동과 마산동 동쪽에 있던 마을로서 마을 전체가 대청댐 건설로 물에 잠긴 애잔한 추억을 간직한 마을이다. 용계동은 용이 살았다는 연못이 냇가에 있는 용지말, 용계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용계마을은 용용龍자와 시내물 계溪를 합하여 용계동이라고 하였다.

용계동은 백제대는 우술군, 신라때는 비풍군, 고려초기에는 회덕현에 속했다가 현종 9년(1018)이후에는 공주부에 속했다. 조선시대 초기 회덕현, 조선 말 고종 32년(1895)에는 회덕군 동면의 지역이었는데,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1914년에 성산리, 장천리, 관동, 추하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용계리라하고 대전군 동면에 편입하였다. 그 후 1935년 11월 1일 대전부 신설에 따라 대덕군에 편입되었으며, 1989년 1월 1일 대전시의 직할시 승격에 따라 대덕군이 직할시에 편입되어 행정동인 추동의 일부로 소속되었다가 1995년 1월 1일 대전광역시 동구 용계동으로 명칭 변경되었으며 현재 행정동은 대청동이다. 대청댐 담수로 수몰되었으며 현재 거주하는 주민이 없다.

가시나무골은 용계동 성미마을 뒤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성미(성산, 서봉부곡)골은 용지말 북서쪽에 있던 마을로서 용지말과 양청이 사이에 있었다. 고려시대부터 서봉부곡이 있었던 지역으로 '서봉부곡'으로 불리다가, 비룡동 질티성(성) 산끝(미)이라고 하여 성미라고 하였다. 또는 비룡동에 있는 질티성이 자리한 산의 끝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양청이(양청, 양천)마을은 성미 동북쪽에 있던 마을로서, 남쪽에서 흘러오는 냇물과 서쪽에서 흘러오는 냇물이 합하여 북쪽으로 흘러가는 곳에 마을이 위치하였으며, 양청은 동네가 양달지고 절묘하며 주변이 푸르른 곳

으로 남쪽내와 서쪽내가 서로 합수한 곳이라 하여 양청, 또는 양천이라 불려졌다는 설과, 냇물이 장마철에 항상 넘쳐 냇가에 버드나무를 심어서 홍수피해를 막았다는 전설 때문에 양천이라고 이름붙여졌다는 전설이 함께 전하는 마을이다. 따라서 이곳을 속칭 양천이라고 했다.

용지말(용계말)마을은 성미 남동쪽에 있으며 용이 살았다는 못이 냇가에 있어 용용자와 시내 계자 혹은 연못 지자를 따서 붙였다. 용계 입구엔 가지가 멋지게 뻗은 고목나무가 있었으며, 해마다 정월 보름에는 떡과 과일을 차려놓고 초저녁부터 새벽닭이 울 때까지 일년 동안 재액이 없도록 고사를 지냈었다.

치알바위는 양천이 서쪽에 있었으며 바위의 모양이 햇빛을 가리기 위해 처는 채일포장처럼 생겼다고 치알 바위라고 하였다고 한다.

차일바위골은 용계동 양천이마을 서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수몰된 용계동





마산동

마산동馬山洞 유래

마산동은 동구의 동쪽에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곳이며 마산동 북쪽은 직동이며 동남쪽은 수몰지역으로 대청호 동쪽 건너편에는 내탑동이 이웃해 있고 추동 북서쪽에 위치한 마산동은 효평동, 직동과 물에 잠긴 용계동과 인접해 있다. 역참驛站겸 자선을 베풀던 아름다운 사랑의 땅, 대청호가 펼쳐져 마산동 은골마을에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걸쳐 말이 쉬어 가던 역참 겸, 가난한 백성들에게 사랑의 적선積善과 인술仁術을 베풀던 참으로 아름다운 땅, 미륵원터가 고요히 물속에 잠겨있다. 이 미륵원터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걸쳐 회덕 지방의 호족이었던 회덕황씨懷德黃氏 댁에서 경영하던 역참이었다. 이곳은 말이 머물고 갈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무료로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술을 베풀고 배움의 터까지 마련해 준 참으로 아름다운 인정이 꽃피던 곳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사랑의 역참을 부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손길을 바라는 미륵신앙의 뜻을 담아 미륵원彌勒院이라 불렀다. 미륵원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굴파원屈坡院”도 함께 있었다. 특히 추운 겨울이면 매년 무료숙박소를 열어 지나는 나그네들에게 훈훈한 인심을 베풀었다. 이해 “남루南樓”를 별도로 지어 운영했다. 마산동은 말馬자를 쓰는데 말이 머물렀던 연유로 마산동이라고 명명하였다고 한다.

마산동은 조선 초기에 들어서 쌍청당의 중손인 송여익宋汝翼(1454(단종2)-1528(중종23))이 벼슬을 버리고 이곳 “굴파원屈坡院”에 큰 집을 짓고 은거하였다. 회덕의 부호였던 집안 탓에 재산이 넉넉했던 송여익은 주택 동쪽으로 정사를 두어 채 짓고 친구들과 유유자적하

며, 때로 학문을 논하고 탐구하기도 했다. 또한 동네 가난한 집 아이들을 가르쳐 일깨워주기 위해 서쪽으로 큰 집 수십 칸을 세워 스승을 모셔다 무료로 글을 가르쳤으며, 병들고 의탁할 곳이 없는 노인들을 모아 의원에 보내 치료비를 전담하여 치료해 주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행랑채 앞에 큰 솥 여러개를 걸고, 매일 아침저녁으로 앞뜰의 냇가에서 쌀을 씻어다 밥을 지어 배고픈 이들을 먹였다. 이 아름다운 자선은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큰 집을 세웠던 곳을 행랑마을(行廊村)이라 불렀고 큰 솥을 걸었던 곳을 솥티실이라 했으며 쌀을 씻어 냇물이 허영게 구름이 피듯 아래로 흘러간 곳을 “구름다리”라 불렀다.

당시의 아름다웠던 이곳과 송여익(宋汝翼)의 산소 모두 대청호에 수몰되었으나, “남루”는 복원되어 그 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이야기 하고 있다. 이 “미륵원터”는 2005년 9월에 대전시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지정사유는 미륵원지는 고려말 황윤보(黃允寶)에 의해 건립되어 여말선초 회덕황씨의 적선으로 운영되어 오던 역사 깊은 생활유적으로 행려자(行旅者)들을 대상으로 한 구호활동에서 점차 사회구조 및 봉사활동으로 확대한 대전 최초의 사회복지기능을 수행한 민간기관이기 때문이다. 청풍명월(淸風明月), 절의정신(節義精神)과 더불어 우리지방의 향풍(鄉風) 가운데 하나인 베풀기를 좋아하는 대전사람의 후덕한 인심을 상징하는 중요한 유적이기에 기념물로 지정하고 보존하고자 지정이유를 적고 있다.

백제시대는 대청호 주변마을이 모두 우술군(雨述郡)에 속했었으며, 신라(新羅)때는 비풍군이었다가 고려 초기에는 회덕현에 현종(顯宗) 9년 부터 공주부 조선 초기에는 다시 회덕현에 속했었다. 이지역이 말처럼 생긴 말미란 산이 있어 말미 또는 마산이라고 불렀던 지역이다. 조선시대 말기 고종(高宗) 32년(1895)에는 회덕군 일도면(一道面)이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달촌(達村), 마산상리(馬山上里) 마산하리, 동면의 관동 일부와 주안면의 사성리 일부를 병합하여 마산리라 하고 대전군 동면에 편입되었다가 1935년 11월 1일 대전부 신설과 함께 대덕군에 속했으며 1989년 1월 1일 대전직할시에 편입되었다. 현재 행정동은 대청동이고 마산동 동남쪽은 대청호에 수몰되었으며 은진송씨 50여호의 집성촌이 있었던 동네다.

마산동에는 말미산, 달가미마을, 은골, 원골, 벼락바위, 미륵원터, 개머리산, 송상민 효자정려문(孝子旌閭門), 사스미산 등이 있는 마을이다.

말미산은 마산동과 효평동 사이에 있는 높이 242m산을 마산, 또는 말미라고 부른다. 산 모양이 말처럼 생겼다고 해서 부른다고 한다.

달가미 마을은 은골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마을 뒤에 바위가 연이어 두르고 있어서 마치 병풍 같기도 하고 앞 이 확 트인 곳에 물이 흐르고 있어 마치 동양화 한 폭 같으며, 특히 달이 밝은 날은 더욱 절경이어서 달가미 라고부른다고 한다.

개머리산은 계족산성 동쪽 동구 마산동과 효평동 경계에 있는 산으로 산 높이가 362m며 산의 모양이 개머리 처럼 생겼다고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산 정상부에 석축산성의 견두산성犬頭山城이 겨우 흔적만 유지하고 있다. 마산동에는 송상민 효자 정려문宋尙敏孝子旌閤門도 있는데 조선말기의 학자로 호는 석곡石谷이고 자는 자산子慎이며 본관은 은진이다. 사스미산은 마산동 은골 뒤에서 내탑 독바위까지 뻗어있는 산을 사스미 또는 녹산鹿山 이라고 부른다. 산 높이는 178m이며 산 모양이 사슴과 닮았다고 해서 사스미, 녹산이라고 부른다.

베락바위는 마산동 원골마을 동남쪽에 있던 바위로 수몰되었으나 물이 낮으면 드러나 보인다.

봉촌마을은 마산동 뒷말미마을 북서쪽에 자리한 마을이다.

솔티실(자리)은 마산동 은골마을 골파원에 조선초 송여익이 자선을 베풀기 위해 큰 솔을 걸어던 곳으로 수몰 되었다.

애미골은 마산동 왜수마을 서남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오시밋골은 마산동 말미마을 북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원골마을은 마산동 아랫말미마을 북쪽에 있는 마을로 옛날 미륵원彌勒院이 있어서 ‘원골’이라 불려왔으나, 대 청댐의 담수로 수몰되고 재실만 산위로 옮겨놓았다.

왜수마을은 마산동 말미마을 부근에 자리한 마을로, 수몰민들이 새로 이주한 새마을이다.

은골과 관골, 관동마을은 마산동 아랫 말미마을 동쪽에 자리했던 마을로, 조선개국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내려와 기거했던 고려말 명신 송명의宋明諱가 은거한 곳이라고 하여 ‘은골’이라 하고, 그의 며느리 관을 모신 곳 이라하여 관골이라고도 했으나 모두 수몰되고 은진송씨의 사당만 남아있다.

상성배기들은 마산동 아래말미마을 동쪽의 들로, 장승이 있어 장승배라고 하였으나 수몰되었다.

지치박골은 마산동 애미골 골짜기 남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쭈다리들은 마산동 말미마을 남쪽에 자리한 들로, 대청댐의 담수로 수몰되었다.

큰메골은 마산동 봉촌마을 북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훈고개는 마산동 오시밋골 골짜기 북서쪽에 자리한 고개이다.

행랑마을터는 마산동 오시밋골 골짜기 북서쪽에 자리한 고개이다.

송상민 효자정려문孝子旌閤門은 마산동에 있으며 조선말기의 호는 석곡이며 본관은 은진이다. 동마산 아래에서 태어나 송시열, 송준길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현종 1년(1660)에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나 벼슬길에 오르지 않고 송시열의 문하에서 학문에만 전념했다. 조선 숙종5년(1679)에 남인 허목과 북상문제로 싸운 송시열의 2차에 걸친 예론禮論에 대한 소를 왕에게 바쳤다는 죄로 영의정 허적의 탄핵을 받고 장사杖死했다. 그는 생전에 부모를 정성껏 모셨으며 친구들과의 우애가 깊었고 선비로서 항상 서민과 대하는 시간이 많은 학자였다. 그가 죽은 다음해에 신원이 회복되고 공조정부에 추축되고 효행으로 정려가 내려졌다.

사스미鹿山 마산동 은골 뒤에서 내탑동 독바위까지 뻗어있는 산을 사스미 또는 녹산鹿山이라고 부른다. 산 높이는 178m이며 산 모양이 사슴모양을 닮았다 하여 사스미산, 녹산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관동묘려寬洞墓廬 마산동 은골에는 대전시문화재자료 37호 마산동 472-1에 있는데 사묘재실 문화재로 조선 고종31년(1894)에 열부烈婦 쌍청당 송유(1389~1446)의 어머니 유씨 부인의 묘 아래에 재향을 지내기 위해 지어놓은 재실이다. 대청에 관동묘려寬洞墓廬 현판이 달려있고 종도리 장설측면에 승정기원후 오갑오 이월십 육일 입주상량 문이 있다.

마산동산성馬山洞山城은 시기념물 30호로 마산동산6번지 사스미골 뒤쪽에 있는 성재산(200m) 정상부를 중심으로 퇴폐식으로 축조된 삼국시대의 석축산성이다. 성둘레는 220m정도 되고 대부분의 산성은 무너져있고, 일부만 남아 형태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내부의 부대시설은 남동쪽에 평단면의 추정 건물지와 용도가 불분명한 산성 한가운데 석축시설물이 있는데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마산동





관동묘려방향



마산동 찬샘골방향



원마산 전경



대청호수로 633번길 38



슬픈연가 촬영지



대청호수로 633번길

동구문화충서 16호



대청호수로 633번길 26



대청호수로 633번길 34-4



대청호수로 633번길 655-10



대청호수로 633번길 690-14

직동

직동(피골)유래

직동의 위치는 대전동구 동쪽에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직동은 동구의 북쪽에 위치하였다. 직동의 북쪽과 동쪽은 대청호와 인접해 있으며 서쪽으로는 효평동, 남쪽으로는 마산동과 인접해 있다. 노고산을 중심으로 동쪽은 대청호 건설로 마을이 거의 수몰되었으며, 서쪽 피골은 산과 호수를 저하고 있는 아늑한 곳에 마을이 자리잡고 있다. 피골은 백제와 신라가 노고성에서 크게 싸워 피가 내를 이루었다 하여 피골이라 하였다. 이 ‘피골’에서 ‘피’는 한자로 피 皮 직 稷자를 음차 하였다고 한다.

직동의 연혁은 백제때는 우술군, 신라때는 비풍군, 고려초기에는 회덕현에 속했다가 현종때에는 공주부에 속했다. 조선 초기에는 다시 회덕현, 조선시대 말 고종 32년(1895)에는 회덕군 일도면의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혁 때에 사동, 냉천리, 영장리, 성동, 마산하리의 각 일부와 주안면의 웅암리 일부를 병합하여 직동리라 하고 대전군 동면에 편입하였다. 그 후 1935년 대전부 신설에 따라 대덕군에 편입되었으며, 1989년 1월 1일 대전시의 직할시 승격에 따라 대덕군이 직할시에 편입되어 행정동인 추동의 일부로 소속되었다가 1995년 1월 1일 대전광역시 동구 직동으로 명칭 변경되었으며 현재 행정동은 대청동이다. 직동의 지명을 알아보면,

근장골(건장골)마을은 양구레 북동쪽, 호반정이 동쪽에 있던 마을로서, 대청댐 담수로 수몰된 지역이다. 옛날에 이 동네에 힘이 세고 오래 산 노인이 있었다는 전설에서 유래되었다. 즉, 건장할 健壯자에 씩씩할 壯壯자를 쓰는 ‘몸이 크고 굳세다’는 뜻을 지닌 건장에서 근장으로 변화했다.

노고산은 피골 동쪽에 있는 산으로 피골과 찬샘내기 사이에 있으며, 노고산성이 있는 산이라고 해서 노고산이라고 하였다.

돛골나루(돛골나루)는 위 피골 북동쪽, 통외 동쪽 언저리에 있었으며, 물에 잠긴 조실구레 끝에 있었다. 현재는 대청댐 담수로 물에 잠겼다. 조실구레에서 돛골로 건너가던 나루였으므로, 돛골나루라고 하였다. 그러나 대청댐 완성으로 자연히 없어졌다.

말바위(마암)은 말바이산 북쪽에 있었으며 모양이 말을 탄 것처럼 생겼다고 하여 말바위라고 부른다. 말바위산(마암산) 피골 북쪽, 우피골 북서쪽에 있으며 산 북쪽에 말을 탄 모양의 말바위가 있어 말바위산이라고 부른다.

먹뱅이골은 소태고개 동쪽에 있으며 지형이 후미져서, 캄캄한 방에 들어간 것 같다고 하여 먹뱅이라고 하였다. 또 말바지라는 해석도 있다. 인가는 없고 논밭만 그 곳에 있다.

밀개봉산은 위피골 북동쪽, 통외 남쪽에 있다. 피골에서 찬샘내기로 가려면, 위피골을 지나 밀개봉과 노고산 사이로 갔었다. 대청댐 건설로 그 길이 물에 잠겼으나, 최근 다시 새로운 길을 닦고 있다.

방골(밤골, 율곡, 방곡)마을은 조실구레 북쪽, 통외 서쪽에 있던 마을로서, 대청댐 건설로 물에 잠겼다. 밤나무가 마을 주변에 많이 있어서 밤골이라 하였다.

산막골은 현재 남아있는 양구레 마을 서북쪽에 있다.

산수골은 현재 남아있는 양구레마을 서남쪽 뒤에 있다. 그 곳으로 넘어가면 효평동 당살이 마을이 나온다.

서낭댕이는 씨리산 남쪽 잿박골 서쪽에 있었으며 성황당이 그 곳에 있어서 서낭댕이라고 하였다.

소태고개는 함각산 동쪽, 양구레 남쪽에 있는 고개로서, 직동 남동쪽 끝이므로 마산동과 경계지역 에 있다. 백제군사들이 노고산성에서 군량을 운반하려 나왔다가 신라군과 마주쳐 싸웠으며, 이 싸움으로 시체들이 사태가 나서 ‘사태고개’라고 부르면서 유래하였다. 또는 이 고개에 유난히 소태나무가 많아서 그렇게 소태고개라고 하기도 한다.

쇠전고개는 밀개봉과 노고산 사이에 있다. 쇠를 만들던 가마터가 있어서 쇠전고개라하였으며 지금도 땅을 파면 솥을 구워내던 솥물이 나온다고 한다.

씨리산은 현재 남아있는 찬샘내기 동쪽 구남정이 서북쪽에 있으며 씨리나무가 그 산에 많아서 씨리산 이라고 하였다.

아득이나루는 찬샘내기 동쪽에 있던 금강의 나루터로 현재 남아 있는 찬샘내기 북동쪽에 있었다. 마산동에서 양구레를 지나 찬샘내기 앞에서 아득이(청원군 문의면 아덕리)로 건너가던 직동의 나루터여서 아득이나루라고 하였다.

양구레(양굴)는 피골 남동쪽 산 너머 찬샘내기 남쪽에 있었으며 양쪽으로 낮게 고개가 나 있고 동쪽으로 물이 흘러 나가는 지형이다. 따라서 북쪽과 남쪽 양 골짜기 아래로 물이 흐른다고 하여 양구레라고 하였다.

우피골은 피골 북동쪽, 피골과 밀개봉 사이에 있으며 피골 위쪽에 있다고 위(우)피골이라고 하였다. 노고성 아래에 있어 성말, 피골에 물을 대는 보 위쪽에 마을이 있다고 하여 ‘위보골, 위보말, 상보골’이라고 기록에 남아 있다. 그러나 현재는 피골을 바탕으로 한 ‘위피골’로만 불려지고 있다. 잿박골 씨리산 남동쪽, 호반정이 북쪽에 있다.

조시구레는 위피골 북쪽 산 너머에 있었던 약 1km정도의 골짜기로서, 옛날에는 동리가 있었으나 대부분 물에 잠겨 없어졌다. 옛날에는 동네가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지고 다만 약 1km정도의 계곡에 논이 있는데 이곳의 나락이 일찍 익는다고 하여, 일찍 조루자에 열매 싹자리를 따서 조실이라 하였다고 한다.

찬샘내기는 조실구레 남쪽 돛골나루 서쪽에 있었고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고 얼음같이 찬샘이 있는 마을이라서 찬샘내기(냉천동)라고 하였다.

통외산은 조실구레 북동쪽, 밀개봉 북쪽에 있는 작은 산으로서 현재 봉우리만 섬처럼 남아있다.

피골(직동)은 노공 서쪽, 위피골 남서쪽에 있다. 백제군과 신라군이 싸워서 피가 내를 이루었다 하여 피골이라 하였다.

할미바위는 노고산성 꼭대기에 있는 바위로 모양이 할미처럼 생겼다고 할미바위라고 부르기도 하며, 노고할머니가 명주치마에 돌을 담아 쌓았다고 붙인 이름이라고도 한다.

직동 냉천골



동구문화충서 16호



승강장



냉천골식당가

대청호가 품은 자연마을



냉천골 앞 대청호



냉천로 698-18



찬샘정



할매집

직동 양구레





양구레 입구



양구레식당



냉천로 323



냉천로 325

직동 찬샘골





산샘마을입구



산성 이정표



이정표



태양전기



물레방아간



찬샘문화체험마을



문화재자료

효평동

효평동孝坪洞 유래

효평동은 동구 동쪽에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효평동은 동구의 동쪽이며, 추동지역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효평동의 북쪽은 대덕구 이현동과 접해 있으며, 서쪽으로는 계족산, 성재산 등의 산맥이 길게 남북으로 뻗어 있고, 남으로는 추동, 동북으로는 직동, 남으로는 마산동과 접해 있다. 효평동 북부 일부지역은 대청호 조성으로 일부 수몰되었다

효평동은 백제 때는 우술군에 속했으며 신라 때는 비풍군에 속했었다. 고려 초기에는 회덕현懷德縣에 속했으며 현종 9년(1668) 부터는 공주부에 속했었다가 조선초기에는 다시 회덕현에 속했었다. 이지역은 북쪽으로 삼산천이 흐르는 산골에 위치해서 산골에 작은 들이 열렸다 하여 소들 또는 소평所坪, 효평이라고 부르던 곳이다. 조선시대 말기 고종高宗 32년(1895)에는 회덕군 일도면一道面 지역으로 편성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혁때에 당산리堂山里, 입점리笠店里를 병합하여 비룡리라고 하고 대전군 동면에 편입되었다가 1935년 11월 1일 대전부 신설에 따라 대덕군에 편입되고 1989년 1월 1일 대전직할시에 편입되어 행정동 추동에 편입되었다가, 1998년1월1일 과소동 통합으로 2개의 행정동이 대청동으로 통합되었다.

가는골은 효평동 갓점마을 남서쪽에 자리한 골짜기로, 길고 가늘게 나있다.

갈발내는 효평동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흘러서 신탄진, 삼산을 거쳐 금강으로 흘러가는 냇물을 갈발과 연유해서 갈발내라고 부른다.

개머리산(견두산)은 효평동 갯점마을 남쪽에 자리한 높이362m의 개머리 모양을 닮은 산으로, 견두산성이 자리해 있다.

구레들은 효평동 갯점마을 남서쪽에 자리한 들로 사람의 옆구리 모습같아 구레라 하였다.

갯점은 소들 남서쪽 이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깎은 듯한 산 밑에 있는 마을인데 옛날에 갯점이 있었다 해서 붙인 이름이다. 또한 산세가 마치 갯을 얹어 놓은 것같은 형국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동담재(바람재)는 천개동 남서쪽에 있으며 동남재를 넘으면 비래암이 나오는데 이것을 연유로 바람재라고 하였다.

당살미마을은 소들 남동쪽에 당산이란 산이 있는데 이산엔 성황당과 산제당이 있고 그 아래에 마을을 당살미인데, 당산 아래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소들은 효평동 높은 산속에 있는 들을 소들이라 부르는데 소들은 작은들이란 뜻도 있지만 소가 살 수 있는 들이란 의미도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돼지봉은 소들 동쪽, 불당골 남서쪽에 있는 작은 봉우리다. 그 봉에 무덤이 많아 후손들이 시향(세사)를 지낼 때 마을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돼지처럼 먹고 갔다고 하여 돼지봉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마드리마을은 효평동 소들마을 남쪽의 마을로, 말을 매는 들이 있었다.

막바골은 효평동 당살미마을 남서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말미기골은 효평동 불당골골짜기 동북쪽에 자리한 골짜기로, 말머리처럼 생겼다.

말채논들은 효평동 마드리마을 동쪽 들로 말을 먹이던 들녘이었다.

모래방고개는 효평동 양지갯점마을 남쪽에 자리한 고개다.

봉위뚝(복지개산)산은 효평동 양지갯점마을 북쪽에 자리한 산으로 산 봉우리가 독을 얹어놓은 듯한 모양이어서 봉위뚝이라 하였다. 3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공기가 좋고 청정하여 이주 주민들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서낭당이골은 효평동 당살미마을 동쪽 골짜기로, 고개마루에 서낭이 있다.

소들(효들, 소평, 효평)마을은 효평동 갯점마을 동북쪽에 자리한 마을로, 소가 살 수 있는 작은 들이 있고, 효자가 있었다고 하며, 효평동의 본래마을이다.

소정이들은 효평동 갯점마을 동쪽에 자리한 들이다.

수들물가리들은 효평동 갯점양지말 마을 동북쪽에 자리한 들로, 논에 대청호의 물이 들어오면 가슴까지 찬다고 한다.

어머니골은 효평동 갯점마을 서쪽에 자리한 들로, 아낙네들이 논밭을 맬 때 아이들이 찾아와 어머니 어머니 하고 많이 불러대서 붙여진 이름이다.

정골은 효평동 갯점양지마을 남서쪽에 자리한 들이다.

지당터골은 효평동 갯점양지마을 남서쪽에 자리한 마을이다.

치구재고개는 효평동 갯점양지말 마을 북쪽과, 갯점음지말 동쪽에 같은 이름의 고개가 자리하고 있다.

큰평전은 효평동 당살미마을과 막바골골짜기 사이의 평평한 큰 밭이다.

황새봉산은 소들 북쪽에 자리한 산으로, 황새가 목을 길게 늘어놓은 모양새다.

천개동은 육이오 전쟁당시 피란민들이 화전을 붙여먹기 위해 개척했던 마을이다. 계족산 정상부근의 험준한 산을 깎고 닦아 논밭을 일구어 농사를 짓던 마을인데, 하늘과 가깝고 하늘을 여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천개농장이라는 오리고기집이 성업 중이며, 대청호 생태관지나 가는 길이 꼬불꼬불 하고 높은 재를 넘으면 천개동 마을이 오밀조밀 산자락과 잘 어울리며 길손을 마중한다.

효평동의 비지정 문화재

1) 효평동 소들 소들뚝방-기우제祈雨祭

소재지 : 동구 효평동

분 류 : 기우제터

시 대 : 미상

수 량 : 1개소

동구 판암동의 동신고등학교에서 옥천쪽으로 100m 정도를 가면 비룡네거리가 나온다. 이곳에서 좌회전하여 대청길로 들어서서, 대청호수길을 따라 1.8km 정도를 가면, 동명초등학교가 나온다. 계속 직진하여 대청댐 쪽 대청호수길을 따라 3km 정도를 가면, 효평동의 공예문화체험학교(옛 효평초등학교 자리)가 나온다. 여기에서 150m 정도를 더 가면, 이현동과 직동으로 갈라지는 세거리가 나오는데, 이 세거리에서 우측인 직동의 찬샘마을 쪽 길로 들어서서 50m 정도를 가다가 우측의 냇가 둑을 타고 50m 정도를 가면 효평동 소들 뚝방이 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면 마을 사람들은 이곳 뚝방에서, 무제라고도 부르던 기우제를 지냈다. 지내는 방식이 다른 기우제와 달리 좀 독특했는데, 30여년 전 이후로는 아직 지낸 일이 없다고 한다. 당시의 기우제는 여자들이 중심이 되어 지냈는데, 여러 여자들이 뚝방에 나와 옷을 벗고, 치로 물을 까부르며 놀다가 물밖으로 나온다. 이때 제일 늦게 나오는 여자의 옷을 감추고 먼저 나온 여자들이 떠나면, 이 여자는 옷을 입을 수 없어 난처해 하며, 옷을 어서 내 놓으라고 소리를 지른다고 한다. 이런 우세를 벌리고 나면 그 뒤에 비가 왔다고 한다. (대전 문화유적분포지도 189쪽 참조)

2) 효평동 소들 장승-탑제塔第

소재지 : 동구 효평동
분 류 : 민간신앙
시 대 : 미상
수 량 : 1기

동구 판암동의 동신고등학교에서 옥천쪽으로 100m 정도를 가면 비룡네거리가 나온다. 이곳에서 좌회전하여 대청길로 들어서서, 대청호수길을 따라 1.8km 정도를 가면, 동명초등학교가 나온다. 계속 직진하여 대청댐 쪽 대청호수길을 따라 3km 정도를 가면, 효평동의 공예문화체험학교(옛 효평초등학교 자리)가 나온다. 여기에서 150m 정도를 더 가면, 이현동과 직동으로 갈라지는 세거리가 나오는데, 그대로 직진하여 260m 정도를 가면 우측 길가 양쪽 어귀에 효평동 소들 장승인 두기의 탑이 있었다. 탑이 있던 곳이라하여 두 곳을 ‘탑거리’라 불렀다. 위쪽의 탑보다 아래쪽의 탑을 더 중하게 여겨, 아래 탑을 ‘큰탑’이라 불렀다. 큰탑은 ‘ㄱ’모양으로 굽은 자연석으로, 높이 95cm, 폭 30cm, 두께 15cm이다. 위쪽에 있던 탑은 홍수 때 떠내려가 소실되었다. 마을에서는 예전부터 아래쪽의 큰탑 앞에서 매년 음력 정월 열나흘날이면 탑제를 지냈다. 예전에는 제관을 뽑아 제를 지냈으나 금기사항을 지키기 어려워해 제관을 뽑지 않고, 제사 전에 생기복덕과 운이 닿는 사람에게 제물마련을 맡긴다. 제비는 각 집당 쌀1~2되를 거두어 충당한다. 제물은 삼색실과, 명태, 술 등을 마련한다. 당일 밤 9시경이 되면 여자들을 제외한 주민들이 나서서 거리제당인 큰탑 앞으로 나간다. 큰탑 앞에 제물을 차리고 유교식에 따라 축문을 읽고, 탑소지와 집의 위치대로 호주소지를 올린다. 아래 큰탑에서의 제사가 끝나면 제물을 거두어 위쪽의 탑으로 가서 똑같이 제사를 올렸다. 제사를 마치면 제를 주관한 주민의 집에 모여 음복하였다. 이러한 마을의 제사가 새마을 운동시절 미신타파라는 미명하에 중단되고 말았다.

3) 효평동 갯집 거리제당-거리제

소재지 : 동구 효평동 464)
분 류 : 구나무(1982.3.6-1-3)
시 대 : 미상
수 량 : 1개소

동구 판암동의 동신고등학교에서 옥천쪽으로 100m 정도를 가면 비룡네거리가 나온다. 이곳에서 좌회전하여 대청길로 들어서서, 대청호수길을 따라 1.8km 정도를 가면, 동명초

등학교가 나온다. 계속 직진하여 대청댐 쪽 대청호수길을 따라 2.4km 정도를 가면 좌측으로 양지갯점마을 앞이 나오는데, 이 마을 안의 효평동 경노당 옆에 효평동 갯점 거리제당인 동구나무가 있다. 예전에는 여러 나무들이 있었으나 베어버려 없어지고 한 나무만 남아 있는데, 이 동구나무의 나이는 300년 정도이며, 높이가 20m, 지름이 2.4m이다. 매년 음력 정월 열나흘날에 이 동구나무에서 거리제를 지낸다. 제일 열흘 전에 생기복덕과 운이 닿는 마을 여자 중에서 한 사람의 유사를 뽑고 금줄을 친다. 제비는 정월 초사흘이나 나흘날에 풍장을 치고 다니면서 걸립한다. 제물은 여 유사가 열나흘날 아침에 장에 나가 흰무리 떡, 명태, 사과, 배, 밤, 대추, 불밥이 쌀, 막걸리 등을 마련해 온다. 당일 밤 10시경이 되면 유사와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 함께 제당으로 간다. 제물을 차리고 대동소지, 유사소지, 각자의 개인소지를 올린다. 제사가 끝나면 떡과 명태를 소지종이에 싸서 동구나무에 매달아 두고 돌아온다. 매달아 둔 제물과 금줄은 풀지 않고, 없어질 때까지 그대로 둔다.

(대전 문화유적분포지도 188쪽 참조)

4) 효평동 갯점 우물-용왕제

소재지 : 동구 효평동 339
분류 : 민간신앙
시대 : 미상
수량 : 1개소

동구 판암동의 동신고등학교에서 옥천쪽으로 100m 정도를 가면 비룡네거리가 나온다. 이곳에서 좌회전하여 대청길로 들어서서, 대청호수길을 따라 1.8km 정도를 가면, 동명초등학교가 나온다. 계속 직진하여 대청댐 쪽 대청호수길을 따라 2.4km 정도를 가면 우측으로 갯점 마을앞이 나오는데, 이 마을 안으로 200m 정도를 가면 음지말 마을에 효평동 갯점 우물이 있다. 음지말 마을에서는 예전부터 사용해오던 공동우물에 2002년 간이 상수도용 물탱크를 만들고 고사를 지냈다. 삶은 돼지머리, 흰설기 떡, 명태 두 마리, 사과, 배, 미역, 초 등을 제물로 마련했다. 제관을 특별히 뽑아 세우지 않고, 각자 스스로의 정성으로 저녁 무렵 촛불을 밝혀두고 나왔다. 동네가 언제나 평안하고 마을 식구들이 모두 건강하기를 비는 마음에서 촛불을 들고 치성을 드렸다. 각자의 소지도 올리며, 집안의 화평과 무사도 빌었다. 제사를 마친 후에는 언제까지고 깨끗한 물이 잘 솟아나기를 비는 마음을 담아 돈 몇 푼과 떡, 쌀, 미역 등을 조금씩 우물에 넣고, 하루 종일을 즐겁게 놀았다. 정월에 길

일을 택하여 모두 한마음으로 용왕제를 지냈지만, 점차 서구화되며 물질만능주의로 가는 세태 속에 앞으로 매년 계속되어질지는 알 수 없다. (대전 문화유적분포지도 188쪽 참조)

5) 효평동 당산 산신당-산신제

소재지 : 동구 효평동 30-1
분 류 : 민간신앙
시 대 : 미상
수 량 : 1개소

동구 판암동의 동신고등학교에서 옥천쪽으로 100m 정도를 가면 비룡네거리가 나온다. 이곳에서 좌회전하여 대청길로 들어서서 대청호수길을 따라 1.8km 정도를 가면, 동명초등학교가 나온다. 계속 직진하여 대청댐쪽 대청호수길을 따라 3km 정도를 가면, 효평동의 공예문화체험학교(옛 효평초등학교 자리)가 나온다. 여기에서 우측으로 300m 정도를 들어가면 효평동 당산 산신당이 있다. 매년 음력 정월 열나흘날이면 이곳에서 당산 산신제와 당산 돌탑 거리제(산제와 탑제)를 지냈다. 당산 산신제는 마을 입구의 산쪽에서 지냈다. 특별한 형상은 없었지만 산자락 한쪽 구릉의 평평한 곳을 당산이라 부르며 신성시하였다. 제사 일주일 전에 생기복덕을 보아 운이 닿는 사람으로 제관을 뽑았다. 제비는 동답이 있어서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충당해 왔었으나, 일제 강점기에 일인들이 동답을 빼앗기는 바람에 한동안은 결립하여 충당하기도 하였다. 제물은 삼색실과, 백설기, 명태포, 술 등을 마련하였다. 당일 밤 11시경이 되면 제관과 부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산신당으로 가서 산쪽을 향해 제물을 차리고 제를 시작하였다. 제순은 재배 후에 산신소지, 만동소지, 연장자부터 차례로 대주소지를 올렸다. 소지가 끝나면 바로 당산 돌탑으로 거리제를 올리러 갔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하여도 이렇게 올려지던 제사가 새마을운동과 함께 밀어닥친 외래 종교의 영향과 미신타파를 외치는 일부 주민들의 주장이 주민회의를 주름잡아 가결되면서 중단되고 말았다.

6) 효평동 당산 돌탑-거리제

소재지 : 동구 효평동 산30-1
분 류 : 민간신앙
시 대 : 미상
수 량 : 1개소

동구 판암동의 동신고등학교에서 옥천쪽으로 100m 정도를 가면 비룡네거리가 나온다. 이곳에서 좌회전하여 대청길로 들어서서, 대청호수길을 따라 1.8km 정도를 가면, 동명초등학교가 나온다. 계속 직진하여 대청댐 쪽 대청호수길을 따라 3km 정도를 가면, 효평동의 공예문화체험학교(옛 효평초등학교 자리)가 나온다. 여기에서 우측으로 300m 정도를 들어가면 마을 입구 개울 양쪽에 효평동 당산 돌탑이 있었다. 마을쪽에서 보면 왼쪽의 탑에는 큰 고목나무와 선돌 한 기가 있었고, 오른쪽 탑에도 선돌한 기가 있었다. 이 탑 중 오른쪽 탑을 더 중하게 여겨 거리제를 지낼 때는 이곳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산신제를 지내고 나서 이곳 탑으로 와서 거리제를 지냈다. 제관과 더불어 주민들은 풍물을 치면서 오른쪽 탑 앞으로 나온다. 제물은 산신제의 제물과 별도로, 미리 오른쪽의 탑에서 지낼 제물 한 묶음을 마련해 두었던 것을 챙겨 들고 나온다. 제물을 오른쪽 탑 앞에 차린 후에 제관이 먼저 술을 올리고 탑소지, 만동소지, 대주소지를 올린다. 왼쪽의 탑에는 간단히 술 한 잔만을 올린다. 제사를 마친 후에는 간단히 음복하고 제물을 조금씩 떼어서 오른쪽 탑 앞에 놓고 마을로 돌아온 후, 이튿날 아침에 제관집에 모여 음복한다. 이렇게 올려지던 거리제가 1970년대 미신타파 운동의 여파로 갑자기 중단되더니, 마을 길을 넓히면서 탑과 선돌을 모두 밀어내고, 나무마저 베어,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이후로 점점 사람들의 심성이 거칠어지고 민심이 날로 사나워져 가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전 문화유적분포지도 188쪽 참조)

7) 효평동 천개동 산신당-산신제

소재지 : 동구 효평동 570-11
분 류 : 민간신앙
시 대 : 미상
수 량 : 1개소

동구 판암동의 동신고등학교에서 옥천쪽으로 100m 정도를 가면 비룡네거리가 나온다. 이곳에서 좌회전하여 대청길로 들어서서 대청호수길을 따라 1.8km 정도를 가면 동명초등학교가 나온다. 계속 직진하여 대청댐 쪽 대청호수길을 따라 2.4km 정도를 가면 좌측으로 양지갯점마을 앞이 나오는데, 이 마을 안의 효평동 경노당 옆 좌측의 마을 길을 따라 1km 정도를 가면 천개동 마을이 나온다. 이 마을 세거리에서 북쪽 산자락으로 100m 정도를 가면 천개농장 좌측 산 중턱에 효평동 천개동 산신당이 있다. 이곳 산신당에서의 산신제는

한국전쟁 이후 실향민들이 정착하면서 새로운 마을이 생기고 그 마을에서 지내온 제사이다. 매년 음력 정월의 좋은 날을 잡아, 이곳 마을 산 중턱의 큰 바위와 세 그루의 참나무를 제당으로 하여 산신제를 지냈다. 제일 일주일 전에 50세가 넘는 마을 분 중 생기복덕과 운을 보아 집사 한분을 뽑았다. 제비는 각 집당 대략 500원에서 7,000원 정도를 걷어 충당하였는데, 보통 10만원 정도가 모아지고 이 돈으로 치루었다. 제기는 마을회관에 보관되어 있는 사기그릇을 사용하였다. 제물은 사흘 전이나 하루 전에 집사가 장에 나가 돼지머리, 팔설기 떡, 삼색실과, 북어 두 마리, 사과, 배, 무나물, 메, 무국, 소주 등을 마련해 온다. 제주를 소주로 마련하는 것은 북한에서 즐겨먹던 술이 소주였기 때문이었다 한다. 제사 당일 해가 뜨기전의 5~6시경에 산산당으로 간다. 부정하지 않은 남자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었다. 제순은 진설, 헌작, 독축, 마을소지, 호주소지를 올린다. 제사를 마치면 제물을 조금씩 떼어 산신당 주변에 고루던지고 하산하였다가, 날이 밝은 후에 집사 집에 모여 음복하였다. 이러한 산신제가 호구수가 해마다 줄고, 택일을 하던 강혁석 어른마저 돌아가서, 1990년 초반부터 중단된 상태이다. (대전 문화유적분포지도 190쪽 참조)

8) 효평동 효평사

소재지 : 동구 효평동 산43
분류 : 사당
시대 : 1957년
수량 : 1개소

동구 판암동의 동신고등학교에서 옥천쪽으로 100m 정도를 가면 비룡네거리가 나온다. 이곳에서 좌회전하여 대청길로 들어서서 대청호수길을 따라 1.8km 정도를 가면, 동명초등학교가 나온다. 계속 직진하여 대청댐 쪽 대청호수길을 따라 3km 정도를 가면, 효평동의 공예문화체험학교(옛 효평초등학교 자리)가 나온다. 여기에서 150m 정도를 더 가면, 이현동과 직동으로 갈라지는 세거리가 나오는데, 그대로 직진하여 600m 정도를 더 가면 좌측 사자락으로 50m 정도 올라선 능선에 효평동 효평사가 있다. 효평사는 고려말 문신 염제신과 그의 아들 염국보, 염연수를 봉안한 사당이다. 염제신은 고려와 원이 관계된 권세가 집안에서 태어나 고려 충숙왕 이래 우왕 때까지 6대 왕에 걸쳐 60여년 동안 원과 고려를 오가며 관직생활을 한, 고려 말의 문신이다. 염제신은 서원 염씨 가문으로 공의 조부 염승익은 충렬왕 측근이었다. 공의 아명은 불노, 자는 개숙, 호는 매헌이다. 여섯 살에 아

버지 염세충을 여의고, 어머니 조씨와 외가에서 지내다가, 열한 살에 원나라에 들어가 평장사로 있는 고모부 말길의 집에서 수학하였다. 공의 생애 79년 동안은 그 특성으로 나누어, 3대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원에서 성장하고 활동했던 시기를 제1기로 충숙왕과 충정왕 대에 걸쳐 활동했던 시기를 제2기로 반원정책을 단행한 공민왕과 우왕 대에 걸쳐 활동한 시기를 제3기로 볼 수 있다. 공이 원에 들어간 열한 살 무렵, 원의 진정제가 황제가 되었고, 원의 고급관리로 있었던 고모부 말길 덕에 황제를 가까이 할 수 있었다. 총명하고 바른 성품의 공은 곧 황제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 황제의 배려로 봉명사신으로 고려에 와 여러 해 머물다 원으로 돌아갔으며, 황제로부터 여러 관직을 제수 받아 봉직하였다. 고려의 충숙왕, 충목왕, 충정왕으로부터도 여러관직에 제수되어 봉직하였다. 1354년 공민왕 초기 본국 고려에서 좌정승에 제수되고 단성수의동덕보리공신의 호가 내려졌다. 1358년 공의 나이 55세에 문하시중에 제수되었는데, 당시 공은 “백성은 하늘과 같다”고 하였고, 군사로 나와 싸우는 사람들 거의가 농민이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조련을 철저히 하되, 평상시에는 둔전에 두어 농사를 지면서 수비하는 병농일치의 정책을 썼다. 신돈이 왕의 신임을 받아 전제개혁을 시도하며, 공도 따라 줄 것을 바랬으나, 신돈을 따르지 아니하고 서로 대립하였다. 공민왕의 변심에 따라 신돈이 정치일선에서 물러나게 되자, 이를 계기로 다시 적극 국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염제신은 자신의 딸이 공민왕의 신비로 책봉되면서 삼사영사, 문하부영사를 거쳐 곡성부원군에 진봉되었다. 공은 외교적 임무를 도맡아 처리하며, 원과의 원활한 관계에 노력했다. 1383년(우왕9) 공의 나이 79세에 영삼사사로 봉직하다가 세상을 떴다.

9) 효평동 효열기

소재지 : 동구 효평동 471
분 류 : 비각
시 대 : 미상
수 량 : 1동

동구 판암동의 동신고등학교에서 옥천쪽으로 100m 정도를 가면 비룡네거리가 나온다. 이곳에서 좌회전하여 대청길로 들어서서 대청호수길을 따라 1.8km 정도를 가면, 동명초등학교가 나온다. 계속 직진하여 대청댐 쪽 대청호수길을 따라 2.2km 정도를 가면, 우측으로 효평동 음지갯점 마을 앞 세거리가 나온다. 이 세거리에서 우측의 음지갯점 마을로

100m 정도를 가면, 효평동 효열기가 있다. 이곳의 비와 비각은 전주강씨 은열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성문학원 원장인 판서 민병한씨가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각은 앞면 1칸, 옆면 1칸으로 목구조이며 단청이 되어있고, 안의 가운데에 효열기가 서 있다.

10) 효평동 소들 느티나무-1

소재지 : 동구 효평동 177
분 류 : 동나무(1990.9:6-1-20-2)
시 대 : 미상
수 량 : 1그루

동구 판암동의 동신고등학교에서 옥천쪽으로 100m 정도를 가면 비룡네거리가 나온다. 이곳에서 좌회전하여 대청길로 들어서서 대청호수길을 따라 1.8km 정도를 가면 동명초등학교가 나온다. 계속 직진하여 대청댐 쪽 대청호수길을 따라 3km 정도를 가면, 효평동의 공예문화체험학교(옛 효평초등학교 자리)가 나온다. 여기에서 150m 정도를 더 가면, 이현동과 직동으로 갈라지는 세거리가 나오는데, 그대로 직진하여 250m 정도를 가면 우측 길가에 효평동 소들 느티나무-1이 있다. 이 나무의 나이는 200년 정도이며, 높이 14m, 지름 5m이다. 이 나무의 잎을 보고, 한해의 풍흉을 점친다. 봄에 나뭇잎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 가면서 돌아나거나 전체에 고르게 돌아나면, 그 해의 농사가 잘 된다고 한다. 반대로 나무의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잎이 돌아나거나 드문드문 돌아나면, 비가 잘 오지 않아 흉년이 든다고 한다.

11) 효평동 소들 느티나무-2

소재지 : 동구 효평동 926
분 류 : 동나무(1993.9:6-1-20-3)
시 대 : 미상
수 량 : 1그루

동구 판암동의 동신고등학교에서 옥천쪽으로 100m 정도를 가면 비룡네거리가 나온다. 이곳에서 좌회전하여 대청길로 들어서서 대청호수길을 따라 1.8km 정도를 가면 동명초등학교가 나온다. 계속 직진하여 대청댐 쪽 대청호수길을 따라 3km 정도를 가면, 효평동의 공예문화체험학교(옛 효평초등학교 자리)가 나온다. 여기에서 150m 정도를 더 가면, 이현

동과 직동으로 갈라지는 세거리가 나오는데, 이 세거리에서 우측인 직동의 찬샘마을 쪽 길로 들어서서 100m 정도를 가면 우측 길가에 효평동 소들 느티나무-2가 있다. 이 나무의 나이는 200년 정도이며, 높이 12m, 지름 3.7m이다. 이곳 마을 사람들은 봄에 이 나무의 잎이 돋는 것을 보고, 그 해의 풍흉을 점친다. (대전 문화유적분포지도 189쪽 참조)

12) 효평동 천개동 소나무

소재지 : 동구 효평동 581-4
분 류 : 기념나무
시 대 : 미상
수 량 : 1그루

동구 판암동의 동신고등학교에서 옥천쪽으로 100m 정도를 가면 비룡네거리가 나온다. 이곳에서 좌회전하여 대청길로 들어서서 대청호수길을 따라 1.8km 정도를 가면 동명초등학교가 나온다. 계속 직진하여 대청댐 쪽 대청호수길을 따라 2.4km 정도를 가면 좌측으로 양지갯점마을 앞이 나오는데, 이 마을 안의 효평동 경노당 옆 좌측의 마을 길을 따라 1km 정도를 가면 천개동 마을이 나온다. 이 마을 세거리에서 계속 직진하여 250m 정도를 가면 효평동 천개동 소나무가 있다. 이 소나무는 이곳에 정착하게된 실향민들이 이곳 천개동에서 살게된 기념으로 심은 소나무이다. (대전 문화유적분포지도 187~190쪽 참조)

견두산성 犬頭山城은 대전시 기념물 지정번호 20호로 효평동 산83번지에 소재한 삼국시대의 퇴폐식 석축산성이다. 추동소재 동명초등학교길을 따라 2.5km 들어가면 천동골 이라는 좁고 긴 계곡이 나오는데 이 천동골 북서쪽에 해발 365m의 개머리 산이 있는데 개머리산의 이름을 따서 견두산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산성의 평면형태는 동-서로 긴 장타원형으로, 성벽의 길이는 280m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붕괴되어 형태만 남아 있는 실정이다.

효평 소들





효평삼거리



계족식당 부근



효평공동농기구보관소



효평들



효평삼거리



효평동

효평 양짓말



동구문화충서 16호



양짓말 입구



천개동로452



갯점입구



양지말 쉼터

동구문화충서 16호



양지말 삼거리



호평동경로당

효평 음짓말





음짓말 입구



음짓말 전경



효평동 갯점



효열기(孝烈記)

효평 천개동





천개동 가는 길



천개동향토회관



이정표



천개농장



천개동로 251번길



천개동로 251번길 12-57

동구문화충서 16호



천개동로251번길58



천개동로 251번길 81-6



천개동로 251번길 135



천계동중점

효평 효들마을





대덕정



대청호수로 1093

동구문화충서 16호



대청호수로 1147-7



동구와 대덕구 경계



효들경노당



효평삼거리

세천동

세천동細川洞 유래

세천동細川洞은 대전광역시 동구 동쪽에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세천동과 비룡, 신상, 삼정지역의 경계에 있다. 세천동의 동쪽은 옥천군 군북면, 북동쪽은 행정관할지역인 신상, 서쪽은 비룡동과 접해 있어 대전에는 충북 옥천, 대전에는 보은군 회남면으로 갈 수 있는 접경지역이다. 또한 식장산 북쪽에 위치하며 대전 상수도 저수지가 있던 지역이다

세천동은 잔 넷물이 많아서 잔개울 또는 세천이라고 불려오던 지역이다. 이 지역은 식장산에서 발원한 주안천이 남에서 북으로 흘러 가며 주변에 관련이 있는 마을이 많다. 동네 가운데 잔 시내가 여럿 흘러 내린 ‘잔개울’, 골짜기가 좁고 내가 가늘게 흐른다 하는 ‘가늘골’이 그것이다. 이중 ‘세천’은 잔개울에서 연유되어 가늘 세細자와 내천川자를 따서 세천細川이라 하였다.

세천동은 백제百濟때는 우술군雨述郡에 속했으며 신라新羅때는 비풍군比豊郡에 속한 지역이었다. 고려초기에는 회덕현에 속했었으며, 조선시대 말기 고종高宗 32년(1895)에는 회덕군 동면의 지역으로 편성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혁때에 덕터리, 주동을 병합하여 비룡리라고 하고 대전군 동면에 편입되었다가 1935년 11월 1일 대전부 신설에 따라 대덕군에 편입되고 1989년 1월 1일 대전직할시에 편입되어 행정동 추동에 편입되었다가, 1998년 1월 1일 과소동 통합으로 2개의 행정동이 대청동으로 통합되었다. 세천동의 서쪽지역은 대청호 조성때 일부가 수몰된 지역이다. 세천동은 식장산과 대청호를 함께하며 형성된 마을이며, 봄이면 세천수원지 왕벚꽃 나무가 만개하면 하얀 천국을 이루는 곳이며, 세천길 가

로수의 벚꽃이 만개해서 드라이브 하는데 절경을 선사한다.

증악골은 세천 동쪽에 위치한 경부선 골로서, 세천에서 충북 옥천군 증악으로 통하는 기차골이다. 옥천군 세천 사이에 있어 증악골, 세천골이라 세천 동쪽에 위치한 경부선 골로서, 세천에서 충북 옥천군 증악으로 통하는 기차골이다. 옥천군 세천 사이에 있어 증악골, 세천골이라 불린다.

새정골(쇠종골, 金谷)은 잔개울 남쪽에 있는 마을인데 이마을에는 금광과 철광이 있었는데 광부들이 식사 때를 알리는 종을 쳤는데 그 종을 식종食鐘이라 하고, 금과 은이 많이 나오는 마을이라고 해서 쇠전골이라 부르던 것을 새정골, 또는 금곡金谷이라 불렀다.

여기女妓바위는 불당골 옆에 있는 골짜기에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여기바위라 부른다. 옛날 기생들이 불당에 치성을 드리려왔다가 이 바위에서 풍악을 치고 놀았다는 연유로 여기 바위라고 불렀다. 6.25때 사람들이 곳곳에서 피란했으며, 요즈음도 바위 밑에서 불공을 드리기도 한다.

쌈뱅이골은 세천 뒷산골짜기에 옛날부터 쌈바귀가 많이 있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이웃마을 아낙들이 쌈뱅이골을 찾아갈 때 집을 비우고 쉬러가는 것이라고 해서 아낙네들이 집에 없으면 남편이나 아들들은 쌈뱅이골로 찾아 나섰다고 한다. 쌈바귀골이 변해서 지금은 쌈뱅이골이라고 부른다.

산막山幕골은 지청개봉 아래에 있는 골짜기인데 옛날에 산막이 있던 골짜기라 붙여진 이름이다. 산막골은 큰 산막골과 작은 산막골로 나누어져 있다.

뿔당골(불당골)은 세천수원지 옆에 있는 골짜기인데 이 골짜기에 불당이 있어 불당골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왜정시대에 철거되고 놀이터가 되어 버렸는데 옛날에는 큰 불당이었다고 한다.

복거리(산신리)는 대전 상수도 저수지가 있는 곳에 있었던 마을이다. 식장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막아 상수도 저수지를 만드는 바람에 없어진 마을이라고 한다. 가는골 남쪽에 있었다고 한다.

머들령(마달령馬達嶺)은 증악골 위에 위치하며, 고개가 가파르고 길어 많은 사람들이 세천에서 옥천으로 통하는 이길을 많이 이용했으며 마달령을 머들령이라 부른다.

국사봉은 오동과 충북 보은 회남 어부동 경계에 있는 산을 국사봉이라고 부른다. 산 높이는 316m로 산 정상에는 산신제를 지내는 큰 나무가 있는산이다.

세천동의 비지정 문화재로는 새천 잔개울 달불터와 잔개울 거리당제, 새동네 양지산 산신제, 거리당제가 있는데 대부분이 마을 주민들에 의해 제사는 중단된 상태며 잔개울 달불터는 세천초등학교에서 300m 가면 오리골마을 입구 앞에 세거리가 나온다. 이 삼거리에서 우측 산길로 100m 정도를 가면 잔개울 달불터가 나온다. 매년 정월 열나흘날이면 오리골 입구 삼거리의 잔개울 거리제당에서 거리제를 지낸 후, 봉우리 달불터에 올라 달불을 놓았다. 달불을 놓기 전 동네청년들이 달불터에 먼저 올라와 장작을 키 높이로 미리 쌓아 놓는다. 거리제를 마친 마을 사람들이 달불터에도착하면 밑에 끼워둔 짚에 불을 붙여 달불을 밝힌다. 달불을 밝혀야 그해 비가 많이 오고 풍년이 든다고 믿어 한해도 거른일이 없었는데 해방 후 부터 중단된 상태라고 하는 동네 어른의 말씀은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매전(매진이, 산전)마을은 가는골 서남쪽 산 중턱에 위치한 마을로서, 수원지 부락이다. 이 마을이 매화낙지 형의 명당 자리에 있어 매화의 매자와 밭 전 자를 따서 '매전'이라 하였고, 마을 가까이에 산전이 많아 뒤편에서 매전으로 되었다.

매전골(터널)은 세천 서남쪽, 사격장과 매전 사이에 있는 기차골로서, 매전에 대전시 삼정동으로 통한다. 매전

마을과 접해 있어 매전굴이라고 하였고 1910년 완공되었으며, 전이터널이 행정상 명칭이다.

모랭이 말구리(모통이)는 동사무소 북동쪽에 있으며, 세천 아래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로 모통이를 돌아간다고 하여 유래 되었으며 무량사[사찰] 가는 길에 있다.

세천역은 잔개울 남쪽 세정굴 북서쪽에 있으며, 매전굴과 증약굴 사이에 있다. 이는 1910년 세웠으며, 옛 동면지역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교통수단인 철도역이다. 그러나 도시가 발전되고 교통이 원활해짐에 따라, 대중 교통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줄어 세천역도 화물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약바위는 세천저수지 남쪽 끝에 있고, 사람들이 몸이 아플 때, 치성을 드리면 병이 낫는 약이 되는 바위라서 약바위라고 불렀다.

잔개울(장개울, 세천)마을은 세천역 북쪽에 있고 동네 가운데 잔 시내가 여럿 흘러 '잔개울'이라 하고, 가늘 세자와 내천자를 따서 세천이라 하였다. '잔개울'장개울에서'은 연구개음화이다. 국도 4호선(옥천길)을 기준으로 서쪽마을이 원래의 장개울로 안뜸이라고 불렀으며, 동쪽을 바깥뜸이라고 하였다. 현재는 주민센터 지역이나 길 건너에 수물민들이 이주하는 등 마을이 커져가고 있는 곳이다.

주안내(주안천)은 세천동 식장산에서 발원하여 세천저수지, 쇠정굴, 잔개울을 지나 주안면, 내탐리를 거쳐 금강으로 들어가던 내였으나, 현재는 세천에서 대청호로 유입된다. 물에 잠긴 주안면을 지나가는 내여서 '주안 내'라고 하였다.

새동네는 세천동 가는골 마을 북쪽에 자리한 마을로, 대청댐 담수로 집단으로 옮겨와, 골짜기에 새로 이루어진 마을이다.

여기바위(영개바위)는 세천동 소정이골 남쪽에 자리한 바위로, 몸이 아플 때 이곳에 와서 빌면 병이 낫는 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예지박골은 세천동 불당골 골짜기 서쪽에 자리한 골짜기다.

옷샘은 세천동 세천수원지 남쪽에 자리한 샘으로, 옷 오른 사람이 마시면 옷이 깨끗하게 나았다하여 옷샘이라 하였다.

증터골은 세천동 세천수원지 남서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세천동 매전





매전 표지석



매전 입구전경

매전 안길



매전 입구



매전안동네



매전안동네



상가



세천공원관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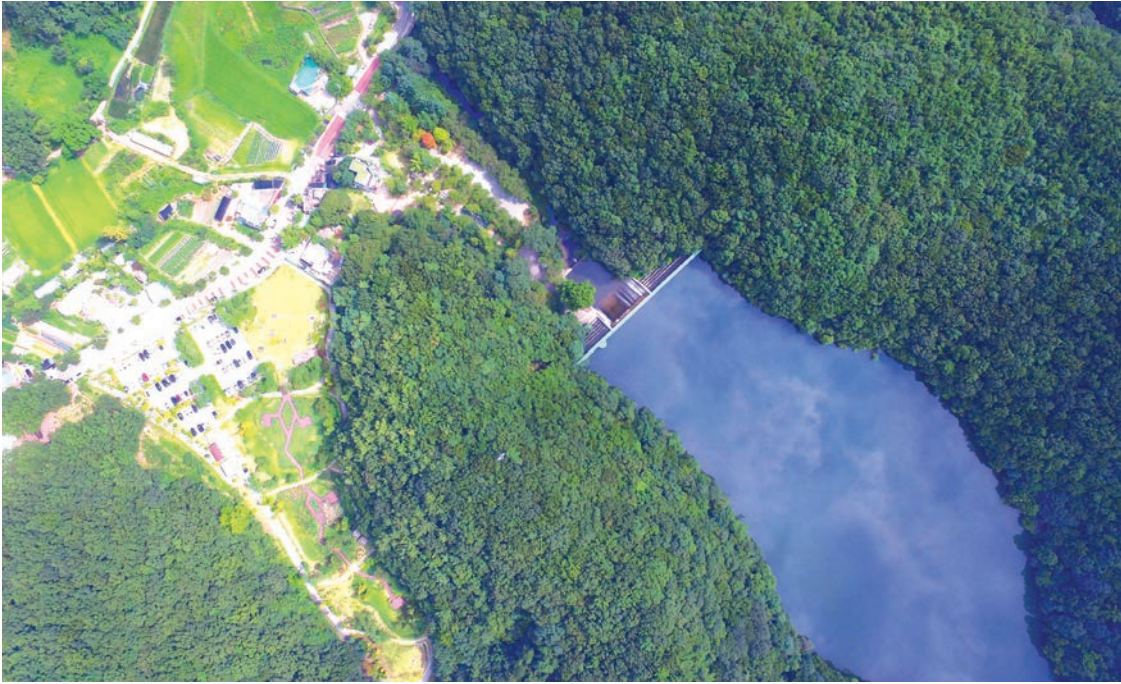
동구문화충서 16호



세천공원로23-1



세천로22-6



세천과 근교



세천지

세천동 새정골





새정골 전경



새정골 입구

동구문화충서 16호



송중기 조부가



세천공원로160



새정골 중점



세천공원로157



열차 굴다리



천지소원탑

세천동 잔개울/새동네



동구문화충서 16호



세천동마을회관



세천막걸리



주민센터부근



주민센터 부근

동구문화충서 1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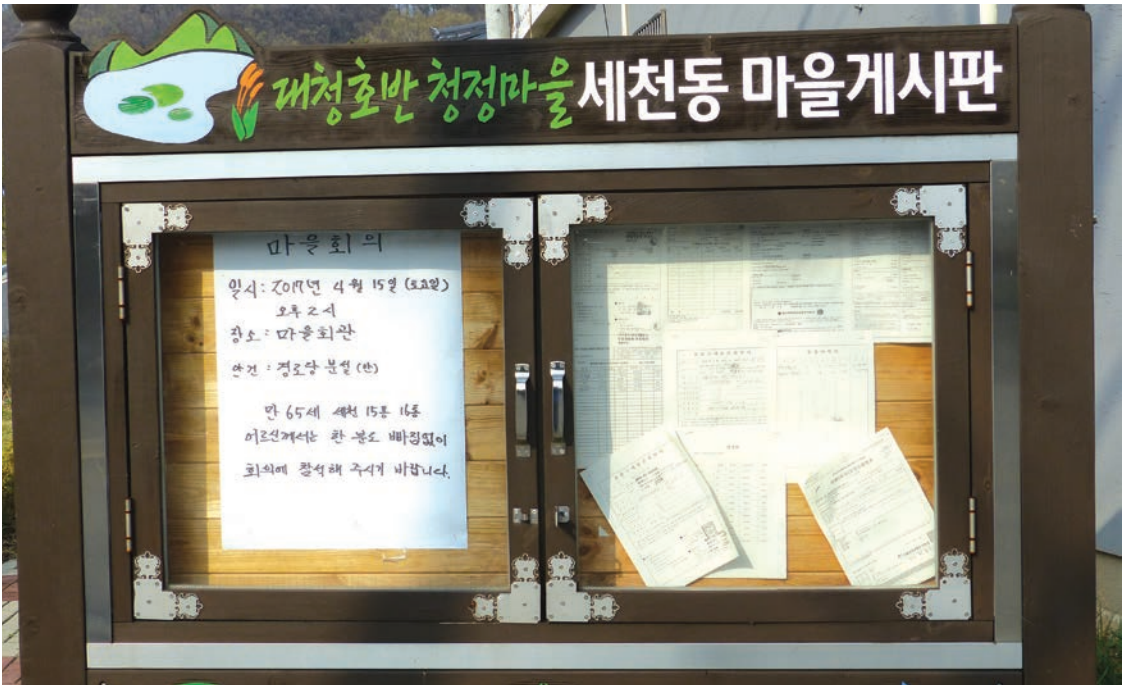
세천초등학교 부근



대전전기사업소 세천분소



대청교회



마을게시판

동구문화충서 16호



초등학교와 경부선방향



마을입구



새동네



새동네



세천교회



새동네



세천로5-31



세천초교



여가녹지



오리골과 옥천길



옥천가는길(주민센터앞)



옥천길 방향

신상동

신상동新上洞 유래

신상동은 동쪽으로 충북 옥천군과 시계를 이루며 서쪽으로 주산동, 비룡동과 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세천동, 북쪽으로는 대청호, 신하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신상동은 새들의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신상동은 백제百濟때는 우술군雨述郡에 속했으며 신라新羅때는 비풍군比豊郡에 속한 지역이었다. 고려초기에는 회덕현에 속했었으며, 조선시대 말기 고종高宗 32년(1895)에는 회덕군 동면의 지역으로 편성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혁때에 봉계리鳳淮里, 아감리牙甘里를 병합하여 새들의 위쪽이 되므로 그 이름을 따서 신상리라고 하였다. 신상동은 대전군 동면에 편입되었다가 1935년 11월 1일 대전부 신설에 따라 대덕군에 편입되고 1989년 1월 1일 대전직할시에 편입되어 행정동 세천동에 편입되었다가, 1998년 1월 1일 과소동 통합으로 2개의 행정동이 대청동으로 통합되었다. 신상동의 서쪽지역은 대청호 조성때 일부가 수몰된 지역이다. 신상동은 어부동 쪽으로 가는 대청호 초입에 있는 마을로 경부선 폐 고속도로가 마을 위로 지나가고 있는 지역으로 바깥아감과 안아감이 있다.

흥진興津은 그곳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이 마을에 흥진부곡興仁部曲의 관터가 있어서 통일신라시대엔 흥곡興曲이라 불렀는데 그것이 변하여 흥진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흥진부곡은 고을이 나루터가 된다는 뜻인데 풍수설로 보아 자연 발생적인 마을 명칭이라고 한다.

감나무골은 논골의 오른쪽에 위치해 있고 감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현재도 큰 감나무가 2그루가 있다. 논골은 선바위골의 오른쪽에 있고 논과 밀접해 있다고 해서 생긴 이름이다.

도깨비양달골은 썸뱅이에서 오리울골로 들어가는 골짜기로 도깨비가 자주 나타나고 햇별이 잘드는 양달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마시박골은 바깥아감 남쪽의 경부고속도로 뒤쪽에 있는 골짜기다.

바깥아감은 산하동으로 들어가는 큰길가에 위치하며 아감의 바깥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백골산은 신하동과 신상동의 경계에 있으며 백제와 신라가 싸웠을 때 사람이 많이 죽어 백골이 많이 묻혀 있다고 해서 생긴 이름이다. 백골산 정상에는 백골산성이 퇴락식으로 축조되었는데 지금은 무너져서 돌무덤으로 변해있고, 표지판만 덩그러니 세워 백골산성을 이야기한다.

음지골은 양지골 위쪽과 황곡골 아래의 사이에 자리하고 있으며, 나무가 많아서 항상 음지로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토끼봉산은 새말의 위쪽(북쪽)에 위치하며 봉우리 모양이 토끼같이 생겼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옥토망월형 명당이 있다고 한다.

흥진(흥인부곡)은 신상동에 있는 마을로 이 마을이 나루터가 되면 크게 흥한다는 말이 있어 흥진이라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통일신라시대에는 흥곡이라 불렀는데 변하여 흥인이라 부르게 되었다. 어떨어는 이곳에 백성들이 많이 살아서 부곡의 이름을 단 흥인부곡이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옥배미는 옛날 통일신라시대에 흥인부곡興仁部曲이 있을 때 옥獄터였다고 한다. 지금은 논이 되어 있는데, 옥배미는 흥진 앞들에 소재하며 옥獄이 있었던 자리라 하여 옥배미라고 부른다.

아가미는 흥진 뒤에 있는 산을 아가미 산이라고 부르는데 아가미산 아래에 있는 마을을 아가미라고 한다. 용계골 동쪽 긴 골짜기에 마을이 있는데 아가미 산 밑에 있다하여 아가미마을이라 부른다고 한다. 새들은 신상동과 신하동에 걸쳐있는 큰 들을 새들이라고 부르며 새들 위쪽에 신상동이 있다.

봉계鳳溪마을은 흥진의 동쪽에 있고 옛날에 학이 많이 날아와 놀던 시냇가라고 해서 붙여진 봉황鳳凰 같은 계곡의 마을이라 해서 봉계鳳溪라 부르는 마을인데 흥진 동쪽 산 너머 골짜기에 있는 마을 이름이라 한다. 어떨어는 계곡의 모양이 봉황과 같이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하기도 한다. 옛적에 이곳은 '계수는 장류하고 산림은 울울창창하여 봉황을 비롯한 물새들이 쌍쌍이 날아드는 경치가 좋은 곳에 자리하였다' 하여 봉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아가미산은 신상동과 충북 옥천군 중악리 경계에 있는 산을 아가미산이라고 부른다. 아가미산 높이는 274m이며 산의 지형이 물고기의 아가미처럼 생겼다하여 아가미 산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또한 이곳은 산이 높고 골이 깊어 험한 길을 보행하던 등짐장수 하나가 하도 애를 쓰고 넘다가 끝까지 갈 무렵에 지쳐서 죽었다는 전설도 전해지고 있다.

신선바위는 오리골 북서쪽 산정상에 있는 바위로 하늘에 있는 선녀가 내려와서 오줌을 누어 바위가 여자의 성기처럼 파였다고 하여 선녀가 바위 위에서 아이를 낳아 바위 위에 붉은 핏자국이 있다고도 한다. 또한 일설에 의하면 신선이 항상 바위위에서 기거를 하여 신선바위라고도 한다. 모두 전설이다.

아가미고개는 썸뱅이[모룽이] 세천에서 오리울골로 들어가는 모퉁이이다. 아가미에서 옥천 쪽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산의 형세가 물고기의 아가미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오리골 마을은 신상에 있는 마을로 신상1동 둠벙에 오리가 많았다고 해서 붙여진 마을이다. 지금은 대청댐 건설로 수몰지구 이주민들이 이사 와서 많이 살고 있는 곳이다.

갈고개는 신상동 흥진마을 옆의 작은 고개다.

갈비봉산은 신상동 안아감마을 북동쪽에 자리한 산봉우리다.
개밥망골은 산상동 마주박골 골짜기 남서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관터는 신상동에 옛날 관아가 있었던 자리라 한다.
굴다리는 신상동 바깥아감마을 동쪽에 자리한 골짜기다.
너구리박골은 산상동 바깥아감마을 동쪽에 자리한 골짜기다.
논골은 신상동 선바위 골 골짜기 오른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독재골고개는 신상동 안아감 마을에서 독골 골짜기로 가는 고개다.
동대골은 신상동 차드레기 골짜기 앞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동마르돌은 산상동 새마을 서남쪽에 자리한 돌이다.
두리봉산은 신상동 머들령고개 동쪽에 자리한 봉우리다.
말개비골은 산상동 너구리박골 골짜기 옆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머들령고개는 신상동 봉계마을 남쪽에 자리한 고개다.
메떡바위는 신상도 오리골마을 북서쪽에 자리한 바위다.
배나무골은 신상동 증골 골짜기와 안아감 마을 사이의 골짜기로, 배나무가 많다.
사러리마을은 신상동 바깥아감마을 서북쪽에 자리했었으나, 대청댐에 수몰되었다.
살포리골은 산사오리골 골짜기에서 흥진이마을과 동면 사이에 자리한 마을이다.
새말(새뚝新坪)들은 신상동 흥진마을에 자리한 마을이다.
샘골은 신상동 흥진이 마을 앞산 서쪽에 자리한 골짜기다.
숫거리는 신상동 장터에 자리했던 곳으로, 대청댐에 수몰되었다.
시루고개는 신상동 봉계마을 앞에 자리한 신탄으로 가는 고개다.
썸뱅이 모퉁이는 신상동 오리골 골짜기에서 세천동으로 가는 길의 모퉁이다.
안말마을은 신상동 오리골 골짜기 앞의 마을로, 대청댐 담수로 수몰되었다.
안아감마을은 신상동 아감마을 안쪽 깊이 자리잡은 마을이다.
약물내기샘은 신상동 바깥아감마을에서 안아감마을 쪽으로 가는 곳에 있는 샘이다.
엥게말마을은 신상동 사러리마을 건너에 자리했던 마을로, 대청댐 수몰로 사라진 마을이다.
오리골마을은 세천에서 옥천가는 좌편에 자리한 골짜기와, 오리가 많고, 수몰민들이 이사와 살고 있는 신상 1동에 자리한 마을의 이름이 같은 오리골이다.
웅곳재고개는 신상동 오리골 골짜기 북쪽에 자리한 고개로, 일부는 수몰되었다.
웃말은 신상동 오리골 골짜기 북동쪽에 자리한 마을로, 일부가 수몰되었다.
웃아감 마을은 신상동 독골재 고개 밑으로 자라한 마을이다.

장터골은 신상동 두리봉 산의 서쪽의 골짜기로, 옛적에 장이 서던 곳이다.

증미골은 신상동 머들령 고개 서쪽에 자리한 골짜기다.

치드레기골은 신상동 독고재 고개에서 동대골 골짜기 정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탐산이강내는 신상동 바깥아감마을 앞에 자리했던 내로, 수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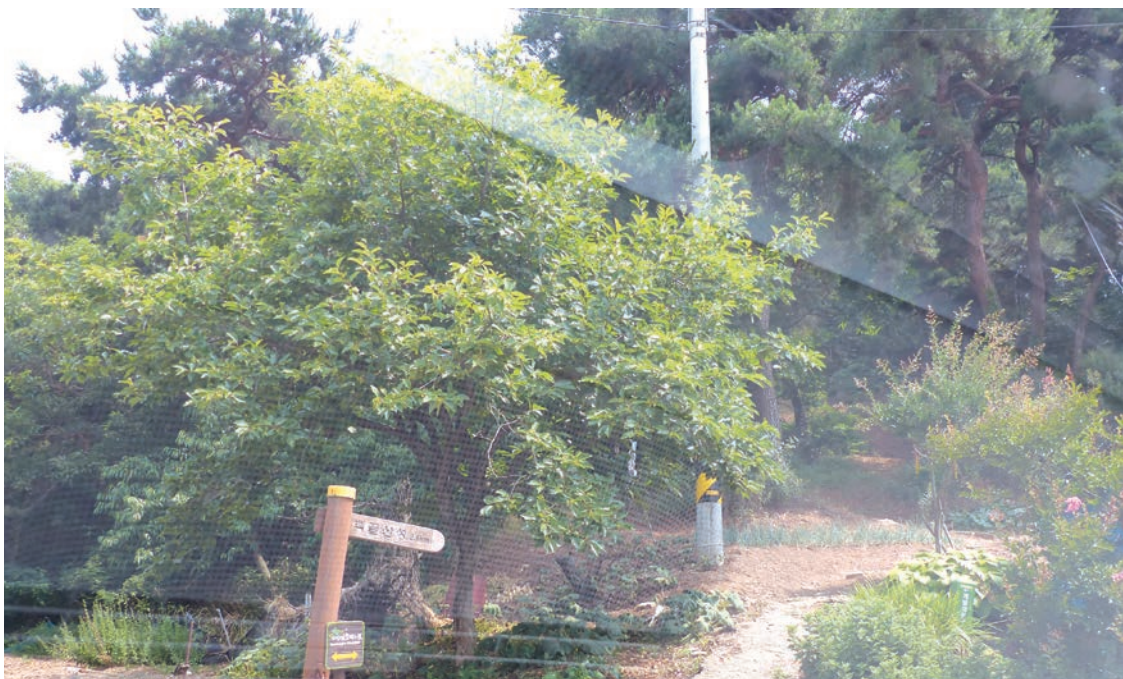
함박골은 신상동 바깥아감마을 동남쪽에 자리한 골짜기다.

신상동 바깥아감





동네 앞



백골산성 입구

동구문화충서 16호



안동네



회남로 58번길 19-40

신상동 안아감마을





버스정류장



감성의 문패



신상로 647번길 일원



신상로 647번길 85



안아감 안고살



안아감경로당

신상동 흥진마을





백골산성안내



풍경



회남로 79번길 107



회남로 79번길 109

동구문화충서 16호



회남로 79번길118



흥진가는 길



흥진마을 전경

신상동 오리골



오리골 입구



오리골 가는 길





오리골입구 습지표시



습지



오리골



오리골



오리골 풍경



오리골마을



오리골



오리골 종점전경



오리골과 대청호

신하동

신하동新下洞 유래

신하동의 위치는 동쪽으로 충북 옥천군과 시계를 이루며 서쪽에서 서북쪽으로 대청호에 접해 있다. 그리고 남으로는 신상동, 북으로는 신촌동과 접해 있는 마을이다. 마을이름의 유래는 새로 생긴 마을의 아래쪽에 위치했다고 해서 생긴 이름으로 새들의 아래쪽에 있다는 마을이기도 하다. 백제시대에는 우술군에 속했으며 신라시대에는 비풍군에 속하였다. 고려초기에는 회덕현에 속했다가 현종 9년(1018) 이후에는 공주부에 속하였다. 조선시대 말기 고종 32년(1895)에는 회덕군 동면의 지역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신평리, 소하리, 장대리, 신촌, 묘동을 병합해서 신하리로 이름을 붙여 대전군 동면에 편입되었다가 1935년 11월 1일 대전부 신설에 따라 대덕군에 편입되고 그 후 1989년 1월 1일 대전직할시 승격과 함께 대전직할시에 편입되었다가 1995년 1월 1일 대전광역시 동구 신하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현재 행정동은 대청동이다. 신하동 서북쪽은 대청호에 수몰되었다.

신하동에는 백골산성(시기념물22호)와 김정선생묘소일원(문화재자료25호)가 있다.

신하동의 지명유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구절골은 태봉산 북쪽에 있는 마을로 옛날 큰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지나가던 중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곳에 절을 짓고 부처님을 정성으로 모시면 마을이 흥하게 되고 잘살게 된다는 말을 하여 이곳 사람들이 이곳에 큰 절을 만들어 그 중에서 부처님을 모시게 했다는데서 생긴 이름이라 한다. 그리고 골안에는 도성원이라는 사찰이 있다.

동산고개는 주원장터 옆 동상수물지에서 비금으로 올라가던 고개, 사러리 동쪽 양지바른 곳에 있는데 고개와 마을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로 보통 동산티라 부르기도 한다.

웃골은 작은 태봉 왼쪽에 있는 마을로 동네 뒤의 삼태산이 묘하게 생겼다 하여 붙여진 마을이름이다 웃골이라 부르다가 웃골로 변하여 현재에는 묘동이라 부른다.

백골산은 신하동과 신상동의 경계이며 백제와 신라가 싸웠을 때 사람이 많이 죽어 백골이 많이 묻혀 있다고 해서 생긴 이름이다. 백골산 정상부에는 백골산성이 있으나 무너지고 훼손되어 흔적만 남아있고 표지판이 백골산성을 증명해 준다.

방축골마을은 구절골에서 골말 쪽으로 가는 고개 넘어 있는 동네다.

뱀날산은 삼태봉 아래 있는 커다란 산을 말하는데 산의 형세가 마치 뱀이 아래로 내려오는 모양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비금마을은 바깥아감 북서쪽에 있는 마을로 사러리와 토끼봉들 쪽에 자리잡고 있는 마을이다. 새가 나는 형상을 닮았다고 해서 비금이라고 하는데 전해오는 풍수설에 의하면 이곳에 비금탁조의 터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이 마을은 10여호가 모여 살고 있다.

비금 애향탑은 비금마을 입구 큰도로변에 건립되어 있는 탑으로 1992년 10월 4일 신하동 주민일동이 건립하였다. 내용은 비금마을의 유래와 대청댐 건립으로 인한 실향의 아픔을 담고 있으며 하단에 애향시도 적혀 있다. 비암날망[마루] 큰태봉과 작은 태봉의 사이에 있는 날등이다.

사러리골은 동산고개 서쪽에 있던 마을로 한 선비가 이 마을에 자리를 잡고 마을 사람들에게 생각은 신중하게 하고 말을 더듬는 것처럼 어눌하게 하라고 일렀다고 해서 처음에는 사눌이라 하였다가 뒤에 사러리라 불렸다고 한다. 즉 살아간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하기도 하며, 마을의 뒷산이 이리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한편, 옛날에 마을의 뒷산에 이리가 많았던 산이라 부르다가 사러리로 바뀐 것이라고도 한다. 현재에는 수몰되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삼태봉은 비금마을 뒷산에 위치한 세 개의 봉우리이다. 산봉우리 셋이 수려한 모습으로 삼태성처럼 솟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소정이는 동산고개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나무 정자가 있는 작은 마을이다. 또는 동네 형국이 작은 솔밭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소정이라고도 했다.

산절골은 옛 안밭들에 있는 마을로 1980년 대청댐 건설로 수몰민들이 이사하여 거주하면서 새로 생긴 마을이다.

웃샘은 큰 태봉 아래 있는 샘 이름인데 주변에 율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전언이다.

은개마을은 사러리의 북쪽에 있는 마을로 은빛이 나는 들 가운데에 개울이 흐른다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장터는 비금 북서쪽에 있는 수몰된 옛장터로 옛날에 이곳에 장이 섰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신하동에서 가장 큰 마을이었는데 현재에는 수몰되었다. 근처의 흙이 붉은색인 것이 특징이라 한다. 또한 동면사무소, 동명국민학교, 동면지서, 동면농협 및 창고터, 동면우체국터 등이 모두 이 장터 주변에 있었다.

절골마을은 산절골 북동쪽의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이곳의 지형은 종이 배낭을 지고 가는 형국이라고 하는데 신라때 어느 스님이 말하기를 이곳은 불문 고을 터이니 절을 짓고 부처님을 모시면 마을이 융성할 것이다 하여 큰 절이 들어섰는데 그 후 절이 없어졌지만 동네가 생기면서 그 골짜기의 이름을 다시 절골이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신절골은 비금에 새로 생겼다.

채봉골은 비금 동북쪽 산에 위치해 사람이 죽으면 채봉하던 곳(시신을 나무에 올려놓고 뼈만 남으면 추려다가 장사지내는 곳)이다.

태봉산은 묘동 동쪽에 있는 큰 산으로 옛날에 왕의 태를 묻었던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수가 빼어나서 경치가 아주 아름답다.

개구리봉산은 신하동 버금마을 서남쪽에 자리한 물위에 떠있는 작은 봉우리다.

골말은 신하동 절골마을 북쪽에 자리한 마을이다.

바당바위는 신하동 방축골마을 위에 있는 바위다.

못골(묘동)마을은 신하동 작은 태봉산 왼쪽에 자리한 마을이다.

배골은 신하동 태봉골 졸짜기 북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뱃나루는 신하동 버금마을 서쪽에 자리한 뱃나루다.

불두골은 신하동 묘골 마을에서 버금으로 이어지는 골짜기이다.

불무골 고개는 신하동 비암날망 아래 골짜기이다.

사창이 마을은 신하동 골말마을과 방축골마을 사이에 자리한 동네이다.

새말은 신하동 큰태봉골 골짜기와 불두골 골짜기 사이에 자리한 산이다.

안마들은 신하동 산절골 마을 서쪽에 자리한 들판이다.

여수골은 신하동 태봉골 골짜기 왼쪽 깊은 골짜기 안의 큰 굴이다.

참나무메기골은 신하동 태봉골 골짜기 옆에 자리한 골짜기로, 예전에 이곳에 참나무가 많아 솥을 굽기도 했다.

창골날망마루는 신하동 작은 태봉산 앞에 자리한 산마루다.

토끼봉들은 신하동 토끼봉산 동쪽에 자리한 들이다.

신하동 구절골





카페촌



호수속의 섬



호수위의 풍경

신하동 비금



신하동 신절골



신하동 요골 골말





김정선생 사당



김정선생 사당 입구



문화재자료25호 김정선생 사당



신하동 요골 승강장



아랫요골 입구



요골 경노당



요골 무명사찰 옆 폐가



요골 연꽃밭



요골 동네 중심 폐가



요골 양곡창고



요골 위 입구



요골 입구 폐가



요골입구 회남로 112번길2



요골 입구

동구문화충서 16호



회남로12



회남로3 폐가



회남로5-5 무명사찰



회남로 5-5

신촌동

신촌동新村洞 유래

법정동인 신촌동은 동쪽으로 충북 옥천군과 시계를 이루고 서에서 서북쪽으로 대청호에 접해 있으며 남으로는 신하동과 이웃해 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사성동과 접해 있다. 옛날에 환자쌀을 저장하는 사창이 있던 자리라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동음이의현상이 나타난 것이 이 지명의 특징이다.

신촌동은 백제(百濟)때는 우술군(雨述郡)에 속했으며 신라(新羅)때는 비풍군(比豊郡)에 속한 지역이었다. 고려초기에는 회덕현에 속했었으며, 조선시대 말기 고종(高宗) 32년(1895)에는 회덕군 동면의 지역으로 편성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혁때에 봉계리(鳳淮里), 아감리(牙甘里)를 병합하여 새들의 위쪽이 되므로 그 이름을 따서 신상리라고 하였다. 신상동은 대전군 동면에 편입되었다가 1935년 11월 1일 대전부 신설에 따라 대덕군에 편입되고 1989년 1월 1일 대전직할시에 편입되어 행정동 세천동에 편입되었다가, 1998년 1월 1일 과소동 통합으로 2개의 행정동이 대청동으로 통합되었다. 신촌동의 서쪽지역은 대청호 조성때 일부가 수몰된 지역이다. 신촌동에는 경주이씨(慶州李氏) 50여호가 집성촌을 이루었던 지역이며 회덕황씨(懷德黃氏) 도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거북바위가 있는데 바위모양이 거북이처럼 생겼다고 하여 그렇게 부른다.

구름다리는 방죽골 북서쪽에 있는 마을인데 옛날에 구름다리가 있었다고 해서 그 마을을 구름다리라고 한다.

노적봉(露積峰)은 사창(司倉) 뒤에 있는 산으로 산세가 수려하고 봉우리가 노적가리처럼 생겼다하여 노적봉이라 부른다고 한다.

토물은 구름다리 동쪽에 있는 마을을 토물 또는 토정, 토우물이라 부른다. 조선 숙종 때 효자인 송상민이 여기에 살았다.

역마봉驛馬峰은 역마가 달리는 모습과 닮은 봉우리가 있는데 역마봉은 구름다리골 서쪽에 있는 작은 봉우리다.

소타실은 역마봉 남쪽에 있는 들인데 옛날에는 큰마을이 있었던 곳이며, 이곳에 송진사宋進士 살았는데 그는 큰 부자로 행랑들이 많았으며, 송진사는 인심이 좋은 사람이어서 늘 손님들이 많이 모였다고 한다. 그래서 이 집에서 나오는 쌀을 씻은 뜯물이 구름다리골 까지 향시 뿌렇게 흐르고 있었다고 한다.

방죽골은 사창司倉 남서쪽에 위치하며 방죽이 있고 방죽부근에 마을이 있다고 하여 방죽동 또는 방동이라고 부른다.

달개미마을은 신촌동에 있는 마을로 10가구가 살았는데 대청댐 건설로 수몰되어 현존하지 않는 역사 속의 마을이다.

독골 골짜기는 신촌에서 모래재 못 미처 있는 골짜기로 돌이 많아서 돌골, 독골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이 골짜기로 충북 옥천을 오갔다고 한다. 특이한 것은 골짜기가 매우 깊다.

땀봉산은 방죽골 앞에 있는 대청호 호수 위에 솟아있는 섬(산봉우리)을 말한다.

면산은 방죽골 뒷산으로 옛날 면사무소가 관리하였던 산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밤실마을은 채봉골 오른쪽에 있는 마을이며 밤실골은 모새날 옆에 있는 골짜기다.

방죽골마을은 사창마을의 남서쪽에 위치해 있고 마을에 방죽이 있어서 방죽골이라 부른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대청댐 담수로 인하여 수몰되었다.

소타실마을은 역마봉 남쪽에 있는 마을로 옛날에 이곳에 송진사가 살았는데 그의 인심이 하도 좋아 지나가던 손님들이 많이 목격 되었는데 그들의 밥을 해주기 위해 쌀을 씻은 물이 항상 끓이지 않고 흘러서 구름다리를 까지 갔다고 한다.

신촌리 애향탑은 신촌리 큰 도로변에 세워져 있어 오석으로 잘 만들어진 탑인데 대청호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애향탑은 신촌에 살다가 대청댐 건설로 신촌을 떠난 실향민들이 고향을 그리다가 실향민들의 성금으로 1991년 6월 16일 건립하였다. 내용은 수몰 지역민으로 실향의 아픔과 끌어오르는 애향의 간절함이 새겨져 있다.

약수터는 기도원 동북쪽에 있는 산 날망 아래에 있는데 이 물로 씻으면 옷과 각종 피부병을 치료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한다.

여수바위는 방죽골 뒷산에 있는 평평한 바위로 옛날에 이곳에 여우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일설에 의하면 여우가 이 바위에서 재주를 넘고 둔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다른 이야기로는 일제시대 이곳에 팔발을 팔 때 이 바위에 여우가 하도 많아서 불렀다고 한다.

채봉골(최봉골)은 방죽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 사람이 죽었을 때 채옹했던 곳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팽낭골탑은 팽나무 거리에 있는 탑으로 팽낭탑에서는 매년 음력 정월14일 저녁에 동민들이 추렴하여 탑제를 지냈다고 한다. 이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떡과 음식을 차려놓고 풍물을 치며 동민의 안녕과 무병장수 그리고 풍년을 기원했다고 한다.

각씨골은 신촌동 뒷골짜기 동쪽에 자리한 골짜기다.

구령골은 신촌동 텃골 골짜기 남쪽에 자리한 골짜기다.

구지나무골은 신촌동 옷샘골 골짜기 동쪽에 자리한 골짜기다.

피꼬리봉산은 신촌동, 사정동에 접해있는 산(높이337m)으로, 산봉우리의 생김새가 피꼬리 모양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달개미 다리는 신촌동 달개미 마을을 건너가는 다리다.

대실들은 신촌동 밤실마을 북쪽에 자리한 들이다.

덕더리 다리는 신촌동 방축골마을 서북쪽에 자리했던 다리로, 대청호 담수로 수몰되었다.

덕다리골은 신촌동 방축골마을 북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덜미골은 신촌동 독골 골짜기 남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덜시산은 신촌동 뒷산으로 소나무가 우거진 곳이다.

돌골은 신촌동 방축골 마을 동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뒷골은 신촌동 대실들 동북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모새날산은 신촌동 서쪽에 자리한 산이다.

밤실골은 신촌동 모새날산 옆의 골짜기와, 채봉골 골짜기의 오른쪽 마을이, 이름이 같은 밤골이다.

범바위(호암)은 신촌동 방축골마을 서쪽에 자리한 바위로, 범 모양을 닮았는데 대청호 담수로 수몰되었다.

서낭터는 신촌동에 자리해 있었으나, 대청호 담수로 수몰되었다.

옷샘골은 신촌동 독새골 골짜기 동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큰골은 신촌동 독골 골짜기 서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토물^{土亭}마을은 신촌동 범바위 북쪽에 자리한 마을이다.

팽나무거리는 신촌동 팽낭골 골짜기에 자리했던 골짜기이다.

신촌동



동구문화충서 16호



신촌동 방주골 팥시온



호수속의 섬



신촌동 방주골 팥시온



호수 위의 풍경

사성동

사성동沙城洞 유래

법정동인 사성동은 동쪽으로 충북 옥천군과 시계를 서쪽으로는 대청호, 그리고 남쪽으로는 신촌동과 접해 있다. 북쪽으로는 내탑동과 경계를 이룬다. 뒷산이 불모지인 순모래로 성처럼 솟아 있는 산 아래에 자리한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일반적으로 모래재라 부른다.

사성동은 백제百濟때는 우술군雨述郡에 속했으며 신라新羅때는 비풍군比豊郡에 속한 지역이었다. 고려초기에는 회덕현에 속했었으며, 조선시대 말기 고종高宗 32년(1895)에는 회덕군 동면의 지역으로 편성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혁때에 덕터리, 주동을 병합하여 비룡리라고 하고 대전군 동면에 편입되었다가 1935년 11월 1일 대전부 신설에 따라 대덕군에 편입되고 1989년 1월 1일 대전직할시에 편입되어 행정동 추동에 편입되었다가, 1998년 1월 1일 과소동 통합으로 2개의 행정동이 대청동으로 통합되었다. 사성동의 서쪽지역은 대청호 조성때 일부가 수몰된 지역이다. 사성동은 대청호를 감싸안고 있는 지역의 특성상 아름다운 절경과 문화재 자료가 많이 산재한 곳이다. 사성동 106번지 근처에는 고인돌로 보이는 역사적 자료도 있으며 대청호 5백리길의 정점이기도 한 곳이다.

청용골靑龍 모래재에서 청룡까지는 청룡이 노는 안식처安息處라고 한다. 흑룡을 피하여 여기 살게된 청룡은 가끔 금강의 줄기를 타고 속리산까지 물살을 헤치기도 한다는 승천을 기다리는 선비와 같은 이무기라 하여 마을은 항시 청룡의 지킴에 안전하고 평온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구전되고 있다.

절미고개는 진벌로 넘어가는 고개를 절미고개라 부른다. 절미기는 북쪽에 있는 고개인데 고개모양이 길마갈이 생겼다고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어두니는 꾀꼬리봉 아래에 있는 골짜기를 이야기한다. 꾀꼬리봉 남쪽을 막고 있어서 늘 침침하여 어두니라고 불렀다고 한다. 따라서 모래재 혹은 사성동이라 부른다. 지금은 마을의 뒷산이 거의 다 모래로 되어 있고 모래재는 다른 말로 주안 모래재라고도 했다. 또한 130여 가구가 살던 사성마을을 말하는데 대청댐의 담수로 수몰되었다.

모래재는 사성동의 중심이 되는 마을로 옛날부터 모래가 많이 나는 곳이라 그 이름을 따서 모래재 혹은 사성동이라 부른다. 지금은 마을의 뒷산이 거의 다 모래로 되어 있고 모래재는 다른 말로 주안 모래재라고도 했다. 또한 130여 가구가 살던 사성마을을 말하는데 대청댐의 담수로 수몰되었다. 물외산(물미산)[산] 절미기 서쪽에 있는 산으로 높이가 179m인데 이곳에는 유난히 바위가 많다고 한다. 대청댐 담수 이후 산이 물에 잠겨 봉우리만 수면 위로 나와 있다.

모래재 산신당 산신제는 사성동 산16-1 모래재에 있는 산신당은 흙과 돌을 섞어 쌓은 돌담집으로 맞배지붕에 슬레이트를 얹었다. 산신당 위에는 높이 160cm 가로270cm 세로 260cm 크기의 통돼지 올리는 제단도 설치되어 있다. 정월 열나흘날 저녁에 산신제를 지내는데 당일 낮에 제관은 산신당을 깨끗이 청소한 후 촛불을 밝혀두고, 밤 10시경 제간 일행이 산신당으로 오르며 밤12시에 제사를 시작한다. 유교식 제사에 따라 분향, 강신, 허작, 독축, 소지올리기로 진행한다. 소지는 산신소지, 마을소지, 개별 성씨소지를 올린다. 예전에는 첫닭이 울어야 하산하였으나 수몰이후에는 바로 하산하여 고양주 집에서 음복하고 결산한다.

육진태효자정려(陸鎭泰孝子旌閭)는 사성동에 있는 정려다. 육진태는 부친이 화상을 입고 자리에 눕게 되자 아버지의 고통이 자기의 고통으로 생각하고 화상에 고름이 생기자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면 완치된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가 작고하실 때 까지 수년간 입으로 고름을 빨아내어 부친의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정성을 다하였다고 하는 효자다. 아들로써 어버이를 섬기는 마음이 너무 착하고 타의 모범이 되므로 광무(8년)에 나라에서 그에게 명정命旌을 하여 정여를 세웠다. 육진태 정녀문에는 다음과 같다. [효자증진사랑중학교교관 육진태지효子贈進仕郎中學校教官 陸鎭泰之閭 光武8年 十一月 明 贈職 旌閭]

꾀꼬리봉은 사성동과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경계에 있는 산을 말한다. 산 높이는 225m며 봉우리가 뛰어나서 옛날 개벽했을 때 바다 위에 꾀꼬리만하게 나와 었었던 산이라 해서 꾀꼬리봉 또는 앵봉이라고 부른다.

개불알바위는 모래재에 있던 바위로 그 모양이 개의 낭심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해온다.

공적비(功績碑)는 솔밭마을 큰 도로변에 있는 두 개의 공적비로 본래 내탑초등학교 발전에 공이 큰 정두현 교장과 최기중 장학사의 공적비로 내탑국민학교에 있던 것이 1980년 동명국민학교로 이관되었다가 1988년 12월 이곳으로 옮겨진 것이다.

김종학 공적비는 뒷골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비석은 동면 발전을 위하여 많은 토지를 기부한 김종학 씨의 고적을 기리기 위하여 면민들의 성금으로 병자년 12월에 건립한 것이다. 이 비석은 본래 청룡골 마을 도로변에 있던 것을 대청댐 담수로 인하여 뒷골 김해 김씨 종산이 있는 도로변으로 옮긴 것이다.

거먹바위는 사성동 골말마을 동쪽 산봉우리에 자리한 바위다.

골말마을은 사성동의 대청댐 담수로 수몰되어 사라진 옛 마을의 이름으로, 수몰전에는 큰 마을이었다.

꾀꼬리봉산은 사성동 부리봉산 서쪽에 자리한 높이 225m의 산인데, 옛날 대홍수 때 산꼭대기가 꾀꼬리 몸만 큼만 남았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대실고개는 사성동으로 가는 고갯길이었으나, 대청댐 담수로 수몰되었다.

덜미기마을은 사성동 질마고개 남쪽에 자리한 마을이다.

두리봉산은 사성동 피꼬리봉 동쪽에 자리한 산으로, 피꼬리봉 보다 높다.

동구나무거리는 사성동 피꼬리봉산과 두리봉산 사이에 있는 길로, 370년이나 된 느티나무가 있는데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다.

뒷골고개는 사성동과 신촌동의 경계에 있는 고개다.

맹골은 사성동과 신촌동의 사이에 자리한 골짜기다.

물외산은 사성동 덜미기마을 서쪽에 자리한 높이179m의 산으로, 대청댐의 담수로 산봉오리 부분만 물위에 떠있다.

바금날골은 사성동 골말마을 동편에 자리한 골짜기다.

바위집은 사성동 샘 건너 산에 자리한 바위다.

배남골은 사성동 피꼬리봉산 서쪽에 자리한 골짜기다.

뱀발들은 사성동 골말마을로 올라가는 길목에 자리한 밭이다.

본나무골은 사성동 피꼬리봉산 아래에 자리한 골짜기다.

샘건너산은 사성동 북쪽에 자리한 산으로 호수 가에 있다.

솔바탕마을은 사성동 북쪽에 자리한 마을이다.

숯바탕마루는 사성동 금생골짜기 아래에 자리한 마을이다.

아랫모래재마을은 사성동 윗 모래재 골짜기 아래에 자리한 마을이다.

어두니골은 사성동 피꼬리봉산 북쪽에 자리한 골짜기로 남쪽의 피꼬리봉산이 막고 있어 항상 그늘이 저 붙여진 이름이다.

어두니절터는 어두니의 거먹바위 아래에 자리한 절터로, 옛날 큰 절이 있었다.

왜놈죽인 굴멍골은 사성동 물외산 동북쪽에 자리한 골짜기로 해방이 된 후 일진회 사람들이 악질로 굴던 왜놈을 죽여 확장한 곳이라 한다.

윗모래골은 사성동 숯바탕산마루 아래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장판굴멍골은 사성도 샘 건너 산에 자리한 굴로 옛날 나무꾼들이 쉬면서 장치기하던 곳이다.

절미고개는 사성동 덜미기 마을 북쪽에 자리한 낮은 고개다.

지리고개는 사성동에 있었던 고개로 지금은 대청댐에 수몰되어 없어졌다.

춘두막 마루는 사성동 중간에 자리한 산마루다.

탕근바위는 사성동 송림고개에 자리한 큰 바위다.

하늘쳐다보는 바위는 사성동 봉나무골 골짜기 아래에 자리한 바위다.

사성동 모래재



동구문화충서 16호



모래재



모래재

사성동 아랫모래재





아랫모래재



아랫모래재

주촌동

주촌동 유래

법정동인 주촌동은 동쪽에서 동남으로 충북 보은군과 시계를 이루며 서쪽에서 서남쪽으로 대청호, 내탑동과 접해 있다. 그리고 북쪽에서 북서쪽으로는 충북 보은군과 오동에 접해 있다. 이 마을의 지형이 풍수설에 배 터라고 한데서 배 말이라는 마을이름이 유래되었다는데 현재 대청댐의 완공으로 일부가 수몰된 지역이다. 주촌2동의 옛 이름은 ‘토방터’였다. 주촌1동은 땅 모양이 배를 닮았다하여 ‘배터 혹은 ‘배말’ 이라 불렀으나, 한자로 배 주冊자와 마을촌村자를 써 ‘주촌이라 하였다. 그러나 실은 토방터가 주촌동 지역의 옛 이름이며 대청댐 담수로 거의 모두가 수몰되었다.

백제시대에는 우술군에 속했으며, 신라시대에는 비풍군에 속하였다. 고려 초기에는 회덕현에 속했다가 현종 9년(1018)이후에는 공주부에 속하였다. 조선시대 후기에는 회덕현에 속했다. 조선시대 말기 고종 32년(1895)에는 회덕군 주안면의 지역으로서 배말, 주촌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폐합에 따라오동리 일부를 병합하여 대전군 동면에 편입되었다가 1935년 11월 1일 대전부 신설에 따라 대덕군에 편입되고 1989년 1월 1일 대전직할시 승격과 함께 대전직할시에 편입되었다가 1995년 1월 1일 대전광역시 동구 주촌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현재 행정동은 대청동이고 주촌동의 동쪽과 서쪽이 대청호와 금강에 수몰되었다.

감나무골마을은 주촌동 마을 앞을 지나가는 큰 길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가는골은 주촌동 괴티고개 동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강변뚝마을은 주촌동 배말마을과 우두먹이마을 사이에 자리한 마을이다.

개낭골은 주촌동 우두먹이마을 북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개냉개고개는 주촌동 소골골짜기 동쪽에 자리한 고개이다.

괴티고개 주촌동 토방터마을 동쪽에 자리한 고개이다.

기바날 마루는 주촌동 배말마을 뒤의 산마루로, 대청댐 담수로 수몰되었다.

개티고개는 충북 보은군 회인면 사람들이 내탐으로 오던 고개를 이른다.

경주김씨새원공묘소는 토방터 마을에서 서쪽 대청댐 호수가에 있으며 약 5000여평의 경주이씨 종산으로 묘가 100기 이상 모여 있어 마치 공원묘지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이다. 마을에서 산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경주이씨천이란 비석이 있다.

공기돌 바위는 이성골 강변에 있던 바이돌이며, 전하는 말에 의하면 옛날 이곳에 힘센 장수가 한 사람 살고 있었다고 한다. 하루는 심심해 하던 때에 이성골 강변에서 다섯 개의 바윗돌을 보았다고 한다. 그는 장난삼아 손으로 주워서 던진 것이 하나는 삼재고개 위에 떨어지고 두 개는 장고개천장골에 떨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두 개는 그 자리에서 깨쳐버렸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성골 강변에는 공기돌 바위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깨진 바위는 대청댐 담수로 인하여 수몰되기 전까지 이성골 강변에 있었다는 이야기만 전해 내려오고 있다.

금바위는 배말 사골 앞에 있는 바위로 포광에 금붕어와 금잉어가 있다하여 붙여진 바위 이름이다.

느티나골마루는 주촌동 배말마을 남쪽의 산마루로, 팔로 열발이 넘는 큰 느티나무가 있어, 대보름과 단오 때 치성과 큰 잔치를 벌였으나, 대청댐 담수로 수몰되었다.

꽃봉(화봉)산은 주촌동의 앞산 끝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과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산이 매우 아름답고 꽃이 아주 많이 피어 있는 봉우리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 높이가 265m이며 산이 매우 수려하다.

늘이모퉁이는 배말에서 내탐으로 가는 모퉁이에 있었다. 현재는 대청댐 담수로 수몰됐다.

동그래말림산은 주촌동 토방마을에서 오동리마을 쪽으로 동그스름한 산이다.

대정령골은 주촌동의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현재는 대청댐 담수로 인하여 수몰되었다.

독적골마을은 배말 동쪽 너머에 있던 골짜기에 있던 마을로 돌이 많다고 붙여진 이름이며 대청댐 담수로 수몰되었다.

머고개(원티)마을은 주촌동 꽃봉산의 고개 아래에 자리했던 마을로, 대청댐 담수로 수몰되었다.

머기고개는 주촌동 머고개마을 뒤에 자리했던 고개로, 대청댐 담수로 수몰되었다.

마당바위는 바위가 하도 커서 마당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배말에 있던 아주 넓은 바위로 장정 500명이 그 위에서 밥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한다. 현재는 대청댐 담수로 수몰되었다.

방아골은 옛날 독골과 안도장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현재는 대청댐 담수로 수몰되었다.

방태거리는 배말 앞에 있으며 세 아름드리 느티나무 20여 그루가 있어서 오뉴월에는 동네 사람들이 밥을 먹고 쉬는 곳이었다. 현재는 대청댐 담수로 인하여 수몰되었다.

배말마을은 주촌1동에 있으며 대청댐을 완공한 뒤 일부 마을이 수몰되고 주촌1동에 이전하여 형성된 마을이다.

배말나루터는 주촌동 배말마을 북쪽에 있었던 나루터였으나, 대청댐 담수로 수몰되었다.

부엉데미들은 주촌동 대정령골짜기 서북쪽에 자리한 들이다.

비석날 마루는 주촌동 마을 앞 큰 길 바로위편이며 장군석이라고도 부르는 곳으로 연대미상의 조선시대 장군 이었던 고성이씨의 묘비가 있다.

산제당터는 우두목 동쪽에 위치하며 산제를 지내던 곳이다.

삼재고개는 오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삼골은 주촌동 우두먹이마을 동쪽에 자리했던 골짜기로, 대청댐 담수로 수몰되었다.

삼재고개는 주촌동 오동리마을로 가는 고개이다.

세절고개는 주촌동 왼쪽에 자리한 고개이다.

수루나미골은 주촌동과 내탑동에 걸쳐 자리한 골짜기이다.

시목골은 주촌동 양지독골 골짜기 북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신낭골은 주촌동 우두먹이마을 남쪽에 자리한 골짜기로, 일부가 수몰되었다.

소골은 주촌동 토방터마을 앞에 자리한 작은 골짜기이다.

세바탕평전은 할미골 안에 있는 평지로 배말에서 소를 끌고 이 곳에 가서 풀을 먹이고 풀을 베어 가려면 세번을 메어야 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현재는 대청댐 담수로 인하여 수몰된 곳이다.

양달뚝들은 주촌동 천장골 골짜기 북쪽에 자리한 들이다.

오동리마을은 주촌동 사골 골짜기 동북쪽에 자리한 마을이다.

우괴티고개는 주촌동 괴티고개 위에 자리한, 장고개로 가는 고개이다.

우대골들은 주촌동 오른쪽에 골짜기에 자리한 들로, 대부분이 논이었다.

음달뚝들은 주촌동 천장골 골짜기 남쪽에 자리한 들이다.

여우머니산은 현재 주촌동 앞 큰 산을 이야기 하며 옛날 여우가 많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왜정골 고개는 주촌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이자 옥천군 군북면 와정리로 가는 고개이며 그 아랫마을을 왜정골이라 부른다.

왜정골 모래막이는 주촌동의 우측에 있으며 근처의 산에 모래가 많아서 비만 조금 많이 오면 이 모래가 마을로 흘러들어와 이를 막기 위해 쌓아 놓은 독의 이름이다.

우대마을은 주촌마을에서 배말로 들어오는 곳에 위치한 마을이다.

우두목은 주촌동의 서쪽 장고개 아래 자락에 있으며 땅의 모양이 마치 소의머리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장고개는 배말에서 내탑리 탑산장으로 넘어가던 고개로 마을 사람들이 장을 보러 가기 위해 넘어가던 고개 이름으로 옛날에 성격이 포악하고 권세를 부리던 사람이 이 마을에 살았는데 그는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을 마구 잡아서 자신의 집일을 강제로 시키곤하였다 한다. 그는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을 관가로 보내어 혼이 나게 하였다 한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위험을 무릅쓰고 온갖 짐승들이 우굴거리는 험한 고개를 넘어 장을 보러 갔다고 한다. 바로 이 고개를 장을 보러가는 고개를 장고개라 부른다고 한다.

적산산은 주촌동 마을 앞 오른편에 위치한 산 이름이다.

증상골은 머고개 앞에 있던 강물 줄기가 센 골짜기 이름이다. 물살이 너무 세어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현재는 대청댐 담수로 인하여 수몰되었다.

질마바위는 증골의 강가에 있던 바위로 마치 소의 질마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장마가 지면 질마바위가 물속에 들어갔다 물이 빠지면 꼭 질마처럼 보였다고 한다. 현재는 대청댐 담수로 인하여 수몰되었다.

쟁기백대기산은 주촌동 장고개의 산마루이다.

조팃골은 주촌동 서쪽 장고개 아래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죽죽골은 주촌동 올개논골 골짜기 서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죽초골들은 주촌동 우두목마을 남쪽 음달뜸 들에 있는 들판이다.

증골마을은 주촌동 배말다을에서 머고개마을 가는 길목에 자리한 마을과, 삼재고개 너머에 있는 골짜기의 이름이, 같은 이름의 증골로, 대청댐 담수로 수몰되었다.

증골뱃나루터는 주촌동 배말마을에 자리했던 나루였으나, 대청댐 담수로 수몰되었다.

증상골은 주촌동 머고개 앞의 강 물살이 센 골짜기였으나, 대청댐 담수로 수몰되었다.

큰골은 주촌동 절재고개 북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토방터마을은 주촌2동의 옛 이름이자, 현 주촌동의 옛날 이름이었다.

한국골샘은 한국골에 있는 샘으로 아무리 가뭄이 든다고 해도 물이 마르지 않는 샘이다.

할미골은 주촌동 배말마을에서 삼재고개로 가던 골짜기로, 대청댐 담수로 수몰되었다.

행보루모통이는 주촌동 배말마을에서 오동리마을로 가는 모통이로, 현재는 대청댐 담수로 수몰되었다.

황구골마을은 주촌동 마을 앞을 지나는 큰길 위쪽 왼편에 위치한 마을이다.

주촌동 배말



주촌동 토방터





토방터 전경



주촌 앞 호수



마을표지판



회남로 752



회남로 1047번길 60



회남로 1047번길 70

동구문화충서 16호



회남로 839



회남로 1064



회남로 752



회남로 839

내탑동

내탑동內塔洞 유래

내탑동은 동구에 탑이 있다 하여서 탑산이라 하였는데, 이 탑산의 안쪽에 자리한 마을이라 하여 내탑內塔이라 불렀다고 한다. 내탑동에는 수몰되기 전에 금강 수영장이 있었던 곳이다. 비포장도로를 버스로 덜컹거리며 피서를 하기 위해 오가던 추억이 아련한 곳이다.

내탑동은 백제 때는 우술군에 속했으며 신라 때는 비풍군에 속했었다. 고려 초기에는 회덕현懷德縣에 속했으며 현종 9년(1668) 부터는 공주부에 속했었다. 내탑동은 금강 곁으로 외딴 산이 있고 그 외딴 산에 탑이 묻혀있는 것을 유래로 탑산塔山, 또는 내탑이라고 부르던 지역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혁 때 외정리, 사정리, 웅암리를 병합하여 내탑리라고 하고 대전군 동면에 편입되었다가 1935년 11월 1일 대전부 신설에 따라 대덕군에 편입되었다가, 1989년 1월 1일 대전직할시에 편입되었다. 현재 행정동은 추동과 세천동이 통합하여 대청동에 속하고 있으며 내탑동의 서쪽지역은 대청호大淸湖에 수몰되었다. 이곳은 경주김씨 70여호가 집성촌락을 이루었던 지역이었으며 지금도 경주김씨가 여러 가구 살고 있다.

내탑동에는 장고개, 함바위, 진별, 지치밭골, 은행나무, 왜점골, 김정신도비, 마당배미, 송정, 도독골, 은진송씨 열려각, 김정선생묘와 신도비, 금강의 탑산 등의 지역문화가 보존되어 정겨움까지 더해주고 있다. 금강의 탑산은 대청댐 건설로 물 속에 수몰되어 있지만 수몰되기 전에는 내탑동 주변 금강 변에 여름이면 수영장이 개설되어 물놀이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던 대전지역 사람들에게 비포장도로를 먼지를 뒤집어쓰고 덜컹거리며 버스를 타고 가서 놀던 때가 아스라하다.

도독골은 옛날엔 도적들이 운집해서 살면서 지나가는 행인을 괴롭혔다고 한다. 지금의 「왜점골」 위쪽에 있는 골짜기인데 도적들이 소를 잡아먹고 행인들의 금품을 빼앗은 곳으로 도적들이 모여 살았다고 도적골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달가마(마을)은 내탑동의 마을 뒤쪽에 자리한 많은 바위들이 달 밝은 밤이면 달빛에 가마들이 타는 듯이 아름답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독바위獨岩내탑동 탑봉산의 서쪽에 자리한 바위다.

등마루산(산)은 내탑동 왜점골 마을 서쪽 산을 등마루산이라고 한다.

마당배미(들)은 내탑동 조천골 골짜기 앞의 넓은 논이다.

모가남골(들)은 내탑동 왜점골마을 부근에 자리한 골짜기로 모과나무가 많다.

수구마기(나무)는 내탑동 입구 냇가 앞의 나무들로, 물의 범람을 막기 위해 심었다.

왜점골(마을)은 내탑동 진벌들 동남쪽의 마을로, 옛날 기와집이 많이 있었다.

수리내미골(고개)는 내탑동에서 주촌동으로 넘어가는 내리막 고개다.

태해산苔海山은 내탑동과 주촌동 사이에 있는 높이 208m의 숲이 깊은 산으로 태해사라는 절이 있어 태해산이라 불렀다.

송정松亭은 탑산 앞에 있는 소나무 숲을 송정松亭이라고 부르며 탑산의 수구막이로 세운 나무인데 강물이 먹어 들어와서 많이 없어지고 오직 백여년 된 소나무 10여주가 남아 있는데 소나무가 정자처럼 서 있다하여 소나무 정자라는 뜻의 송정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탑봉塔峰은 내탑 앞에 있는 산으로 산 밑은 바위로 형성되어있고 산 위는 흙으로 이루어진 산인데 조선 초기에 나라안이 큰 수해로 물난리에 휩싸였을 때 무주 구천동에서 산이 하나 둥둥 떠내려와 여기에 서게 된 것이라고 한다. 강 가운데 우뚝 솟은 산으로 지금은 한쪽에 물이 흐르고 있으나 장마가 지면 물에 잠기는 산으로 산에 탑이 있다. 또한 산에서 기와가 나오는 것으로 보면 옛날에 절이 있었던 것으로 추산된다. 전언에 의하면 무주 구천동에서 산의 주인이 사람들에게 산의 값을 받으러 왔다가 산을 도로 가져가라고 해서 돌아 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함박바위는 내탑 앞산에 있는 바위로 여러 개가 함박모양으로 있는데 전설에 의하면 마음씨가 곱고 힘센 여자가 있었는데 얼굴이 못생겨서 시집을 못 가는 것을 원통하게 여기며 돌을 깨어 함박꽃 같은 바위를 만들었다고 한다.

장고개는 내탑 뒷산을 장고개라 부른다. 옛날 내탑 뒷산 너머에 성질이 포악하고 세도가인 이씨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자기 마을길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모두 붙잡아 자기집 일을 시키는가하면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붙잡아가 매를 맞게 하기도 하여 장에 가려면 이씨네 마을을 비켜서 짐승들이 우굴 거리는 험한 산길로 장을 보러 다녔다고 한다. 그때부터 장을 보러 다녔던 고개를 장 고개라고 불렀다고 한다.

진벌은 내탑동 앞에 있는 들이다. 백제 때 신라군과 수차례 걸쳐서 싸웠던 곳으로 백제군이 지키던 곳이다. 백제군은 이 벌판에서 싸우다 산성으로 후퇴해서 싸움에 졌다는 뜻을 진벌이라 부른다. 또한 일설에 의하면 여기를 흐른 주원천가에 전담은 기름지나 땅이 질퍽거려 질퍽거리는 땅이라 해서 진벌이라 부른다는 말도 있다. 진벌은 대청댐 준공으로 인하여 물에 잠겨 버려서 추억의 진벌이 되었다.

지치밭골은 내탐 「천지골」 지치밭이 있었던 골짜기가 있었다. 누가 자의적으로 지치를 심은 것도 아닌데 여기만 유독 지치가 울창하게 밭을 이루고 있다하여 지치밭골이라 부른다.

은행나무는 「탐산」마을 한 가운데에 은행나무가 있는데 수백년 묵은 「은행나무」라 하는데 나무는 오래 되었으나 수목이 건강하고 울창하여 그 주변을 돌로 쌓아서 놀이터와 쉼터를 만들어 놓았다. 전언에 의하면 조선 시대에 많은 선비들이 풍광이 수려하여 묵어가는 곳으로 특색있는 은행나무로 오랜 세월의 풍상을 한눈으로 보는 것 같은 나무다.

김정신도비金淨神道碑 1486년 출생하여 10세에 사서四書를 통달한 수재로, 자는 원중元仲이고 호는 중암이며, 이조판서吏曹判書를 지낸 인물이다. 중종의 왕후 신씨를 폐하고 정경왕후를 옹립함을 반대했고 장경왕후가 죽자 신씨 득위를 상소하며 명분에 어긋남을 극간하다가 유배 되었다. 「기묘사화」때는 조광조 일당으로 몰려 처형위기에 있는 것을 영의정 정광필의 옹호로 제주도로 귀양 갔다가 이듬해에 사약이 내려 사망하였다. 김정은 천재며 뛰어난 재능을 가진 명신이었으나 38세에 유배 되는 등 가진 풍량에 희생된 정치가다. 동면에 그 아내 열녀비도 있다. 대청댐 수몰로 지금의 신상동으로 이전하였다.

은진송씨 열녀비恩津宋氏 烈女碑 열녀는 진사공 송여현의 딸이며 김정金淨의 처로 기묘사화로 김정이 죽자 부인은 아들이 없어 조카를 양자로 삼고 정성껏 키웠으며 시어머니가 작고하자 삼년상을 치르고 평소 남편의 거룩하고 몇몇한 덕을 그리워했던 부인은 남편의 제삿날 정성껏 제사를 치른 다음 8일간을 금식하다가 남편의 뒤를 따라 죽었다. 그의 정성과 열녀로써 그 덕을 높이 산 순조3년(1803)에 나라에서 열녀문을 세워 그녀의 공덕을 기리도록 했다.

내탑동 외점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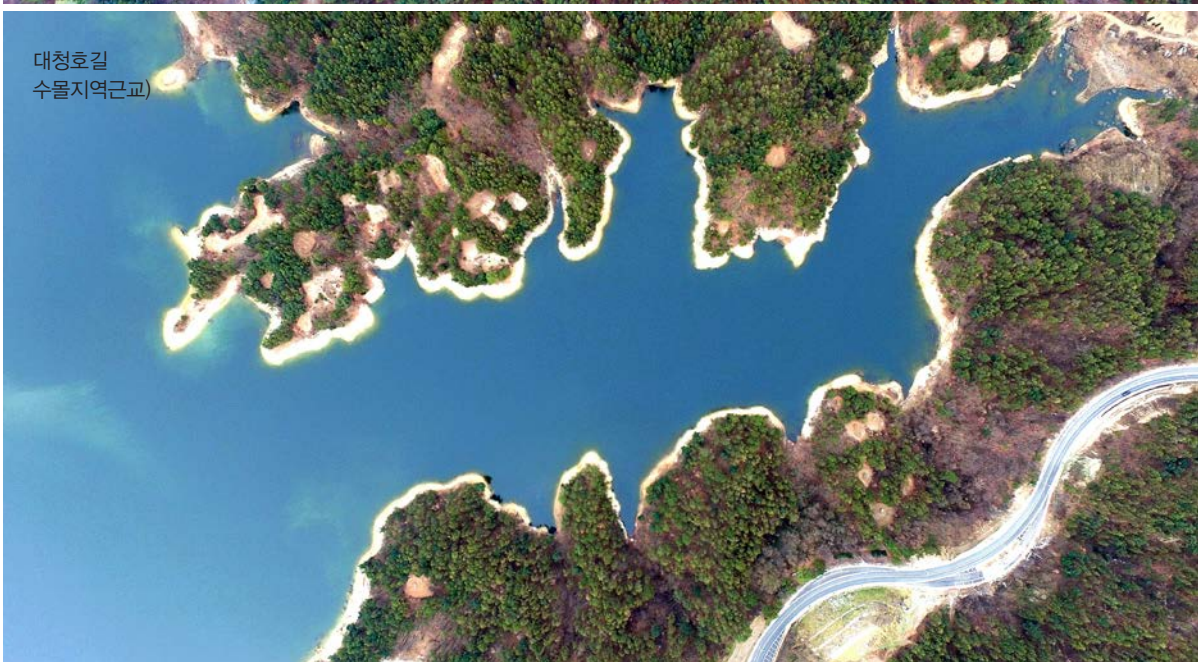
내탐 수물지역



내탐



대청호길
수물지역(근교)



오동

오동梧洞 유래

법정동인 오동은 동쪽에서 동남으로는 주촌동과 접해 있고 서쪽에서 남쪽으로는 대청호에 접해 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충북 보은군과 시계를 이룬다. 이 지역은 풍수설에 오동반월의 형국의 터라 하여 오동이라 붙여진 곳이다. 또는 마을 아래에 오동나무가 많다고 하여 오동이라 불렀다고 한다.

백제시대에는 우술군에 속했으며, 신라시대에는 비풍군에 속했다가 현종 9년(1018)이후에는 공주부에 속하였다. 조선시대 후기에는 회덕현에 속했다. 조선시대 말기 고종 32년(1895)에는 회덕군 주안면의 지역으로 본래 머기고개 아래에 있다 하여 오동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상창리, 하창리, 주촌리 일부를 병합하여 대전군 동면에 편입되었다가 1935년 11월 1일 대전부 신설에 따라 대덕군에 편입되고 1989년 1월 1일 대전직할시 승격과 함께 대전직할시에 편입되었다가 1995년 1월 1일 대전광역시 동구 오동으로 명칭 변경되었다. 현재 행정동은 대청동이고 오동의 서남부는 대청호에 수몰되었다.

가호나루는 오동 최동말 앞에 있는 나루로 충북 청원군 문의면 가호로 넘어간다.

개티고개는 안골 동북쪽에 있는 고개로 국사봉 남동쪽에 있다. 옛날에는 회덕과 충국 회인으로 가는 유일한 고개였다고 한다.

국사봉은 오동의 주산이며 높이가 320미터인데 충남북을 가르는 경계가 되고 있다.

국사봉서낭당은 국사봉 정상에 있으며 두 아름이 넘는 상수리나무 한그루를 산신목으로 정해 놓고 마을 안녕과 각 가정의 태평을 위해서 매년 음력 1월 14일에 산신제를 올린다.

국사절재산신당 국사봉 절제에 있으며 큰 참나무 아래 단을 쌓았는데, 그릇 등이 있으며 산신제는 중단된 상태다.

당앞고개는 안골에서 당앞날을 넘어 충북 회남으로 넘어가던 고개로 일설에 의하면 옛날 안골에는 주안국이라는 국가가 있었는데 어느 장수가 군사 30명을 이끌고 당앞고개를 넘어 충북 회남 땅에 있는 용머리 국을 쳤다고 한다.

산제탑은 움메골에 있고 산제를 지내기 위하여 마을에서 구입한 논밭으로 400평 정도가 현재 움메골에 있다.

갯대봉산은 오동에서 충북 보은군 회남면 버수 뒤에 있는 산이며 세부 측량 때 측량대를 꽂았으므로 갯대봉이라 한다.

궤티고개는 현재의 도로가 나기 전 회인에서 대전으로 넘어오던 고개의 이름이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쇠똥말 마을은 창말의 북서쪽에 있었고 옛날에 소를 기르던 곳으로 소똥이 많이 있었다고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또는 옛날 큰 물이 졌을 때 주변이 다 물에 잠기고 그 자리만 쇠똥만큼 남았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대청댐 담수로 수몰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새구말들은 안골 동구 밖 장승백이가 있는 밭으로 약 1500평 정도 되는 세모로 된 밭을 이야기한다. 현재는 대청댐 담수로 인하여 수몰되었다.

아래법수마을은 도동 쇠똥말 북동쪽에 있는 마을 이름으로 충북 보은군 회남면 법수리 아래쪽에 있었기 때문에 아래법수또는 하법수라고 부른다.

안골마을 (원오동,내동)마을은 오동의 원래 마을로 산 안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이 마을은 지금부터 370여년 전 광산 김씨의 두 형제가 이곳에 정착하면서 번성해진 마을이다. 이곳은 비룡상천형의 형태라 하는데 산의 안쪽에 마을이 있다하여 안골, 내동이라 부른다. 대청댐의 수몰로 인해 물에 잠긴 쇠똥말, 아래법수, 창말 주민 중 일부가 이곳에 이주하여 살고 있다.

오목계곡은 아래법수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우물이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음혈산은 음매 북쪽에 위치하며 그 생김새가 여자의 성기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일설에 의하면 경주김씨의 산으로 지관이 음혈 앞에 축대를 쌓아야 집안이 무고하다하여 그의 말대로 축대를 쌓았다가 경주 김씨 집안 장정들이 여러명 죽었다고 한다. 얼마후 다시 유명한 지관을 불러 물어보니 남형에서 나오는 기를 음혈 앞에 있는 축대로 막아서 화를 당했다고 하는 설이 있는 산이다.

창말(창촌) 마을은 오동에 있던 마을로 나라의 곡식을 저장해 두는 창고인 사창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오동에서 가장 큰 마을이며 매년 1월 15일 거리제를 지낸다. 현재는 대청댐 담수로 인하여 수몰되어 추억만 간직하고 있다.

태봉산과 **태봉바위**는 오동마을 뒤에 위치해 있으며 옛날 태를 묻었던 골짜기라 붙여진 이름이며 태봉바위는 태봉 아래 위치한 바위로 태를 넣는 구덩이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태봉산은 마을의 동쪽에 위치하며 옛날에 왕의 태를 묻었던 산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회덕황씨 법수파제단은 1983년 9월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는 오동리에서 충북으로 넘어가는 길가의 좌측에 있다.

개남개들은 오동 안골마을 서쪽에 자리한 들이다.

개남개천은 오동 안골마을 들 가운데로 흐르던 내였으나, 대청호 담수로 수몰되었다.

곰저리들은 오동 개남개들 남쪽에 자리한 들이다.

깃대봉산은 오동에서 보은군 회남면과 인접한 산으로, 측량 표준 깃대가 서있다.

남바골은 오동의 증골 골짜기 남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늘미모퉁이는 오동 안골마을과 내탑 사이의 산 모퉁이로, 수몰되었다.

낭날앞 마루는 오동 움메골짜기 서쪽에 자리한 산마루로, 충남. 북의 경계 능선이다.

당앞동구나무는 오동에 자리했던 느티나무로, 둘레가10여m나 되었던 아주 큰 고목이었으나 대청호 담수로 수몰되었다.

동구나무거리는 오동 안골마을 큰 동구나무가 자리했던 거리로, 수몰되었다.

머개골은 오동 할미골 골짜기 남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먹먹당 골은 오동 머개 골짜기 남쪽에 자리한 골짜기다.

무덤날 마루는 오동 움메골짜기 남쪽에 자리한 산마루다.

물레방아터는 오동 창촌마을에 자리했던 물레방아 터로, 대청담담수로 수몰되었다.

부숫골은 오동 가호나루 북동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복수골은 오동 북서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삼재고개는 오동에서 주촌동 배말마을로 가는 고개이다.

쇠똥말 마을은 오동 창말마을 북서쪽에 자리한 마을로, 예전에 소를 길러 소똥이 많았으나 대청호 담수로 수몰되었다.

세귀밭 들은 오동 안골마을 동구밖에 자리한 밭인데, 대청호 담수로 수몰되었다.

소골고개는 오동 안골마을에서 내탑동으로 가는 지름길인데, 대청호 담수로 수몰되었다.

송장거리는 오동 안골마을 동쪽에 자리했던 거리인데 대청호 담수로 수몰되었다.

송장바위는 오동 송장거리에 자리했던 바위인데 대청호 담수로 수몰되었다.

아랫창말(하창촌)마을은 오동 창말마을 아래에 자리한 마을이다.

아랫당앞산묘는 오동 움메골짜기 북쪽에 자리한 산으로, 여성의 성기처럼 생겼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우괴티골은 오동 황구골 골짜기 남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움매골은 오동 안골마을 서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위창말(상창촌)은 오동 창말마을 위에 자리했던 마을로 대청호 담수로 수몰되었다.

윗당앞마을은 오동 낭날앞마루 위쪽에 자리한 마을이다.

장구배미논은 오동 안골마을 남서쪽의 장구처럼 생긴 논이었으나, 대청호 담수로 수몰되었다.

절너머골은 오동 절제날망산 아래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절제날망산은 오동 마을 동쪽에 자리한 큰 산봉우리다.

절터골은 오동 창말마을 북쪽에 자리한 골짜기로, 옛날 절이 있었던 터였다.

증골은 오동 개티고개 남쪽에 자리한 마을이다.

참깨울마을은 오동 안골마을 북동쪽에 자리한 마을이다.

팽나무거리방죽못은 오동 팽나무거리에 자리했던 방죽인데, 청호 담수로 수몰되었다.

할미골은 오동 남바골 골짜기 남쪽에 자리한 골짜기이다.



오동





오동 입구



보원제



카페



회남로 1085길

동구문화총서 16호



회남로 1085



회남로 1065번길 28



바람의 노래



회남로 1085번길 22

동구문화총서 16호

대청호가 품은 자연마을

인 쇄 | 2017년 12월 20일
발 행 | 2017년 12월 30일
발 행 인 | 길공섭 대전동구문화원장

자료조사위원장 | 이경숙 환경사진가협회 홍보분과 위원장
자료조사위원 | 신정규 사진작가

기 획 | 이원구
편 성 | 김명옥
정 리 | 권미주

대전동구문화원

주 소 | (우34645)대전광역시 동구 백룡로 20
전화번호 | (042)623-7211
팩시밀리 | (042)623-7221
전자우편 | dgc2135@hanmail.net
홈페이지 | www.dgcc.or.kr

편집인쇄 | 도서출판 이든북
등록번호 | 제2001-000003호
주 소 | (우34625)대전광역시 동구 태전로 43-1 (의지빌딩) 201호
전화번호 | (042)222-2536
팩시밀리 | (042)222-2530
전자우편 | eden-book@daum.net